

금융안정보고서

2016. 12



금융안정보고서

2016. 12



〈한국은행법〉

제96조(국회 보고 등)

- ① 한국은행은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과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총재는 국회 또는 그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와 관련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합니다.

2016년 12월
한국은행
총재 이주열

이 주 열

금융통화위원회

의 장 이주열
위 원 함준호
위 원 장병화
위 원 이일형
위 원 조동철
위 원 고승범
위 원 신인석

금융안정이란 금융회사들이 정상적인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하고,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신뢰가 유지되는 가운데 금융인프라가 잘 구비되어 있어 금융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금융안정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물가안정이나 경제성장과 함께 반드시 달성되어야 하는 정책목표의 하나로서, 각국의 정책당국은 이를 이루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거시건전성정책 수행의 일환으로 금융시스템에 내재된 잠재위험요인을 분석·평가하고 관련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금융안정보고서를 2003년부터 연 2회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 개정된 한국은행법(제96조)에서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연 2회 이상 금융안정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의 질적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6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는 2016년 11월까지 부각된 금융안정 잠재위험요인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금융안정보고서가 금융시장 참가자, 정책당국 등이 금융시스템에 내재해 있는 위험요인을 조기에 인지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차례

[금융안정 개관]

[금융안정 상황]

I. 신용시장	19
1. 신용 레버리지	19
2. 가계신용	22
3. 기업신용	34
II. 자산시장	37
1. 주식시장	37
2. 채권시장	39
3. 부동산시장	41
III. 금융기관	47
1. 은행	47
2. 비은행금융기관	54
3. 상호연계성	61
IV. 자본유출입	63

[복원력]

I. 금융기관	69
1. 은행	69
2. 비은행금융기관	80
II. 대외지급능력	82
III. 금융시장인프라	85

[금융안정 현안 분석]

I. 최근 금융 및 실물 사이클 변화와 시사점	91
II. 업황부진 장기화에 따른 기업금융의 주요 특징	102
III. 은행시스템 상호연계성 분석 및 횡단면 시스템 리스크 측정	114

차례_그림

[금융안정 상황]

〈그림 Ⅰ- 1〉 신용시장 상황 변화 지도	19
〈그림 Ⅰ- 2〉 민간신용/명목GDP 비율 및 갭	19
〈그림 Ⅰ- 3〉 부문별 신용/명목GDP 비율 및 갭	20
〈그림 Ⅰ- 4〉 민간신용 증가율 및 갭	21
〈그림 Ⅰ- 5〉 부문별 신용 증가율 및 갭	21
〈그림 Ⅰ- 6〉 가계신용	22
〈그림 Ⅰ- 7〉 금융권별 가계신용	22
〈그림 Ⅰ- 8〉 대출종류별 가계신용	23
〈그림 Ⅰ- 9〉 차주 연령대 및 소득구간별 가계신용 증감	23
〈그림 Ⅰ-10〉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23
〈그림 Ⅰ-11〉 차주 특성별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	24
〈그림 Ⅰ-12〉 금융 자산 대비 부채 비율	24
〈그림 Ⅰ-13〉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비거치분할상환방식 비중	24
〈그림 Ⅰ-14〉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구조	25
〈그림 Ⅰ-15〉 소득·순자산 분위별 금융부채 분포	25
〈그림 Ⅰ-16〉 기업규모별 예금은행 기업대출	34
〈그림 Ⅰ-17〉 은행권역별 예금은행 기업대출	34
〈그림 Ⅰ-18〉 회사채 발행잔액 및 순발행 현황	34
〈그림 Ⅰ-19〉 기업 부채비율	35
〈그림 Ⅰ-20〉 취약업종 부채비율	35
〈그림 Ⅰ-21〉 기업 이자보상배율	36
〈그림 Ⅰ-22〉 매출액 증가율	36
〈그림 Ⅱ- 1〉 자산시장 상황 변화 지도	37
〈그림 Ⅱ- 2〉 코스피 및 글로벌 주가	37
〈그림 Ⅱ- 3〉 주가 변동성 지수	38
〈그림 Ⅱ- 4〉 외국인 주식 순매수 및 보유 비중	38
〈그림 Ⅱ- 5〉 주요국의 PER 및 PBR	38
〈그림 Ⅱ- 6〉 기준금리, 국고채 및 미국 국채 금리	39
〈그림 Ⅱ- 7〉 외국인 채권투자 현황	39
〈그림 Ⅱ- 8〉 회사채 신용스프레드 및 신용등급 간 스프레드	40
〈그림 Ⅱ- 9〉 회사채 순발행	40

〈그림 II-10〉	회사채 신용등급별 거래규모	40
〈그림 II-11〉	주택매매가격 상승률	41
〈그림 II-12〉	시도별 주택매매가격 상승률	42
〈그림 II-13〉	주택매매거래량	42
〈그림 II-14〉	아파트 분양 및 준공물량	43
〈그림 II-15〉	지역별 세대수 대비 아파트 준공예정 물량	43
〈그림 II-16〉	상업용부동산 투자수익률 및 거래량	43
〈그림 II-17〉	상업용부동산 공실률 및 임대가격지수	44
〈그림 III- 1〉	일반은행 경영건전성 상황 변화 지도	47
〈그림 III- 2〉	일반은행 총자산 규모	47
〈그림 III- 3〉	일반은행 대출 증감	48
〈그림 III- 4〉	일반은행 원화자금 조달 규모	48
〈그림 III- 5〉	일반은행 예금 증감	48
〈그림 III- 6〉	외화차입 차환율 및 장·단기차입 가산금리	49
〈그림 III- 7〉	CDS 프리미엄	49
〈그림 III- 8〉	부실채권 발생·정리 실적 및 고정이하여신비율	50
〈그림 III- 9〉	일반은행 차주별 고정이하여신비율	50
〈그림 III-10〉	일반은행 업종별 고정이하여신비율	50
〈그림 III-11〉	일반은행 수익성 지표	51
〈그림 III-12〉	일반은행 당기순이익 증감요인	51
〈그림 III-13〉	비은행금융기관 경영건전성 상황 변화 지도	54
〈그림 III-14〉	비은행금융기관 총자산 규모	54
〈그림 III-15〉	비은행금융기관 업권별 총자산 증가율	55
〈그림 III-16〉	비은행금융기관 업권별 연체율	56
〈그림 III-17〉	비은행금융기관 업권별 고정이하여신비율	56
〈그림 III-18〉	비은행금융기관 당기순이익	56
〈그림 III-19〉	비은행금융기관 총자산순이익률(ROA)	56
〈그림 III-20〉	금융기관 상호연계 규모 및 증가율	61
〈그림 III-21〉	금융권역별 연계규모	61
〈그림 III-22〉	금융기관 간 상호연계 현황	62
〈그림 IV- 1〉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증감	63
〈그림 IV- 2〉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부문별 증감	64

〈그림 IV- 3〉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의 부문별 증감	64
〈그림 IV- 4〉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증감	64
〈그림 IV- 5〉 거주자 해외 주식투자자금의 투자주체별 증감	65
〈그림 IV- 6〉 거주자 해외 채권투자자금의 투자주체별 증감	65

[복원력]

〈그림 I - 1〉 일반은행 복원력 지표 변화 지도	69
〈그림 I - 2〉 일반은행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	69
〈그림 I - 3〉 일반은행 외화유동성 비율	70
〈그림 I - 4〉 일반은행 대손충당금적립비율 및 변동 요인	70
〈그림 I - 5〉 일반은행 바젤Ⅲ 기준 자본비율	71
〈그림 I - 6〉 자기자본비율 변동 요인	71
〈그림 I - 7〉 비은행금융기관 복원력 지표 변화 지도	80
〈그림 I - 8〉 생명보험회사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	80
〈그림 I - 9〉 상호금융조합 및 저축은행 복원력 지표	81
〈그림 I -10〉 여신전문금융회사 복원력 지표	81
〈그림 I -11〉 증권회사 자본적정성 비율	81
〈그림 II - 1〉 대외지급능력 지표 변화 지도	82
〈그림 II - 2〉 순대외채권	82
〈그림 II - 3〉 부문별 대외채권 증감	82
〈그림 II - 4〉 부문별 대외채무 증감	83
〈그림 II - 5〉 단기 외채 · 채권 비중	83
〈그림 II - 6〉 외환보유액	83
〈그림 II - 7〉 외환보유액 구성	84
〈그림 II - 8〉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	84
〈그림 III - 1〉 한은금융망 관련 리스크 지표	85
〈그림 III - 2〉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연장 현황	85
〈그림 III - 3〉 순이체한도 소진율 현황	86
〈그림 III - 4〉 분리결제 비중	86
〈그림 III - 5〉 CLS 시스템 이용 금액 및 비중	87

[금융안정 현안 분석]

〈그림 Ⅰ- 1〉 금융 및 실물 사이클 추이	92
〈그림 Ⅰ- 2〉 금융위기시 금융사이클 하락국면	93
〈그림 Ⅰ- 3〉 사이클 간 시차 상관계수	93
〈그림 Ⅰ- 4〉 금융위기 전후 금융 및 실물 사이클 변동패턴	94
〈그림 Ⅰ- 5〉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주기 및 진폭 비교	95
〈그림 Ⅰ- 6〉 실물과 금융 사이클 간 동조화지수	95
〈그림 Ⅰ- 7〉 실물과 주택가격 사이클 간 동조화지수	95
〈그림 Ⅰ- 8〉 주택가격과 금융 사이클 간 동조화지수	96
〈그림 Ⅰ- 9〉 민간신용 구성요소별 사이클 비교	96
〈그림 Ⅰ-10〉 신용과 금융기관 수신 사이클 간 동조화지수	97
〈그림 Ⅰ-11〉 유형별 가계대출 증가율과 경제성장률 간 관계	97
〈그림 Ⅰ-12〉 신용과 민간소비 사이클 간 동조화지수	97
〈그림 Ⅰ-13〉 기업대출과 경제성장률 간 관계	98
〈그림 Ⅰ-14〉 기업대출 증가율	98
〈그림 Ⅰ-1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책 대응과 금융·실물 사이클 변화	99
〈그림 Ⅱ- 1〉 기업의 매출액 증감률	102
〈그림 Ⅱ- 2〉 민간신용 중 기업신용 비중 및 매출액 증감률	103
〈그림 Ⅱ- 3〉 기업규모별 신용대출 비중 및 유형자산 증감률	103
〈그림 Ⅱ- 4〉 기업규모별 매출액 및 신용 증감률	103
〈그림 Ⅱ- 5〉 업종별 차입금의존도	104
〈그림 Ⅱ- 6〉 업종별 매출액 및 은행여신 증감률	104
〈그림 Ⅱ- 7〉 일반은행 및 특수은행 취약업종 여신 증감률	105
〈그림 Ⅱ- 8〉 업종별 회사채 순발행	105
〈그림 Ⅱ- 9〉 기업규모별 기업대출	105
〈그림 Ⅱ-10〉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	106
〈그림 Ⅱ-11〉 개인사업자 대출규모 상위 5개 업종의 대출 증가율	106
〈그림 Ⅱ-12〉 부동산임대업 투자수익률 및 대출금리	106
〈그림 Ⅱ-13〉 기업대출의 담보대출 비중	107
〈그림 Ⅱ-14〉 기업규모별 담보대출 비중	107
〈그림 Ⅱ-15〉 신용등급별 신규대출 비중	107
〈그림 Ⅱ-16〉 신용등급별 회사채 순발행	108

〈그림 II-17〉 회사채 신용스프레드 및 신용등급 간 스프레드	108
〈그림 II-18〉 유형자산 및 투자자산 감소기업 비중	108
〈그림 II-19〉 설비투자 증가율 및 기업 현금성자산 비중	109
〈그림 II-20〉 기업의 차입금의존도 변화	109
〈그림 II-21〉 기업 매출액영업이익률	109
〈그림 III- 1〉 국내은행과 금융권역 간 자금조달 및 운용 구조	115
〈그림 III- 2〉 2016년 6월말 은행시스템 상호연계 지도	116
〈그림 III- 3〉 국내은행의 횡단면 리스크 추이	117
〈그림 III- 4〉 은행권역별 부실전염 리스크	118
〈그림 III- 5〉 은행권역별 집중도 리스크	118

차례 표

[금융안정 상황]

〈표 Ⅰ- 1〉 매출액증가율 변동과 여타지표 간 관계 분석결과	36
〈표 Ⅱ- 1〉 지역별·유형별 주택매매가격 상승률	41
〈표 Ⅱ- 2〉 상업용건축물 허가 및 착공 면적	44

[복원력]

〈표 Ⅲ- 1〉 기준시한 이후 납부 비중	86
------------------------------	----

[금융안정 현안 분석]

〈표 Ⅰ- 1〉 금융 및 실물 사이클 평균 주기 및 진폭	92
〈표 Ⅰ- 2〉 부문별 사이클의 국면별 지속기간 및 변동폭	93
〈표 Ⅰ- 3〉 금융사이클의 순환기별 주기 및 진폭	94
〈표 Ⅱ- 1〉 기업규모별 기업대출 관련 주요 정보	106
〈표 Ⅲ- 1〉 상호거래 상위 은행 추이	116
〈표 Ⅲ- 2〉 은행 간 상품별 상호거래 규모	116

차례_참고

[금융안정 개관]

- 〈참고 1〉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 12
- 〈참고 2〉 우리 금융시스템을 둘러싼 주요 대외 여건 변화 13

[금융안정 상황]

- 〈참고 3〉 금리에 민감한 변동금리 가계대출 및 취약차주 현황 26
- 〈참고 4〉 혼합형금리 주택담보대출 취급 현황 및 평가 29
- 〈참고 5〉 자영업자 대출 현황 및 건전성 점검 31
- 〈참고 6〉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의 주요 특징 45
- 〈참고 7〉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의 의의 및 향후 과제 52
- 〈참고 8〉 증권회사 레버리지 규제 도입의 영향 57
- 〈참고 9〉 보험부채 시가평가제 도입의 영향 59

[복원력]

- 〈참고 10〉 특수은행의 경영건전성 72
- 〈참고 11〉 대내외 충격에 대한 은행부문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75
- 〈참고 12〉 2017년 이행예정 글로벌 금융규제의 영향 77

[금융안정 현안 분석]

- 〈참고 13〉 금융 및 실물 사이클 국제비교 100
- 〈참고 14〉 부동산임대업대출 현황 및 평가 111

차례_부록

〈부록 1〉	거시 금융안정 상황점검 회의 의사록	119
〈부록 2〉	용어 해설	122
〈부록 3〉	부문별 담당 부서 및 집필자	127

금융안정 개관

[개황]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가계부채 누증에 따른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및 외환부문의 대내외 충격 흡수능력이 양호하였다. 다만 대내외 여건의 높은 불확실성, 시장금리 상승 움직임, 기업 업황부진 지속 가능성 등에 비추어 향후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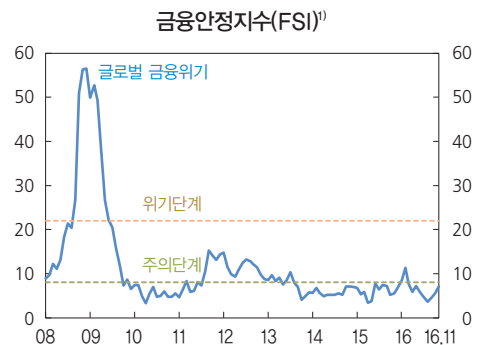
금융안정 상황을 부문별로 보면, 민간부문의 레버리지는 가계와 기업이 상반된 움직임을 보였다. 가계부문의 경우 신용증가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부채비율이 매우 높아 최근의 시장금리 상승세가 지속되는 경우 취약가계를 중심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기업부문은 업황부진 지속, 구조조정의 영향 등으로 신용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저금리·저유가, 경영합리화 노력 등에 힘입어 재무건전성이 개선되었다.

자산시장에서는 11월 이후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주가, 금리 등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주택시장의 가격 및 거래량은 대체로 안정되었으나 일부 지역의 분양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였다.

금융기관 중 일반은행은 부실채권의 매각·상각 노력 등으로 자산건전성이 개선되고 수익성도 다소 회복되었다. 비은행금융기관은 자산건전성이 완만한 개선세를 보였으나, 일부 업권에서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레버리지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점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즉 대내외 충격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 모두 대손충당금적립비율, 자기자본비율 등이 상승하였다. 대외지급능력 측면에서는 순대외채권 및 외환보유액의 증가 기조가 이어진 가운데 단기외채 비율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의 상황을 반영하여 금융안정지수(FSI)¹⁾는 2016년 11월중 7.1로서 주의단계(8.0)를 소폭 하회하였다.



주: 1) 금융안정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실물 및 금융 부문의 20개 월별 지표를 표준화하여 산출. 0~100 사이의 값으로 측정되며 100에 가까울수록 불안정 정도가 높아짐을 의미 (외환위기(1998.1)=100)
자료: 한국은행

1) 금융안정 관련 주요 지표들을 종합하여 하나의 지수로 만든 것으로 향후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예측보다는 현재의 금융안정 상황을 판단하는 척도로 활용되고 있다. 주의 및 위기 단계 임계치는 "noise-to-signal ratio" 접근방법에 의거하여 각각 8과 22로 산출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2012년 4월 금융안정보고서 <참고 IV-1> 「금융안정지수(FSI) 개요」(125쪽)를 참조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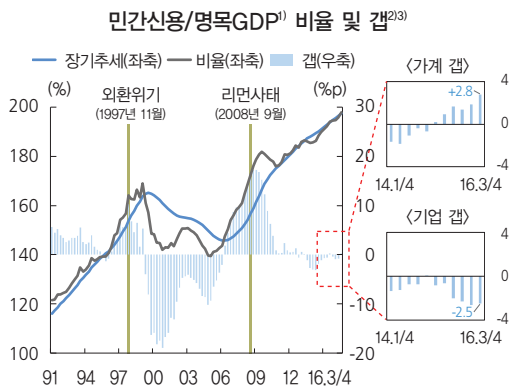
[금융안정 상황]

I. 신용시장

① 민간신용/명목GDP 비율 및 갭 등으로 살펴본 민간부문 전체의 레버리지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16년 들어서도 가계신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가계신용/명목GDP의 플러스 갭이 확대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민간부문의 레버리지 수준을 나타내는 민간신용/명목GDP 비율은 가계신용 급증의 영향으로 2015년말 194.4%에서 2016년 3/4분기말 197.8%로 높아졌다. 민간신용/명목GDP 비율이 장기 추세치에서 벗어난 정도를 나타내는 동 비율의 갭은 금년 2/4분기까지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다가 3/4분기 들어 가계신용의 큰 폭 증가로 인해 플러스(+0.3%포인트)로 전환되었다.

부문별로는 신용 레버리지가 상반된 움직임을 보였다. 가계신용의 명목GDP 대비 갭은 2015년 2/4분기 이후 플러스(+)를 지속해 온 반면 기업신용 갭은 2013년 4/4분기 이후 마이너스(-)를 보이면서 그 폭이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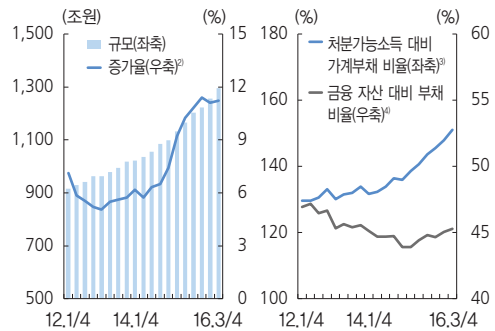
주: 1) 해당 분기 및 직전 3분기 계절조정 명목GDP의 합
 2) 민간신용/명목GDP 비율과 장기추세치와의 차이
 3) 2016년 3/4분기는 추정치
 자료: 한국은행

② 가계신용이 큰 폭 증가하면서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높아졌으나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은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기회복 지연 가능성, 금리 상승압력 등으로 취약가계를 중심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될 소지가 있다.

가계부채(가계신용통계 기준)는 2016년 3/4분기말 현재 1,295.8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2% 증가하였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1.1%로 지난해말 대비 7.4%포인트 상승하였다.

그러나 금융부채와 함께 금융자산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가계의 금융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2016년 3/4분기말 45.3%로 예년 평균(2010~15년 45.9%)을 유지하였다. 한편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중이 높아지고 대출의 평균 잔존만기가 장기화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도 개선되었다.

가계부채¹⁾ 관련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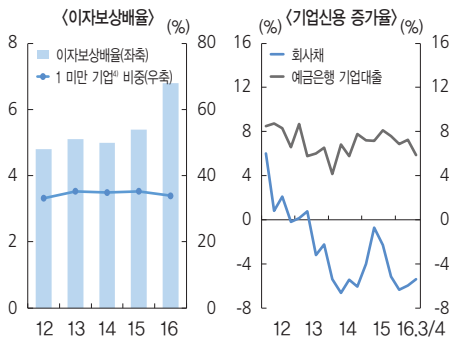
주: 1) 가계신용통계 기준 2) 전년동기대비
 3) 2016년 1/4~3/4분기 처분가능소득은 국민총소득 대비 가계처분가능소득 비율(직전 3개년 평균)을 이용하여 추정
 4) 자금순환통계 기준이며 2016년 3/4분기는 추정치
 자료: 한국은행

③ 기업신용은 업황부진 지속,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신용경계감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저금리·저유가, 경영합리화 노력 등에 힘입어 개선되었다. 앞으로 업황부진이 장기화되고 이로 인해 기업신용 증가세가 더욱 둔화될 경우 기업의 경영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금은행의 기업대출은 2016년 3/4분기말 현재 전년동기대비 5.9% 증가에 그쳐 4분기 연속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회사채시장에서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의 순상환 기조가 계속 이어졌다.

신용증가세가 둔화된 데다 저금리·저유가 등으로 기업의 수익성이 제고되면서 이자지급 능력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2016년 상반기중 6.8로 2014년 이후 2년 연속 높아졌다. 다만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기업의 비중은 33.9%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기업 이자보상배율¹⁾²⁾, 회사채 발행잔액 및
예금은행 기업대출 증가율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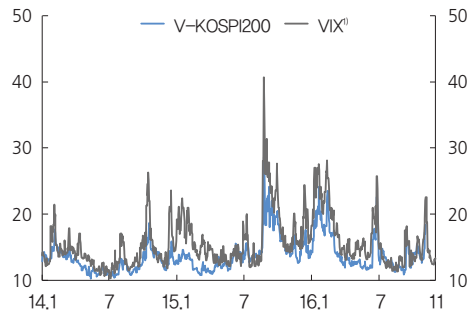
주: 1) 영업이익/이자비용 2) 상반기 기준
3) 전년동기대비 4) 영업손실기업 포함
자료: 한국은행, 은행 업무보고서, KIS-Value

II. 자산시장

① 주식시장에서는 주가가 일정 범위내에서 등락하였으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2016년 하반기에는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 및 미국 대선 결과, 미 연준의 금리인상 이슈 등이 주가 변동성 확대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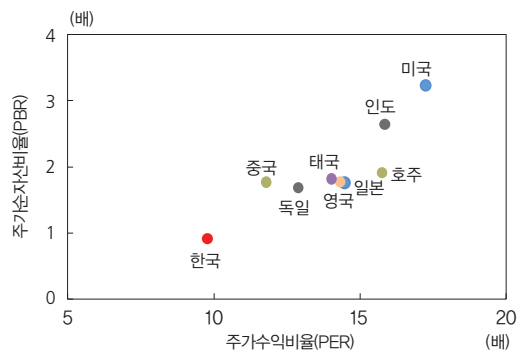
한편 기업의 수익성을 고려한 주가수익비율(PE)과 청산가치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은 2016년 11월말 현재 각각 9.8배 및 0.9배로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주가 변동성 지수



주: 1) S&P500 지수 옵션 가격으로부터 산출된 변동성지수
자료: Bloomberg

주요국의 PER¹⁾²⁾ 및 PBR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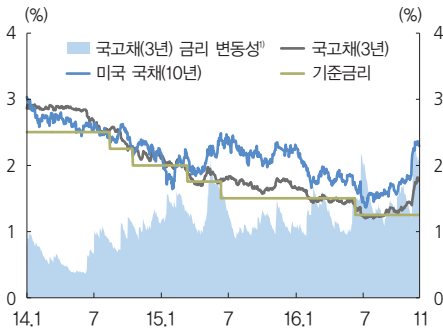


주: 1) MSCI 기준
2) 2016년 11월말 기준
자료: Bloomberg, Thomson Reuters

② 장기시장금리는 2016년 11월 들어 상당폭 상승하였으며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는 9월 하순 이후 크게 확대되었다.

국고채(3년)금리는 2016년 7월 사상 최저 수준(1.20% 내외)으로 낮아졌으나 8월 하순 이후 미 연준의 금리인상 이슈, ECB 및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완화 기대 약화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특히 미국 대선 이후의 미 국채금리 상승에 동조하면서 11월 하순에는 연중 최고 수준인 1.8% 내외로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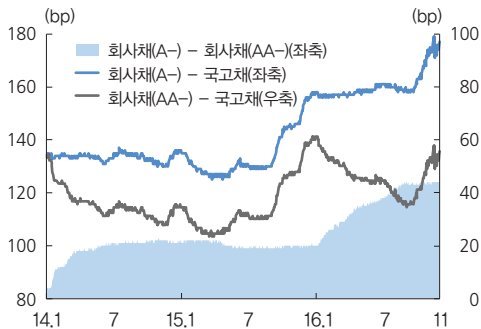
기준금리, 국고채 및 미국 국채 금리



주: 1) 지수가중이동평균(EWMA)에 의해 일별 변동성 산출
자료: 금융투자협회, Bloomberg

회사채시장에서는 2016년 9월 하순 이후 금리 변동성 증대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우량물과 비우량물 모두 신용스프레드가 크게 확대되었다.

회사채 신용스프레드¹⁾ 및 신용등급 간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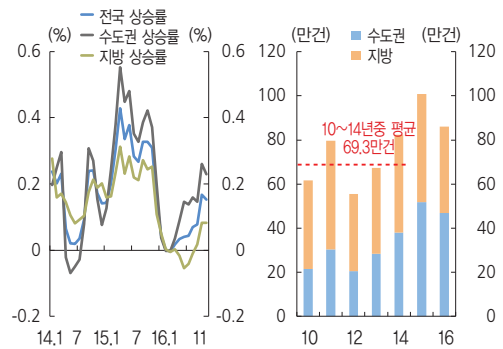


주: 1) 3년물 기준
자료: 금융투자협회

③ 주택시장 가격 및 거래량은 2016년중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상업용부동산시장은 양호한 수익률을 바탕으로 거래량이 증가하였으나 오피스를 중심으로 공실률이 높아졌다.

기존주택시장의 매매가격은 2016년 1~11월 중 0.6% 상승하여 전년동기의 상승폭(+3.4%)을 하회하였다. 주택매매거래 규모도 1~10월 중 86.2만건으로 예년 평균(2010~14년 1~10월 중 69.3만건)을 웃돌았으나 전년 동기(100.8만건)에 비해서는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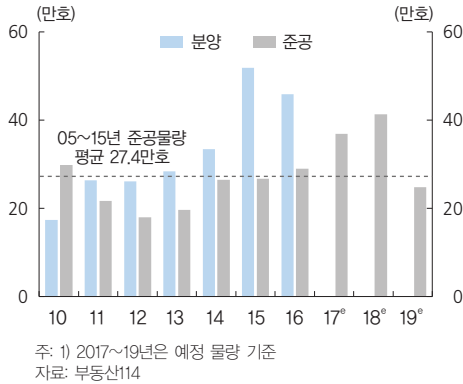
주택매매 가격 상승률¹⁾ 및 거래량²⁾



주: 1) 전월대비 2) 1~10월중 기준
자료: 한국감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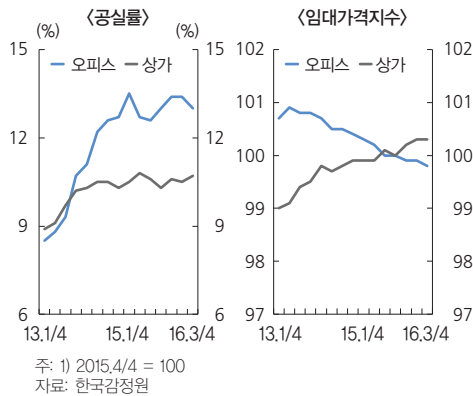
주택분양시장에서는 2016년중 45.8만호(12월 분양 예정물량 포함)의 아파트가 공급되어 지난해(51.8만호)에 이어 예년 평균(2010~14년 26.3만호)을 크게 웃돌았다. 2016년 11월말 기준 세대수 대비 아파트 준공예정 물량(2017~18년) 비율을 보면 경기, 경남, 충남 등이 전국 평균(3.7%)을 상당폭 상회하였다.

아파트 분양 및 준공물량¹⁾



한편 상업용부동산 중 상가의 경우는 꾸준한 임차수요 등으로 공실률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임대료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오피스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임차수요 위축 등으로 공실률이 상승하고 임대료가 하락세를 나타내었다.

상업용부동산 공실률 및 임대가격지수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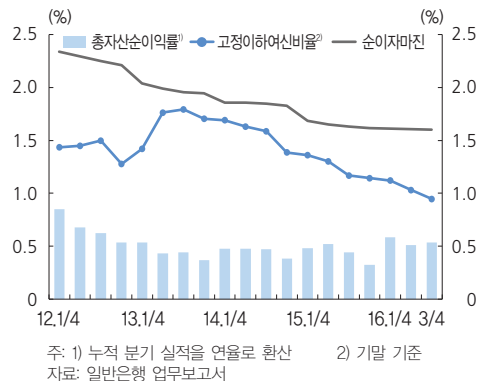
III. 금융기관

① 일반은행은 자산건전성이 개선되고 수익성도 소폭 회복되는 등 경영건전성이 전반적으로 제고되었다. 다만 기업의 업황부진 지속, 시장 금리 상승세 등이 차주의 신용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일반은행의 총자산은 2016년 3/4분기말 현재 1,444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9% 증가하였다. 자산건전성은 기업여신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 노력 등으로 개선 추세를 이어갔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16년 3/4분기말 현재 0.95%로 전년말 대비 0.20%포인트 하락하였다.

수익성은 2016년 들어 신규 부실채권 감소에 따른 대손비용 축소, 가계대출 취급 확대에 따른 이자이익 증가 등으로 소폭 회복되었다. 일반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2016년 1/4~3/4분기중 0.53%(연율 환산)로 지난해보다 0.21%포인트 상승하였다.

일반은행 자산건전성 및 수익성 지표



②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자산규모가 확대된 가운데 자산건전성 등 경영건전성이 대체로 개선되었다. 다만 일부 업권에서는 수익률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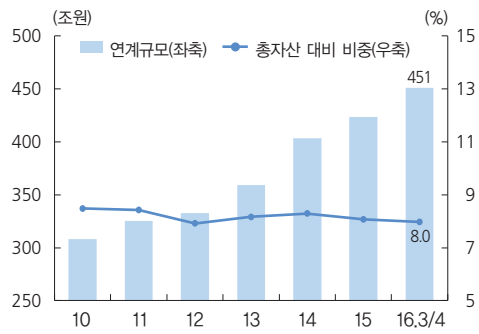
현상이 강화되면서 위험자산 운용을 확대하고 있어 향후 관련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비은행금융기관의 총자산은 2016년 3/4분기말 현재 2,242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6% 증가하였다. 전체 금융권(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총자산에서 비은행금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말 45.9%에서 2016년 3/4분기말에는 46.3%로 0.4%포인트 상승하였다.

자산건전성은 저금리에 따른 차주의 채무상환부담 완화,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노력 등으로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이 하락하는 등 개선세가 이어졌다. 수익성은 2016년 들어 저축은행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낮아졌다. 특히 증권회사는 금리의 추가 하락이 제한된 데 따른 채권 매각 및 평가 이익 축소 등으로 총자산 순이익률(ROA)이 상당폭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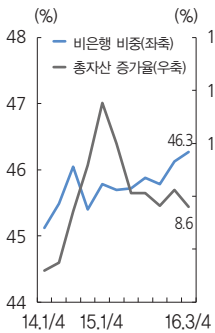
2016년 3/4분기말 현재 451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8%(+36조원) 증가하였다. 부문별로는 은행간(전년동기대비 +2조원)보다는 비은행간(+11조원) 및 은행·비은행 간(+24조원) 연계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다만 금융권 총자산 중 상호연계 규모의 비중은 2016년 3/4분기말 8.0%로 2010년 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금융업권 간 자산·부채 상호연계 규모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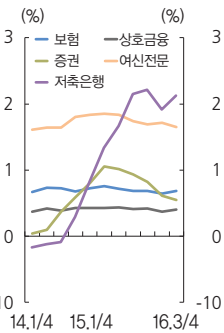


주: 1) 금융채, RP, CD, CP 등 시장성 금융상품을 통한 금융기관 간 조달금액 합계
2) 기말 기준
자료: 금융회사 업무보고서, 예탁결제원 자료, 자금순환통계 등을 활용하여 추정

비은행금융기관 총자산 비중¹⁾ 및 증가율²⁾



비은행금융기관 총자산순이익률(ROA)³⁾



주: 1) 전체 금융기관 자산 대비 2) 전년동기대비
3) 과거 1년간 당기순이익/총자산 평잔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 금융기관 간 자산·부채 상호연계 규모는 다소 확대되었으나 금융권 총자산 중 연계규모 비중은 지난해말 수준을 유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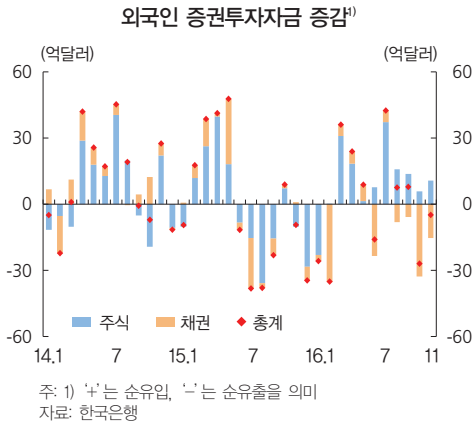
금융기관 간 자산·부채 상호연계 규모는

IV. 자본유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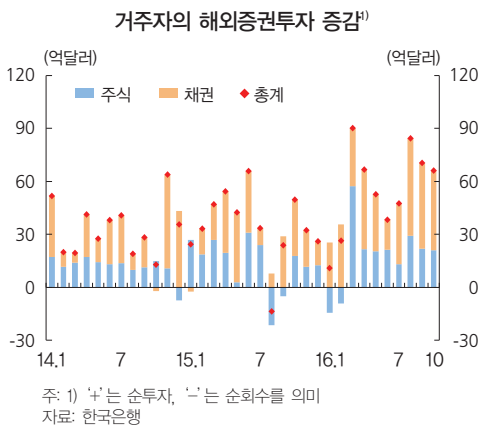
2016년 들어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등으로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은 예년 수준의 변동성을 지속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경상수지 흑자 지속, 상당한 규모의 외환보유액, 높은 국가신인도 등 우리 경제의 양호한 기초여건이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급격한 유출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2016년 6월중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를 전후하여 순유출되었다가 7월 들어 미 연준의 금리인상 기대가 약화되면

서 주식자금을 중심으로 대규모 순유입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10월 이후에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 이슈 부각, 미국 신 행정부의 경제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다시 순유출로 전환되었다.



한편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는 저금리 기조,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등을 배경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해외증권투자는 국민연금, 보험회사 등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투자대상으로는 선진국의 우량채권 및 주식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편 해외증권투자의 경우 가격변동 리스크뿐만 아니라 환율변동 리스크에도 노출되어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복원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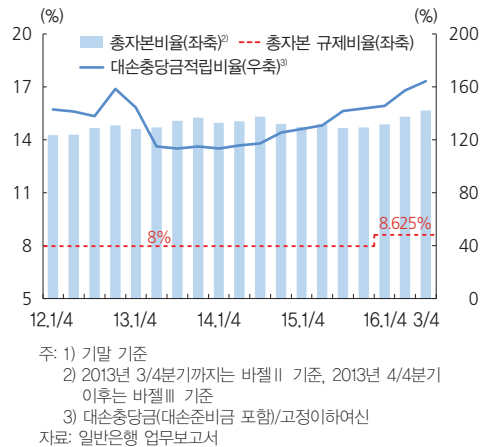
1. 금융기관

① 일반은행의 경우 대손충당금적립비율, 자기 자본비율 등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등 복원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급격한 자금유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일반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및 외화유동성비율은 2016년 9월말 현재 각각 106.2% 및 105.8%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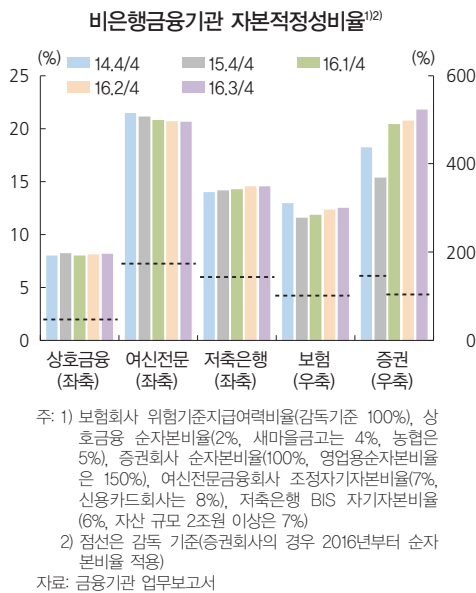
예상손실에 대한 흡수능력을 나타내는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2016년 3/4분기말 현재 164.2%로 전년말 대비 20.5%포인트 상승하였다. 한편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응한 충격흡수능력을 보여주는 바젤Ⅲ 기준 총자본비율도 15.64%로 전년말 대비 0.95%포인트 상승하였다.

일반은행의 손실흡수능력 지표¹⁾



② 비은행금융기관의 복원력은 대부분의 업권에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다만 일부 업권에서 수익성 제고를 위해 위험자산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복원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비은행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 비율은 모든 업권에서 감독기준을 크게 상회하였다. 2016년 3/4분기말 현재 생명보험회사의 위험기준 지급여력비율(RBC비율)은 300.5%이며 모든 보험사들이 규제비율(100%)을 웃돌았다. 여타 업권의 자본적정성 지표도 대부분 규제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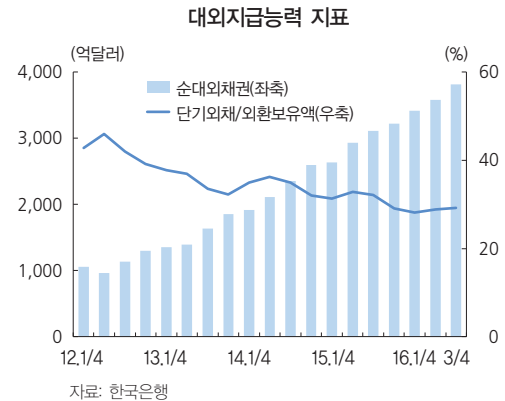


II. 대외지급능력

대외지급능력을 보면 순대외채권과 외환보유액이 증가 기조를 이어가고 단기외채 비율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우리나라의 순대외채권(대외채권 - 대외채무)은 2016년 3/4분기말 현재 3,835억달러로

전년말 대비 613억달러 증가하였으며, 외환보유액은 금년 11월말 3,720억달러로 1~11월중 40.3억달러 늘어났다.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2016년 3/4분기말 현재 29.6%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III. 금융시장인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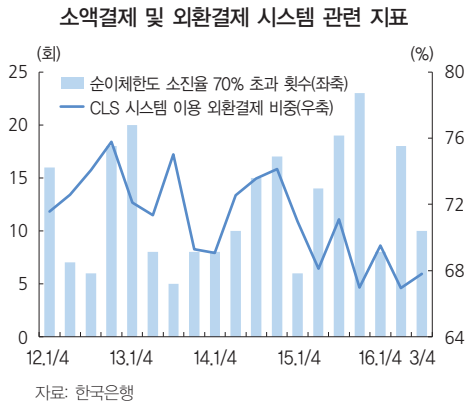
한은금융망 등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은 결제 리스크가 줄어드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 앞으로 핀테크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지급결제 수단이 더욱 복잡·다양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거액결제시스템인 한은금융망을 통한 결제 중 마감시간대(16:00~17:30) 결제금액 비중 및 자금이체지시 대기비율은 2016년 1/4~3/4 분기중 평균 61.3%, 4.1%를 각각 기록하여 전년동기대비 1.3%포인트, 0.4%포인트 하락하였다. 아울러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결제유동성 확보수준을 나타내는 일중당좌대출한도 최대소진율도 하락하였다.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의 경우 차액결제 참가기관들의 순이체한도 소진

율이 주의 수준(70%)을 초과한 횟수가 2016년 1/4~3/4분기중 총 36회로 전년동기(39회)에 비해 소폭 줄어들었다.

한편 외환결제시스템을 통한 외환결제 중 CLS 외환동시결제의 비중은 2016년 6월 브렉 시트 투표 결과의 충격 등으로 주요 CLS 대상 통화인 달러 거래가 감소함에 따라 2016년 1/4분기 69.5%에서 3/4분기 67.8%로 소폭 하락하였다.



참고 1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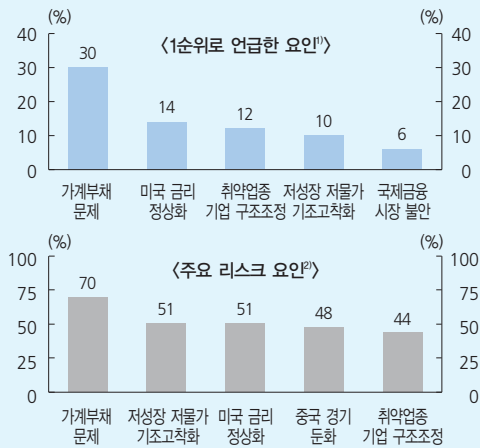
국내외 금융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리스크 요인으로 가계부채 문제, 미국의 금리 정상화, 취약업종 기업 구조조정, 저성장·저물가 기조 고착화 등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별로 지적한 5개 리스크 요인²⁾ 중 1순위로 언급된 응답비율을 보면 가계부채 문제(30%), 미국의 금리 정상화(14%), 취약업종 기업 구조조정(12%) 등이 높게 조사되었다. 한편 응답자들이 지적한 5개 리스크 요인을 단순집계하여 응답빈도 순으로 보면 가계부채 문제, 저성장·저물가 기조 고착화, 미국의 금리 정상화, 중국의 경기둔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리스크의 발생 가능 시계를 보면 미국의 금리 정상화는 단기(1년 이내)에, 저성장·저물가 기조 고착화 및 중국 경기둔화는 중·단기(3년 이내)에, 가계부채 문제는 중기(1~3년 사이)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리스크로 인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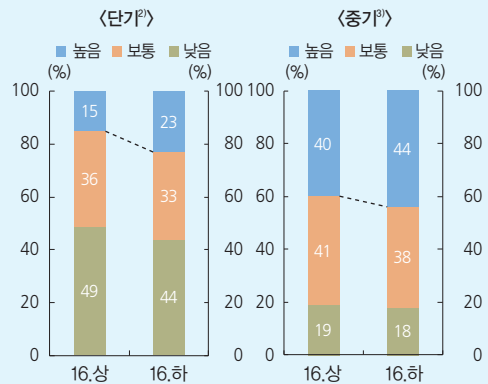
한편 '단기(1년 이내)에 금융시스템에 리스크가 현재화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낮다'의 응답 비중이 44%로 '높다'(23%)를 크게 상회하였다. 반면 '중기(1~3년 사이)에 걸쳐 현재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다'의 응답 비중(44%)이 '낮다'(18%)보다 더 높았다. 한편 '단기와 중기에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지난 상반기 조사시점(4월)보다 좀 더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리스크 요인



주: 1) 응답자들이 1순위로 지적한 리스크 요인의 전체 응답자수 대비 비중
 2) 응답자별로 지적한 5개 리스크 요인을 단순집계한 응답 빈도수를 전체 응답자수로 나누어 산출한 비중
 자료: 한국은행

리스크 발생 가능성¹⁾



주: 1) 2016년 상반기 및 하반기 서베이의 응답 비중
 2) 1년 이내 3) 1년~3년 사이
 자료: 한국은행

1) 한국은행은 금융시스템에 잠재된 리스크 요인을 다양한 방식으로 식별하기 위해 국내외 금융전문가를 대상으로 시스템 리스크(systemic risk) 서베이를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금년 9월 27일 ~ 10월 6일 기간중 78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서베이를 실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보도자료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2016.11.4)를 참조하기 바란다.
 2) 5개 리스크 요인을 중요도 순으로 선별하도록 한 복수응답 기준이다.

참고 2

우리 금융시스템을 둘러싼 주요 대외 여건 변화

2017년 이후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대외 여건의 변화로는 ① 미국의 신 행정부 출범, ② 영국의 EU 탈퇴(이하 브렉시트) 협상 경과, ③ 중국의 신용 급증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국가의 정치·경제적 여건 변화는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의 흐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우리 경제가 유의하여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

(미국의 신 행정부 출범)

미국의 신 행정부는 주요 경제정책에 있어 오바마 행정부와 차별화된 변화를 추구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정책을 어떻게 펼쳐 나갈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표면화된 트럼프 당선자의 향후 경제정책 방향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 및 감세, 보호무역 강화 등의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추진할 경우 자국 경제에는 일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미국의 재정수지 악화, 글로벌 교역 위축 등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무역협정 재검토 등의 과정에서 미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높은 신흥시장국의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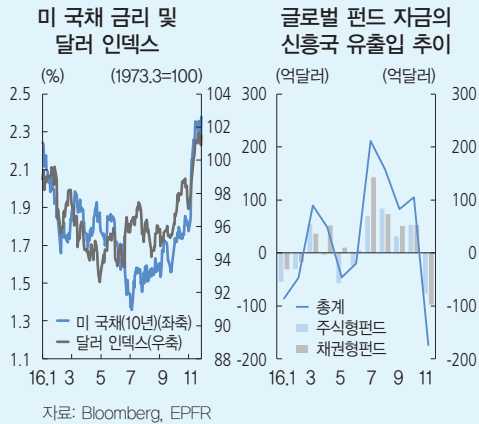
통화·금융정책에 있어서는 도드-프랭크법 개편 등 금융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연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려는 의도도 보이고 있다. 금융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경우 자국 내 은행, 보험 등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개선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것이 글로벌 금융규제 환경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의 주요 경제공약 내용¹⁾

정책 분야	주요 내용
재정·통상	- 인프라 투자, 소득세·법인세 폐지 - TPP 철회, FTA 재협상 - 주요국 환율정책 감시 강화 등
통화·금융	- 도드-프랭크 법안 폐지 등 규제완화 - 미 회계감사원의 연준에 대한 감사
산업·고용	- 기후협약 거부, 화석연료 산업활성화 등 - 제조업 경쟁력 강화 - 강력한 이민 통제 등

주: 1) 트럼프 당선자의 주요 경제 관련 공약을 참고하여 정리

이와 같은 미국 신 행정부의 정책방향이 금융시장에 반영되면서 대통령 선거(2016.11.8) 직후 미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 투자자금이 신흥시장국에서 유출되는 등 신흥시장국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앞으로도 미국 신 행정부의 정책방향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브렉시트 협상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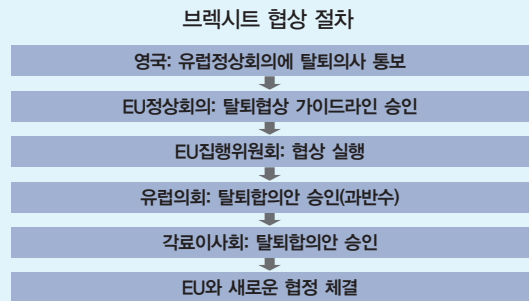
브렉시트 투표(2016.6.23) 이후 정치적 안정 회복, 영란은행의 적극적인 정책대응 등으로 영국 경제는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으나 앞으로도 협상경과에 따른 불확실성은 상존하고 있다.¹⁾

메이 총리가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른 공식적인 EU탈퇴 통보를 2017년 3월말까지 진행할 것으로 발표하였으나, 이민자 통제 등에서 EU와의 입장 차이로 협상개시가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국민투표 이후 영국의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EU 공동 시장에 대한 접근보다 이민자 통제 권한 회복을 중요시하는 입장(hard Brexit)이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국 고등법원이 브렉시트 절차를 개시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

(2016.11.3)하면서 독자적인 이민정책보다는 EU와 공동시장 지위를 적절히 유지하는 전략 (soft Brexit)으로 바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프랑스, 독일 등 유로지역 국가들 사이에서도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에 대한 견해가 달라 이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영국과 유로지역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이 위축되는 방향으로 브렉시트 협상이 진행될 경우 이들 지역의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확대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중국의 신용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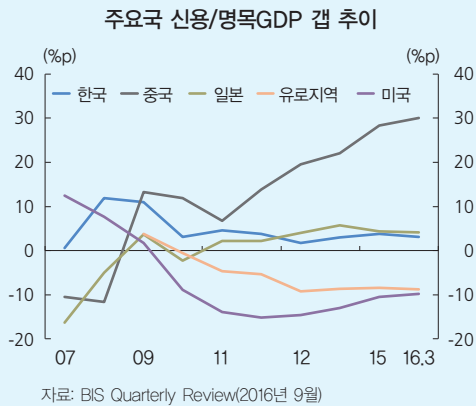
2016년 3월말 기준 중국의 명목GDP 대비 신용비율 갭이 30.1%포인트로 급등하여 BIS 경보단계 기준(10%포인트)을 크게 상회하는 등 신용리스크에 대한 우려²⁾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민간 부채규모 급증은 정부의 경기진작을 위한

1) 영란은행은 향후 통상관계 협상에서의 불확실성 지속, 영국 기업의 EU시장 접근 제한 가능성 등으로 성장세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 IMF는 중국 기업부채의 위험성과 포괄적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2016년 8월)하였으며, BIS도 중국의 신용 갭이 조사대상 43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점을 지적(2016년 9월)하였다.

기업의 투자자금 차입 확대³⁾, 주택가격 상승 등 부동산 경기과열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급격한 신용 확대가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제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의 수익성, 자본적정성 등을 감안할 때 부실충격을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⁴⁾, 주택구매 및 대출 제한 등 규제강화가 지속되면서 부동산 경기과열도 다소 진정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다만 향후 국제금융시장 불안, 미국 신 행정부의 보호무역 강화에 따른 글로벌 교역 위축 등과 맞물려 신용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신흥시장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기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시장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3) 중국은 주식 및 회사채 발행을 위한 금융시장 여건이 성숙하지 못해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다(2016년 상반기 중 중국 기업의 자금조달비중: 대출 65.7%, 회사채 25.6%, 주식발행 8.7%).

4) 중국인민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16년 6월)에 따르면 자산규모 5천억위안 이상인 31개 주요 은행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무수익여신 비율이 100%(300%) 상승하는 경우 자기자본비율은 13.3%에서 12.8%(11.7%)로 0.5%포인트(1.6%포인트) 하락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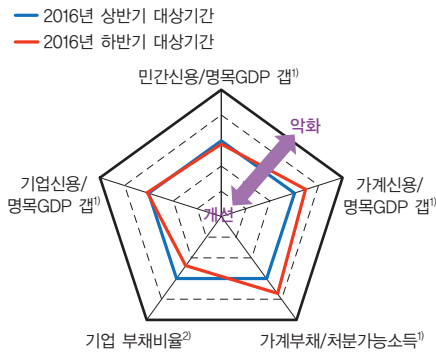
금융안정 상황

I. 신용시장	19
II. 자산시장	37
III. 금융기관	47
IV. 자본유출입	63

I. 신용시장

민간신용/명목GDP 비율 및 갭으로 살펴본 민간부문 전체의 레버리지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¹⁾ 다만 가계부문의 신용증가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기업부문의 신용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가계의 신용증가세 지속으로 부채상환부담이 높아진 반면 기업의 부채비율은 하락세를 이어갔다(그림 I-1).

<그림 I-1> 신용시장 상황 변화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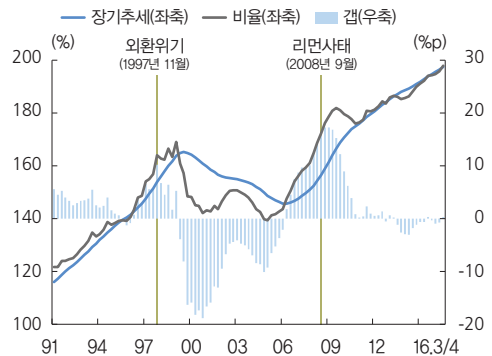
주: 1) 2016년 1/4분기말 대비 2016년 3/4분기말의 변화 정도를 지수화
 2) 2015년말 대비 2016년 6월말의 변화 정도를 지수화
 자료: 한국은행

1. 신용 레버리지

민간신용/명목GDP 갭은 소폭의 플러스로 전환

민간부문의 레버리지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민간신용²⁾/명목GDP 비율³⁾은 가계 신용 급증의 영향으로 2015년말 194.4%에서 2016년 3/4분기말 197.8%(추정치)로 높아졌다. 민간신용/명목GDP 비율이 장기 추세치에서 벗어난 정도를 나타내는 동 비율의 갭⁴⁾은 2015년말부터 2016년 2/4분기까지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다가 3/4분기 들어 가계신용의 큰 폭 증가로 인해 플러스(+0.3%포인트)로 전환되었다(그림 I-2).

<그림 I-2> 민간신용¹⁾/명목GDP²⁾ 비율 및 갭³⁾



주: 1) 2016년 3/4분기는 추정치
 2) 해당 분기 및 직전 3분기 계절조정 명목GDP의 합
 3) 민간신용/명목GDP 비율과 장기 추세치와의 차이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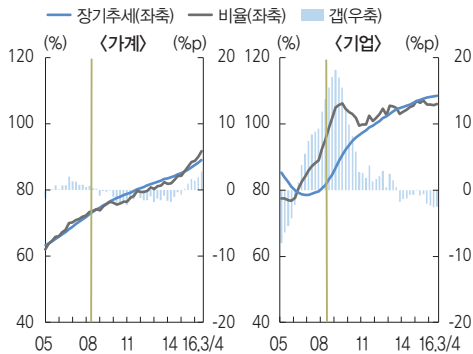
1) 민간부문의 레버리지 수준 평가 시 민간신용 부문별 증가율, 가계 및 기업의 채무상환 부담, 주택가격 수준, 은행 레버리지 등 다양한 금융·실물지표가 활용되고 있다. 여기서는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이하 BCBS, 2010)가 권고한 글로벌 공통 참고지표(common reference guide)인 민간신용/명목GDP 비율 및 갭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2) BCBS(2010)는 신용을 '가계 및 비금융기업에 공급하는 모든 형태의 채무(debt funds)'로 넓게 정의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민간신용 지표는 자금순환표상 가계(대출금, 정부융자) 및 기업(대출금, 채권, 정부융자) 부채의 합을 이용하였다.
 3) 민간신용/명목GDP는 금융심화 등에 따라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동 비율이 추세로부터 벗어난 정도를 나타내는 민간신용/명목GDP 갭이 시계열 차원의 시스템 리스크 측정을 위한 공통지표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4) BCBS(2010)는 HP필터 방식(one-sided)에 따른 장기 추세치 산출시 평활모수를 400,000으로 권고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금융 사이클이 OECD 주요국보다 짧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보다 작은 평활모수(25,000)를 이용하였다. 장기추세치는 평활성(smoothness)을 추정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용/명목GDP 갭 차이도 발생한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 및 기업 신용의 상반된 움직임이 최근 들어 더욱 뚜렷해졌다. 2016년 3/4분기말 현재 가계부문의 신용/명목GDP 비율은 91.8%로 2015년말 대비 3.4%포인트 상승하였으나 기업부문의 동 비율은 106.0%로 2015년말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한편 가계신용/명목GDP 갭을 보면 2016년 3/4분기말 +2.8%포인트로 2015년 2/4분기 이후 6분기 연속 플러스(+) 갭을 나타내었다. 이에 비해 기업신용/명목GDP 갭은 -2.5%포인트로 2013년 4/4분기 이후 마이너스(-) 갭을 보이면서 최근 그 폭이 확대되었다(그림 I-3).

민간신용 증가율은 장기 추세치를 소폭 상회

민간신용 자체의 증가속도를 살펴보면 2016년 3/4분기말 현재 전년동기대비 6.8% 늘어나 2015년초부터 7% 내외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이는 업황부진 지속, 기업 구조조정 본격화 등으로 기업신용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데 반해 가계신용은 높은 증가율을 지속한 데 기인한다. 가계신용은 2016년 들어서도 아파트 분양호조로 인한 은행권 집단대출 취급 확대와 수신 증가에 따른 비은행권의 대출영업 강화 등으로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그림 I-3〉 부문별 신용¹⁾/명목GDP²⁾ 비율 및 갭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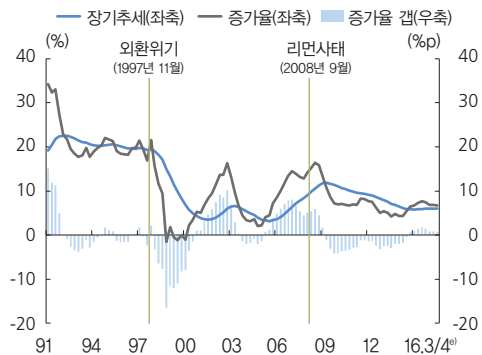
주: 1) 2016년 3/4분기는 추정치
 2) 해당 분기 및 직전 3분기 계절조정 명목GDP의 합
 3) 신용/명목GDP 비율과 장기 추세치와의 차이
 자료: 한국은행

한편 민간신용 증가율과 동 증가율의 장기 추세치와의 갭⁶⁾은 2016년 3/4분기말 현재 +0.8%포인트로 8분기 연속 플러스를 유지하였다(그림 I-4). 이는 가계부문 신용증가율이 추세치를 9분기 연속 상회하면서 높은 수준의 플러스 갭(+3.1%포인트)을 나타낸 데 주로 기인하였다. 기업부문은 신용증가율이 축소되어 2015년 4/4분기 이후 4분기 연속 마이너스 갭(-1.0%포인트)을 보였다(그림 I-5).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간신용/명목GDP 비율⁵⁾이 장기 추세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은 가계 및 기업의 신용/명목GDP 비율이 각각 상승 및 하락하는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면서 서로 상쇄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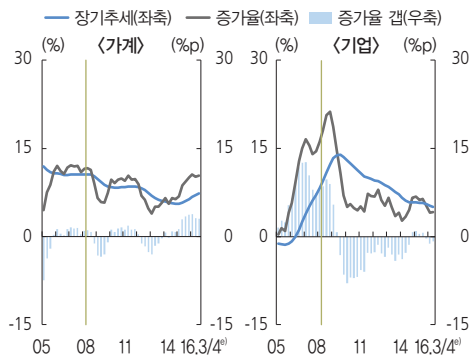
5) 현재 우리나라 민간신용의 순환국면은 측정지표에 따라 제4순환기(민간신용/명목GDP) 또는 제5순환기(민간신용)의 확장기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BCBS(2010)의 추정방식을 준용할 경우 민간신용/명목GDP 갭 수준이 보다 높게 나타난다. 순환국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번 금융안정보고서(금융안정 현안 분석) 「1. 최근 금융 및 실물 사이클 변화와 시사점」(91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6) 신용/명목GDP 갭과 동일한 방식으로 민간신용 및 부문별 증가율의 갭을 추정하였다.

〈그림 1-4〉 민간신용 증가율¹⁾ 및 갭²⁾



주: 1) 전년동기대비, 2016년 3/4분기는 추정치
 2) 신용증가율(전년동기대비)과 장기 추세치와의 차이
 자료: 한국은행

〈그림 1-5〉 부문별 신용 증가율¹⁾ 및 갭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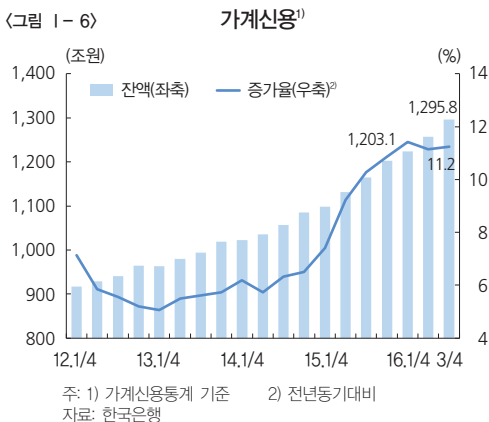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2016년 3/4분기는 추정치
 2) 부문별 신용증가율(전년동기대비)과 장기 추세치와의 차이
 자료: 한국은행

2. 가계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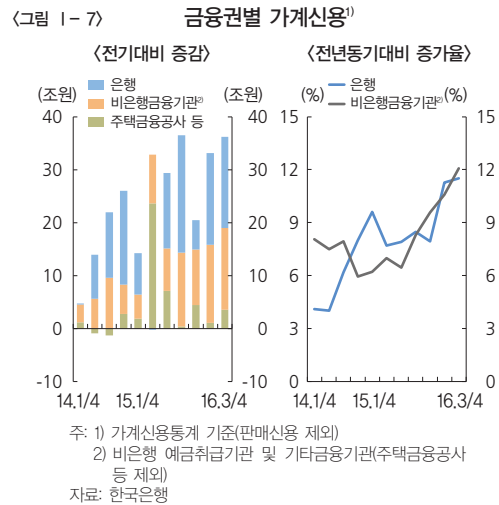
2016년중에도 가계신용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가계의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높아졌으나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은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기회복 지연 가능성, 금리 상승압력 등으로 취약가계를 중심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될 소지가 있다.⁷⁾

가계신용 높은 증가세 지속

가계부채(가계신용통계 기준)는 2016년 3/4분기말 현재 1,295.8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2% 늘어나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⁸⁾ 이는 2015년 이후 이어진 분양시장 호조의 영향으로 은행 집단대출이 견조하게 증가한 가운데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신용도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된 데 주로 기인하였다(그림 I-6).



금융권별로 보면 은행의 가계신용은 2016년 3/4분기말 603.9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5% 늘어나 2분기 연속 10%를 상회하는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비은행금융기관⁹⁾의 가계신용도 2016년 3/4분기말 507.3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1% 늘어나면서 지난해 이후 증가세가 빠르게 확대되었다(그림 I-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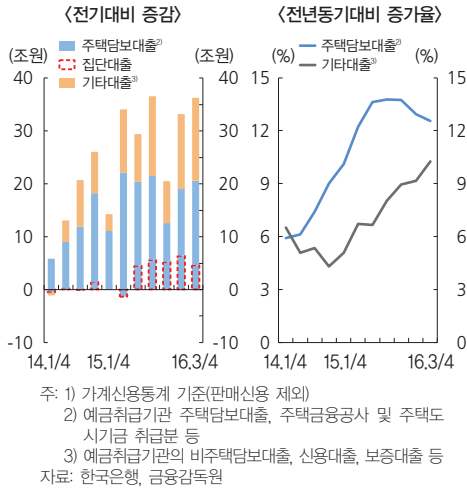
대출종류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2016년 3/4분기말 661.0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5% 늘어나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여성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및 기존주택거래 둔화 등으로 취급액이 소폭 줄어들었으나 집단대출은 아파트 분양시장 호조로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였다.¹⁰⁾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기타대출도 2016년 3/4분기말 전년동기대비 10.3% 늘어나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이는 저금리 하에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양호한 상업용부동산 투자자금 차입수요가 늘어난 데다 수신 호조에 따른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 확대 노력 등에 기인한다(그림 I-8).

7) 최근의 시장금리 상승과 관련하여 취약가계의 채무상환부담 증대 가능성은 〈참고 3〉 「금리에 민감한 변동금리 가계대출 및 취약차주 현황」(26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8) 금액 기준으로는 2016년 1~9월중 92.7조원 증가하여 전년동기중 증가규모(79.6조원)를 상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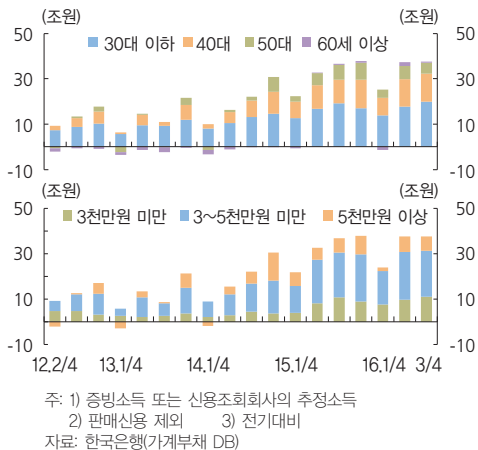
9) 상호금융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과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기타금융기관(주택금융공사 등 공적금융기관 제외)을 포함한다.

〈그림 I-8〉 대출종류별 가계신용¹⁾



한편 차주특성별로는 2016년 1~9월중 주로 30~40대, 소득구간 3~5천만원¹¹⁾인 중소득 차주의 가계신용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이들 계층의 주택마련을 위한 대출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월세 등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생활비 조달 등을 위한 대출도 꾸준히 늘어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I-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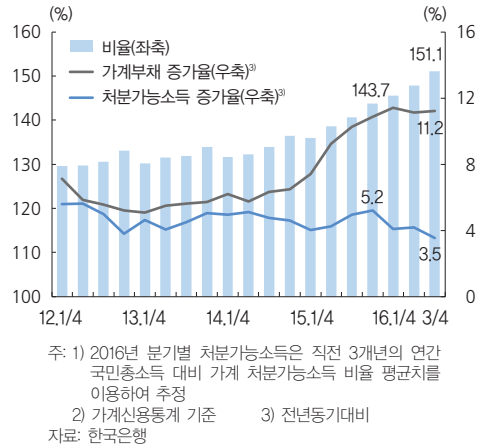
〈그림 I-9〉 차주 연령대 및 소득¹⁾구간별 가계신용²⁾ 증감³⁾



가계의 채무부담이 늘어나고 있으나 부채상환능력은 대체로 양호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가계신용통계 기준)은 2016년 3/4분기말 현재 151.1%로 지난해말(143.7%) 대비 7.4%포인트 상승하여 가계의 부채상환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들어 가계부채 증가율이 추가로 높아지지 않은 가운데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2015년 4/4분기 5.2%에서 2016년 3/4분기에는 3.5%로 낮아진 데 기인한다(그림 I-10).

〈그림 I-10〉 처분가능소득¹⁾ 대비 가계부채²⁾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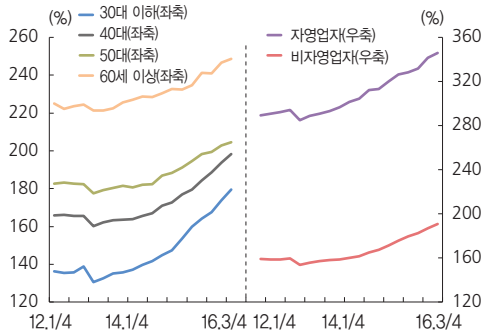


차주 특성별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LTI)은 2016년 3/4분기말 현재 모든 연령대에서 전년말 대비 상승한 가운데 30대 이하의 상승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0대의 경우 전세의 매매 전환, 전세자금 마련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크게 늘어난 데 기인한

10) 정책당국은 빠르게 늘어나는 집담대출 관련 리스크를 관리할 목적으로 8.25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중도금대출 보증비율이 축소(100 → 90%, 2016년 10월 시행)된 데 이어, 잔금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2017년 1월 시행 예정) 등이 추가되었다.
 11) 2016년 9월말 현재 가계대출 차주 중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이상 차주 수 비중은 17.8%, 3천만원 미만 차주 수 비중은 35.0%이다.

것으로 추정된다.¹²⁾ 종사상 지위별로는 자영업자가 비자영업자 차주에 비해 LTI 비율이 높고 상층세 역시 가파른 것으로 파악되었다(그림 I-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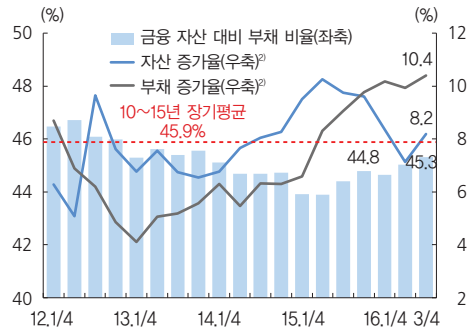
〈그림 I-11〉 차주 특성별 소득¹⁾ 대비 가계대출 비율



주: 1) 증빙소득 또는 신용조회회사의 소득 추정치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 DB)

가계의 금융 자산과 부채를 함께 고려한 부채상환능력을 살펴보면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2016년 3/4분기말 45.3%(추정치)로 전년말(44.8%)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 이는 금년 들어 가계의 금융 부채 증가율이 자산 증가율을 상회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동 비율은 예년 평균(2010~15년 45.9%) 수준으로 여전히 가계의 금융 자산이 부채의 2.2배 수준에 달한다는 점 등에서 부채상환능력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그림 I-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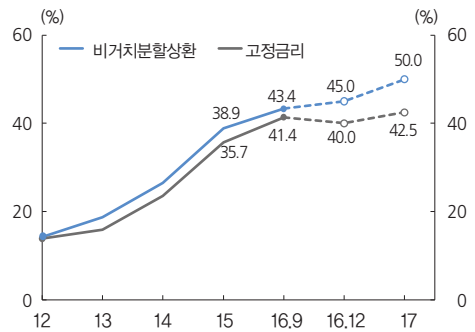
〈그림 I-12〉 금융 자산 대비 부채 비율¹⁾



주: 1) 2008 국민계정체계(SNA) 기준
2) 전년동기대비(2016년 3/4분기는 추정치)
자료: 한국은행

한편 정부·감독당국의 노력으로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비거치분할상환 대출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도 지속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 비중은 2015년말 각각 35.7% 및 38.9%에서 2016년 9월말에는 각각 41.4% 및 43.3%로 상승하였다.¹³⁾ 아울러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도 10년 이상 장기의 비중이 2012년말 46.3%에서 2016년 9월말 52.7%로 상승하는 등 장기화되었다(그림 I-13, I-14).

〈그림 I-13〉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비거치분할상환방식 비중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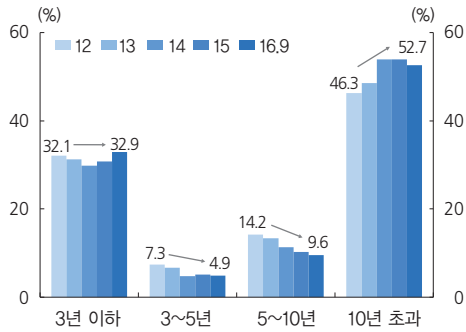


주: 1) 점선은 목표비중
자료: 금융감독원

12) 30대 차주의 경우, 2016년 3/4분기말 현재 가계대출 잔액의 43.7%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마련 용도인 것으로 파악되어 30대를 제외한 여타 연령대(33.4%)에 비해 주택관련 대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자료: 가계부채 DB).

13) 혼합형금리 은행 주택담보대출 현황은 〈참고 4〉「혼합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취급 현황 및 평가」(29쪽)를 참고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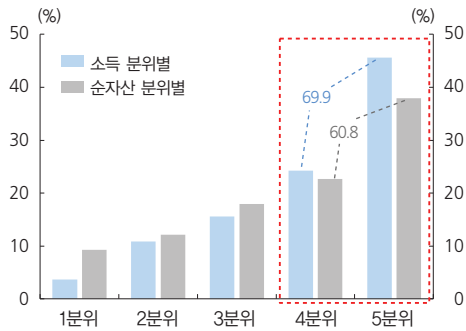
<그림 I-14>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구조¹⁾



주: 1) 기말 기준
자료: 국내은행 업무보고서

다음으로 2016년 12월 발표된 가계금융복지조사(2016년 3월말 기준)에 기초한 가계의 소득 및 순자산 분위별 금융부채 보유 분포를 살펴보면 부채상환능력이 비교적 양호한 4분위 및 5분위(상위 40%) 계층이 각각 전체 금융부채의 약 70% 및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15).

<그림 I-15> 소득·순자산 분위별 금융부채 분포¹⁾



주: 1) 2016년 12월 발표 가계금융복지조사(2016년 3월 기준)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참고 3

금리에 민감한 변동금리 가계대출 및 취약차주 현황

가계부채가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등으로 국내 시장금리도 함께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시장금리 상승은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가계의 이자상환 부담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 등의 차주는 금리 민감도가 높아 금리상승 시 여타 차주에 비해 더 큰 채무상환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다음에서는 「한국은행 가계부채 DB¹⁾」 등을 이용하여 금리민감도가 높은 변동금리 가계대출과 취약차주 현황을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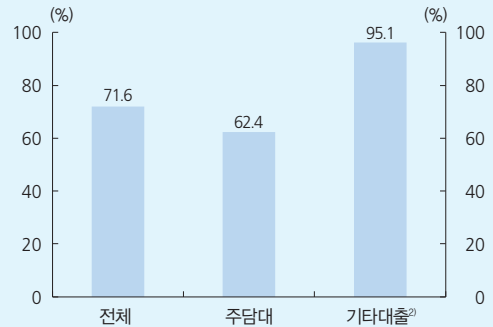
(변동금리 가계대출 비중)

금리상승이 가계대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자상환부담이 늘어나는 변동금리 대출 규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비은행권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비주택담보대출(이하 비주담대) 등 대부분의 가계대출에 대한 금리유형 정보가 제대로 관리·파악되고 있지 않아 은행권을 중심으로 변동금리 가계대출 비중을 살펴보았다.

2016년 3/4분기말 현재 국내은행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²⁾은 71.6%이며, 대출종류별로는 주담대³⁾(전체 은행 가계대출 중 약 71.8% 점유)는 62.4%, 기타대출(신용포함)은 95.1%로 나타났다. 한편 그간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이 은행의 주담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비은행 가계대출의 변동금리 비중은 은행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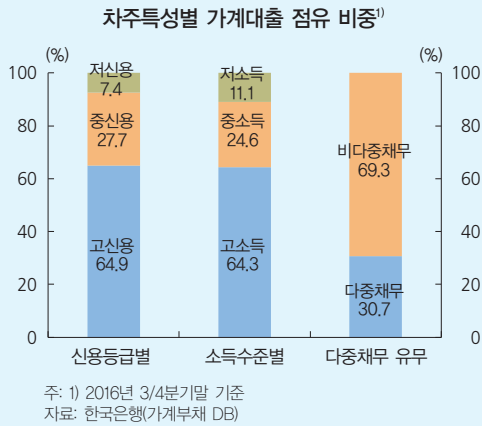
주: 1) 2016년 3/4분기말 기준
2) 주담대 이외 신용대출, 비주담대 등
자료: 국내은행 업무보고서

(금리민감도가 높은 취약차주 현황)

한편 2016년 3/4분기말 현재 가계대출의 차주특성별 비중을 보면 신용등급별⁴⁾로는 고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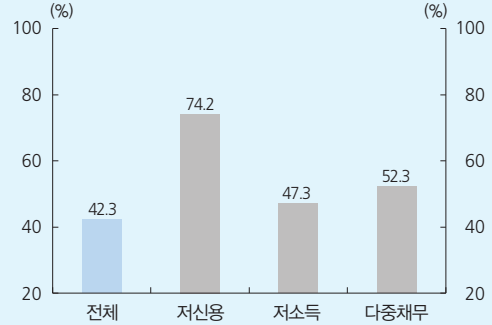
1) 한국은행 가계부채 DB는 신용조회회사(NICE 평가정보(주))로부터 입수한 약 100만명의 가계부채 관련 미시데이터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이다.
2) 금리상승 시 1년 이내에 이자상환 부담규모가 증가하는 대출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업무보고서에 고정·혼합형 금리 대출로 분류되어 있는 대출 중 잔존만기 1년 이내인 대출은 변동금리로 분류하였다. 다만 변동금리 대출 중 금리변경 주기가 1년 이상인 경우 성격상 고정금리로 간주하여야 하나 통계미비로 변동금리로 분류하였다.
3) 주택금융공사 양도분은 제외하였다.
4) 신용등급 1~3등급은 고신용, 4~6등급은 중신용, 7~10등급은 저신용으로 정의하였다.

이 64.9%, 중신용이 27.7%, 저신용이 7.4%를 차지하고 있다. 소득수준별⁵⁾로는 고소득이 64.3%, 중소득이 24.6%, 저소득이 11.1%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3개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대출비중은 30.7%에 이른다.



이들 차주 중에서 금리상승에 민감한 변동금리대출 보유 차주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미시자료의 부족 등으로 한계가 있다. 다만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변동금리 대출비중이 높은 비은행을 여타 차주보다 많이 이용하는 저신용(비은행대출 비중 74.2%, 전체 평균 42.3%), 저소득(47.3%), 다중채무(52.3%) 차주들은 금리상승에 민감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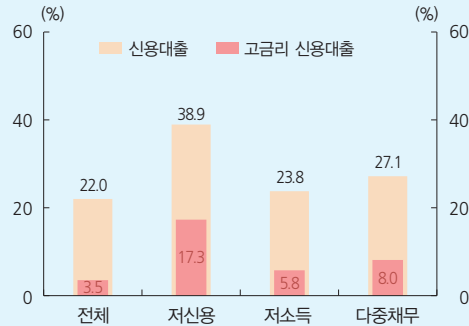
저신용, 저소득, 다중채무자의 가계대출 중 비은행대출 비중¹⁾



주: 1) 2016년 3/4분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 DB)

또한 이들 차주의 경우 가계대출 중 주로 변동금리로 취급되는 신용대출 점유비중이 각각 38.9%, 23.8%, 27.1%로 전체차주 평균(22.0%)보다 높은 상황이다. 특히 가계대출 중 고금리(연 15% 이상) 신용대출⁶⁾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차주 기준으로는 3.5%에 불과한 반면 저신용 차주는 17.3%, 저소득 차주는 5.8%, 다중채무자는 8.0%를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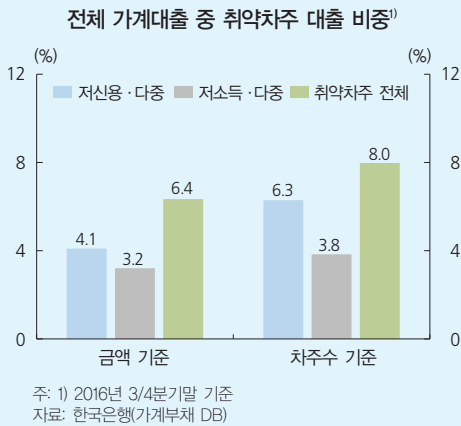
저신용, 저소득, 다중채무자의 신용대출 보유 비중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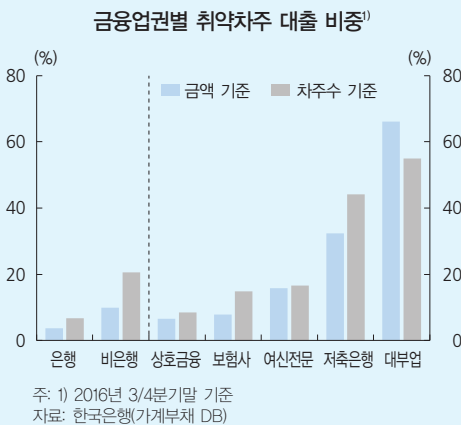
주: 1) 2016년 3/4분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 DB)

5) 소득 상위 30%는 고소득, 30~70%는 중소득, 하위 30%는 저소득으로 정의하였다.
6) 저축은행 신용대출, 여신전문금융회사 카드론, 대부업 대출로 정의하였다.

한편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 또는 저소득 차주를 취약차주⁷⁾로 정의할 경우 취약차주의 대출 비중은 2016년 3/4분기말 현재 전체 가계대출의 약 6.4%(차주 수 기준 8.0%)이며 대출규모는 약 78.6조원으로 추정된다.



금융업권별 취약차주의 대출비중(금액기준)을 보면 은행은 3.7%에 불과한 반면 비은행은 10.0%에 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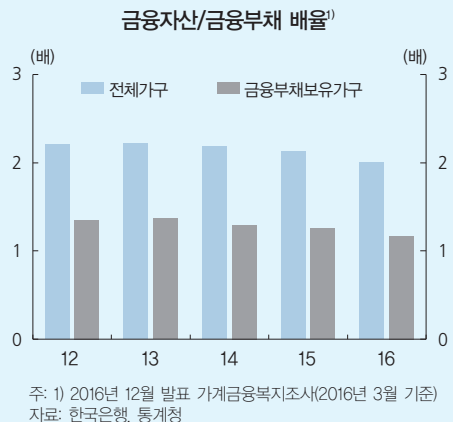
이는 금리변동 리스크에 취약한 차주가 비은행권에 더 많음을 시사한다. 특히 비은행 중에서

는 저축은행(32.3%), 여신전문금융회사(15.8%)의 취약차주 대출비중이 높아 앞으로 금리상승의 충격이 이들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은 여타 기관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점)

대출금리 상승은 상환능력이 부족하고 변동금리 대출을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저신용, 저소득, 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이자상환 부담을 증대시키고 관련 대출의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체 가계부채 중 취약차주 비중이 크지 않고, 그간 정부·감독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노력을 강화해온 점 등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대출금리 상승이 전체 가계부채 및 금융기관 전반의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경우 금융자산 규모가 금융부채를 상회하고 있어 금리상승 시 가계의 이자수지는 중장기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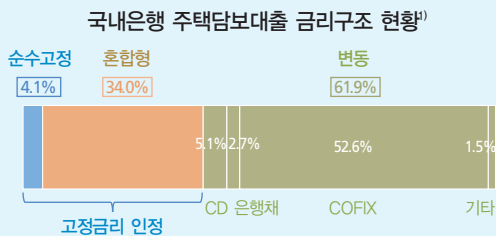
7) 2016년 3/4분기말 현재 연체율(금액, 가계부채 DB 기준)을 보면 전체 차주는 1.5%인 데 비해 다중채무자 중 저신용, 저소득 차주는 각각 16.7%, 2.8%에 달하였다.

참고 4

혼합형금리 주택담보대출 취급 현황 및 평가¹⁾

(주택담보대출 금리유형별 구조)

금융감독당국은 금리상승 리스크에 대비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위해 금융기관과 함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고정금리대출 비중을 높이는 노력을 꾸준히 강화해 왔다.²⁾ 이에 따라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2011년말 8.3%(5개 시중은행 기준)에서 2016년 6월말에는 38.1%로 높아졌다. 이를 금리유형별로 보면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 순수 고정금리대출 비중이 4.1%이고 일정 기간(통상 5년) 경과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대출³⁾ 비중은 34.0%이다. 따라서 고정금리대출 중 혼합형의 비중은 89.2%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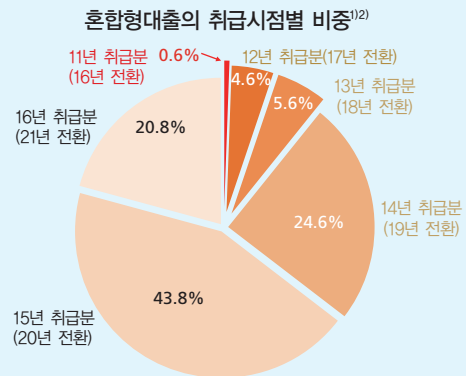


주: 1) 2016년 6월말 현재 5개 시중은행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잔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혼합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취급시점별 구성)

2016년 6월말 현재 혼합형금리 주택담보대출

을 취급시점별로 살펴보면 2014년중 24.6%, 2015년중 43.8%, 2016년 1~6월중 20.8%로 대부분이 2014년 이후 취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상 혼합형대출의 경우 취급시점부터 5년간은 고정금리이고 이후에는 변동금리를 적용받는 점을 감안할 때 2014년 이후 취급된 대출은 2019년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게 된다. 한편 향후 2년 이내에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2011~13년중 취급된 대출은 10.8%(2011년 0.6%, 2012년 4.6%, 2013년 5.6%)로 나타났다.



주: 1) 2016년 6월말 현재 5개 시중은행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잔액 기준
2) 연체중인 대출 등 제외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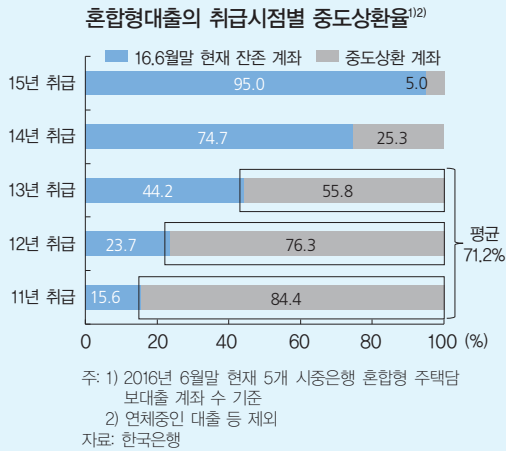
이와 같이 혼합형대출에서 2014년 이전 취급된 대출이 많지 않은 것은 주택담보대출이 2014년 하반기 이후 크게 늘어난 가운데 그 이전에

1) 5개 시중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한국씨티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데이터를 이용하여 작성하였다.

2) 2016년말 고정금리대출 비중 목표는 2011년 6월 「가계부채 연락처 종합대책」을 통해 30%로 설정된 후 2015년 및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7.5%, 40%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되었다.

3) 일정 기간은 고정금리, 잔여기간은 변동금리인 "기간혼합형" 혼합형대출을 의미한다.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이 금리하락을 이용하여 저금리상품으로 전환⁴⁾했기 때문에 보인다. 2011~13년 취급된 혼합형금리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의 경우 만기 이전에 중도상환한 비율이 평균 70% 정도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⁵⁾



(평가 및 향후 전망)

혼합형대출의 경우 고정금리 적용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데다 고정금리 적용 종료시점이 도래 하더라도 대거 변동금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당분간 현 수준 이상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혼합형대출의 대부분이 2014년 이후 취급되어 2019년 이후에나 변동금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지만 혼합형대출 차주들이 고정금리 적용기간 종료 이전에 새로운 혼합형대출로 갈아타게 되면 고정금리 적용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

의 경우 대출 이후 3년 경과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기 때문에 차주들은 이 시점에서 금리수준을 비교하여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향후 금리가 상승국면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고정금리대출 수요가 더욱 커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은행들도 고정금리대출 목표비율 준수를 위해 고정금리 적용기간이 종료된 혼합형대출 차주에게 순수고정 또는 혼합형 금리 대출로의 대화를 권유⁶⁾하고 있는데, 이 역시 변동금리대출 비중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금리가 추가 하락하여 변동금리로의 전환이 차주에게 더 큰 이익을 주지 않는 한 혼합형대출의 변동금리 전환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금리상승이 본격화될 경우 혼합형대출의 고정금리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은행들이 신규 고정금리를 높게 설정하게 되고 이 경우 차주들의 이자부담은 커질 수 있다.

4) 대출 이후 3년 경과시점에서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기 때문에 차주는 기존 혼합형대출을 상환한 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5) 중도상환 이유로는 저금리상품으로의 전환 외에 담보주택 매각 등이 있을 수 있다.

6) 은행들은 기존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이 순수고정 또는 혼합형 금리 대출로 대화할 경우 우대금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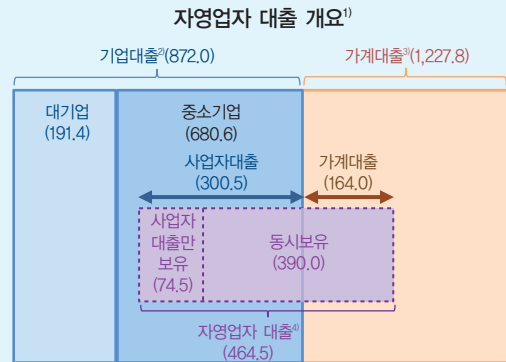
참고 5

자영업자 대출 현황 및 건전성 점검

자영업자¹⁾ 대출은 사업체 운영 등을 위한 개인사업자대출(중소기업대출로 분류, 이하 사업자대출)과 주택마련 또는 생활자금 목적의 가계대출로 구분된다. 자영업자 대출 중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은 만기, 상환방식, 용도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부채상환의 책임이 차주 개인에게 귀속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이들의 사업이 악화될 경우 당해 사업자대출뿐만 아니라 주택마련 또는 생활자금 목적의 대출도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영업자 대출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동시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DB²⁾를 활용하여 자영업자들이 보유한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이하 자영업자 대출³⁾) 규모를 파악하고 이들 대출의 건전성을 점검하여 보았다.

보유한 차주의 대출 규모는 390.0조원(차주 수 113만명)으로 자영업자 대출(464.5조원)의 84.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가계대출 없이 사업자대출만 받은 차주의 대출 규모는 74.5조원(차주 수 28만명)으로 자영업자 대출의 16.0%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 1) 2016년 9월말 기준, () 내는 조원
 2) 예금취급기관 기업대출 기준
 3) 가계신용통계 가계대출(판매신용 제외) 기준
 4) 가계부채 DB 기준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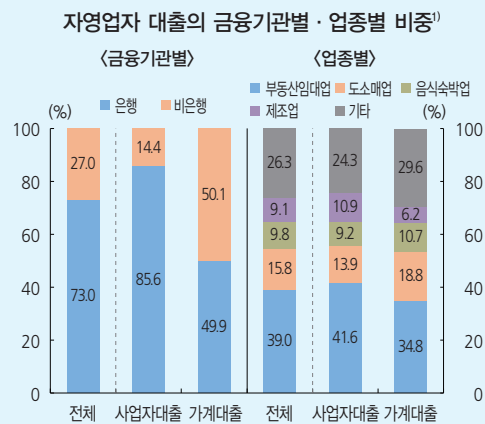
(자영업자 대출 현황)

2016년 9월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464.5조원(차주 수 141만명)으로 이 중 사업자대출은 300.5조원, 가계대출은 164.0조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동시에

2016년 9월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의 금융기관 별 취급 비중을 살펴보면, 은행이 자영업자 대출의 73.0%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자영업자 사업자대출 내에서는 은행의 취급 비중이 85.6%로 대부분인 반면 가계대출 내에서는 은행 및 비은행 취급 비중이 각각 49.9% 및 50.1%로 비슷하였다.

1) 자영업자 수는 2016년 10월말 현재 570만명으로 파악되고 있다(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 가계부채 DB는 약 100만명의 개인별 부채 데이터를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입수하여 구축한 패널데이터로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입수하여 집계되는 가계신용통계 등과 규모 및 세부 구성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3) 2015년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도 자영업자 대출 현황을 파악한 바 있는데, 당시에는 자영업자 대출을 사업자대출과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자영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의 합으로 정의하였다(참고 1-2) 「자영업자 대출 현황 및 주요 특징」(33~36쪽 참조). 다만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영업자의 가계대출은 현황 파악이 쉽지 않고 과거 시계열 소급도 어려워 금번 보고서에서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자영업자의 사업자대출과 동 차주가 보유한 가계대출의 합을 기초로 동향을 파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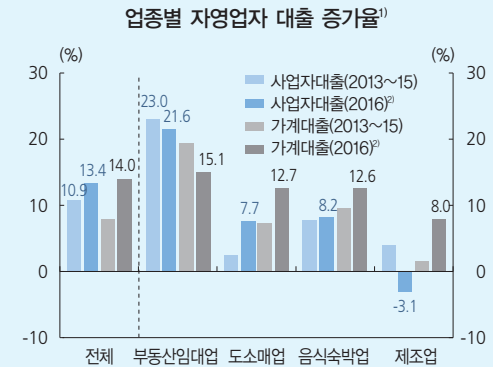
차주의 업종별 대출 비중을 보면 전체 자영업자 대출에서 부동산임대업 비중이 39.0%로 가장 크며 다음으로 도소매업(15.8%), 음식숙박업(9.8%), 제조업(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업종별 대출 비중의 분포는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 내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사업자 및 가계 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자영업자 비중이 큰(84.0%) 점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 1) 2016년 9월말 대출 잔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 DB)

최근의 자영업자 대출은 부동산임대업 위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자영업자 사업자대출의 경우 부동산임대업대출 증가율이 2013~15년중 연평균 23.0%를 기록하여 전체 사업자대출 증가율(10.9%)을 크게 상회하였다. 2016년 9월말 현재로도 사업자대출 중 동 업종의 전년 동기대비 대출 증가율이 21.6%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부동산임대업자 가계대출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 1) 전년동기대비 2) 2016년 9월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 DB)

이는 저금리 하에서 부동산임대 수익률이 금융상품 투자수익률, 예금 금리 등에 비해 높은 점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⁴⁾

자금운용 유형별 수익률(%¹⁾)

〈부동산 임대〉			〈펀드〉	〈은행〉
주택 ²⁾	오피스 ³⁾	상가 ³⁽⁴⁾	주식형 등 ⁵⁾	예금 ⁶⁾
6.9	6.0	7.3	2.1	1.5

주: 1) 2016년 9월말 현재 최근 1년간 수익률
2) 전월세전환율 = 연간임대료/(전세금 - 월세보증금)
3) 투자수익률(부동산평가액 증감, 임대료 수입 등) 기준
4) 집합 상가(건축연면적이 50% 이상 임대되고 있는 빌딩) 기준
5) 실잔액 10억원 이상 국내 공모펀드 기준
6) 예금은행 정기 예·적금 평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한국감정원, 국토교통부, FnGuide

한편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자영업자의 경우 가계대출 증가세가 사업자대출 증가세를 상회하는 모습이다. 이는 동 업종 내에 영세사업장 비중이 높고⁵⁾ 담보물건도 충분치 않아 보유 주택

4) 은퇴 전후 임대사업 등을 통해 노후소득을 확보하려는 50·60대와 우호적인 자금차입 여건 및 세제 혜택 등을 바탕으로 고수익을 추구하는 40대 고소득층의 부동산임대업 진입이 활발하였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5) 2015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자영업자(일반사업자 및 간이사업자 기준) 중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사업자의 비중을 업종별로 파악한 결과, 소매업(42.6%), 음식점업(40.3%), 숙박업(53.3%) 등이 제조업(6.5%), 도매업(0.3%) 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동산임대업(33.4%)은 부업 차원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간이사업자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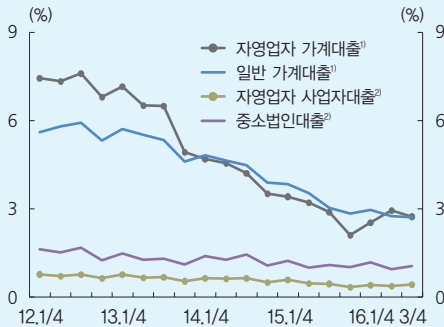
등을 담보로 가계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대출 건전성)

자영업자 대출의 건전성을 살펴보면, 먼저 자영업자의 국내은행 기준 사업자대출 연체율이 2016년 3/4분기말 0.4%로 중소기업인 연체율(1.1%)을 지속적으로 하회하고 있다. 또한 은행의 자영업자 사업자대출 중 담보대출 비중도 2016년 3/4분기말 현재 66.9%로 중소기업인의 경우(46.0%)를 상회하고 있다.

한편 자영업자의 가계대출 중 연체차주(5영업일 이상 연체 기준)가 보유한 대출의 비중은 2016년 1~9월중 평균 2.7%로 2014년 이후 일반 가계대출 중 연체차주가 보유한 대출 비중보다 대체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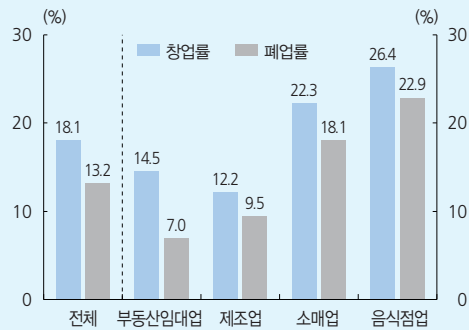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주: 1) 원리금 5영업일 이상 연체한 차주의 보유 대출 비중
2) 국내은행 대출 중 원리금 1개월 이상 연체율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 DB),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다만 자영업자들은 임금근로자에 비해 소득이 경기변동에 민감한 데다 창·폐업도 빈번하여 안정적 부채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소매업, 음식점업 등으로 자영업자 신규 유입이 집중됨에 따라 이들 업종 종사자 대출의 건전성 변화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⁶⁾

개인사업자 업종별 창업률 및 폐업률¹⁾



주: 1) 창업률 = 당해연도 창업 개인사업자수/당해연도말 개인사업자수, 폐업률 = 당해연도 폐업 개인사업자수/전년도 개인사업자수, 2015년 기준
자료: 국세청

6) 음식점업 및 화훼 도소매업 사업체의 경우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2016.9.28) 이후 경영상 어려움이 크게 증대된 것으로 파악되었다(「청탁금지법 시행 30일 중소기업·소상공인 영향조사」, 중소기업중앙회, 2016년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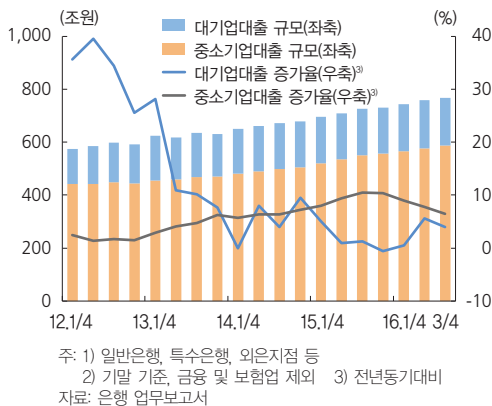
3. 기업신용

2016년 들어 기업신용은 업황부진 지속,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신용경계감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기업¹⁴⁾의 재무건전성은 저금리·저유가, 경영합리화 노력 등에 힘입어 개선되었다. 앞으로 업황부진이 장기화되고 이로 인해 기업신용 증가세가 더욱 둔화될 경우 기업의 경영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기업신용 증가세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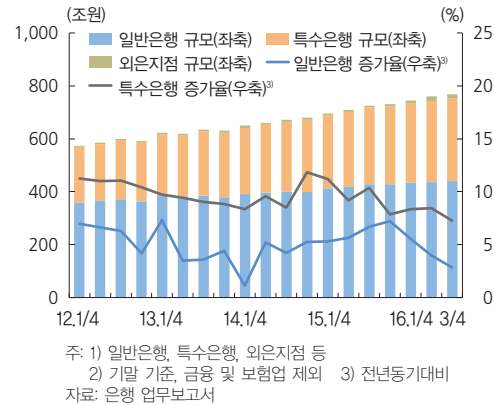
예금은행 기업대출¹⁵⁾은 2016년 3/4분기말 전년동기대비 5.9% 늘어났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대출이 같은 기간에 4.0% 늘어나 중소기업대출 증가율(6.5%)을 하회하였다. 전체 기업대출 중 76.4%(2016년 3/4분기말)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대출은 5분기 연속 증가폭이 축소되었다(그림 I-16).

〈그림 I-16〉 기업규모별 예금은행¹⁾ 기업대출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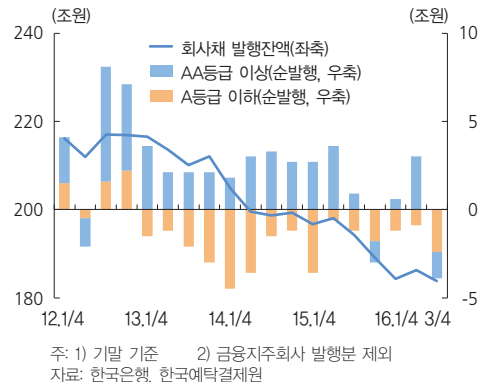
은행권역별로 보면 일반은행 기업대출은 2016년 3/4분기말 전년동기대비 2.8% 증가에 그쳐 4분기 연속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특수은행의 경우에는 기업대출 증가율(7.3%)이 일반은행을 웃돌고 있는으나, 2014년 4/4분기 이후의 증가율 둔화추세를 이어갔다(그림 I-17).

〈그림 I-17〉 은행권역별 예금은행¹⁾ 기업대출²⁾



한편 회사채는 기업의 업황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 구조조정 이슈가 부각되면서 신용경계감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이후 순상환 기초가 이어졌다(그림 I-18).

〈그림 I-18〉 회사채 발행잔액¹⁾ 및 순발행²⁾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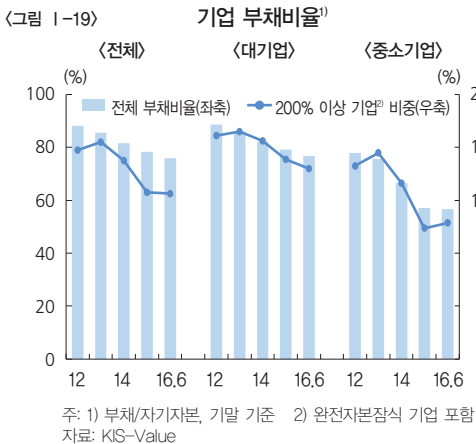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 상반기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기업(1,806개)과 일부 비상장기업(218개) 등 총 2,024개 기업(2016년 상반기 기준, 금융·보험업 제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15) 2016년 6월말 기준 예금은행 기업대출은 자금순환통계 기준 비금융법인(공기업 포함) 대출금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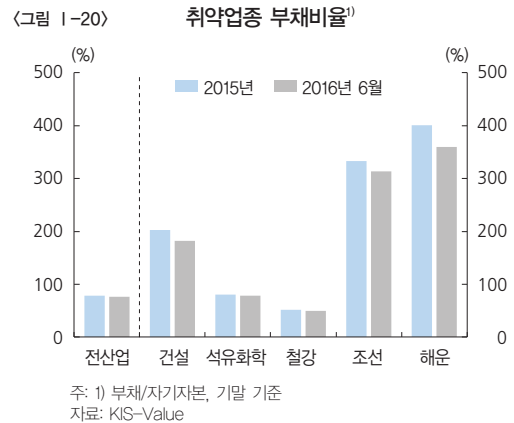
기업의 부채비율 하락세 지속

업황부진과 함께 구조조정 추진¹⁶⁾ 등의 영향으로 기업의 부채비율은 2016년 6월말 75.9%를 기록하여 지난 수년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¹⁷⁾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76.8%로 중소기업(56.7%)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부채비율 200% 이상 기업의 비중은 2016년 6월말 현재 12.5%로 2015년말(12.6%)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동 비중은 2013년 이후 점차 낮아지다가 금년 들어 하락세가 주춤한 모습이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의 동 비중이 14.4%로 중소기업(10.3%)의 경우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그림 I-19).



조선, 해운 등 5개 취약업종의 부채비율도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자산매각 등을 통한 경영정상화 노력 등에 힘입어 대체로 하락하였다. 다만 조선 및 해운업종은 2016년 6월말 동 비율이 각각 313.5%, 360.0%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그림 I-20).



이자지급능력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기업규모별 차이는 확대

기업의 신용증가세가 둔화된 데다 저금리·저유가 등으로 기업의 수익성이 제고¹⁸⁾되고 이자지급능력도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2016년 상반기

16) 정부·감독당국은 취약업종 등을 중심으로 2015년 이후 구조조정 노력을 강화하여 왔으며, 이 과정에서 신용위험평가에 기초한 구조조정 대상 기업 수도 크게 늘어났다.

구조조정대상 기업 수(금융감독원 발표 기준)

	2012	2013	2014	2015	2016
대기업	36	40	34	54	32
중소기업	97	112	125	175	176
합계	133	152	159	229	208

17) 기업의 부채비율 하락은 기업의 자본 확충 노력에도 일부 기인한다. 2012~16년 재무제표 기준 연평균 자본 증가율은 2.2%로 부채 증가율(1.5%)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 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국제 원유 및 원자재 가격 하락 등에 따른 제품원가 절감효과 등으로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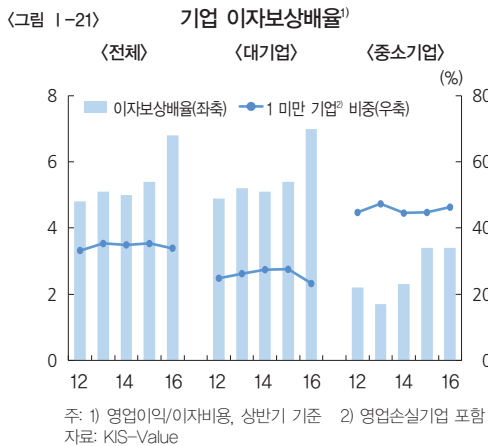
매출액영업이익률¹⁾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비율 (%)	6.9	5.8	5.9	5.2	5.8	7.0

주: 1) 영업이익/매출액, 상반기 기준

자료: KIS-Val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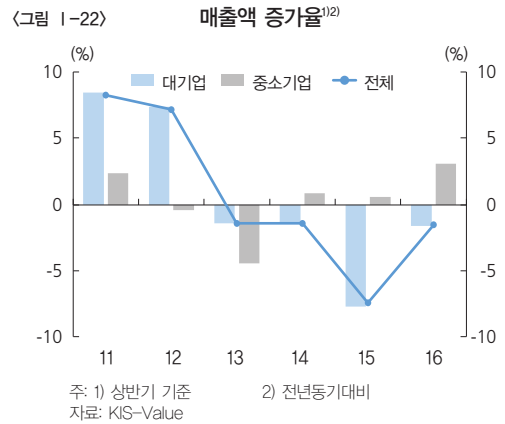
6.8로 2014년 이후 2년 연속 높아졌다. 다만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기업의 비중은 33.9%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한편 기업규모별로는 이자지급능력이 차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그림 I-21). 대기업(7.0)의 이자보상배율이 중소기업(3.4) 수준을 큰 폭 상회하는 가운데 그 차이가 확대되었고, 동 배율이 1 미만인 기업 비중도 중소기업(46.3%)이 대기업(23.2%)을 크게 상회하였다.



성장성 부진에 따른 부채상환능력 저하 가능성

기업의 부채상환능력과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으나 성장성은 업황부진이 지속되면서 악화되었다. 2016년 상반기중 기업 매출액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1.5%를 기록하여 2013년 이후의 매출액 감소세가 지속되었다. 다만 기업규모별로는 다소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2013년 이후 계속 줄어든 반면, 중소기업은 2014년에 증가로 반

전한 이후 2016년 상반기에는 증가율이 소폭 확대되었다(그림 I-22).



한편 장기적으로 기업의 성장성이 악화되면 수익성도 시차를 두고 악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외부감사대상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한 분석 결과¹⁹⁾, 매출액 증가율 변동은 매출액영업이익률 및 이자보상배율 변동과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표 I-1).

(표 I-1) 매출액 증가율 변동과 여타지표 간 관계 분석결과²⁾

	영업이익률 변동(%p)	부채비율 변동(%p)	이자보상배율 변동(배)
상관관계수	0.53	-0.12	0.70

주: 1) 2000~15년중 재무제표 입수가 가능한 외부감사대상 7,513개 기업 (비금융법인)의 연도별 자료를 이용
2) 신용카드 사태(2003), 금융위기(2008) 기간은 제외
자료: 한국은행, KIS-Value

이러한 점에 비추어 최근 기업의 매출액 증가세 둔화 과정에서도 수익성이 일부 개선되고 있는 것은 기업의 자구노력²⁰⁾, 원자재 가격 하락, 차입비용 감소 등 비용측면에서의 요인이 크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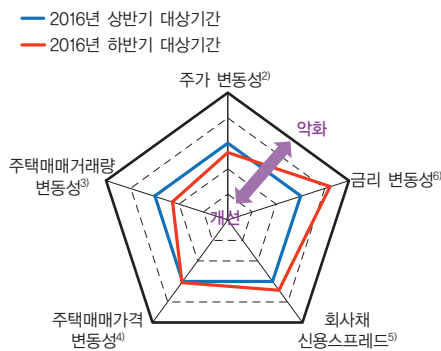
19) 자세한 분석 결과는 2016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 <참고 I-5> 「국내기업의 성장성이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42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20)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안정 현안 분석> 「II. 업황부진 장기화에 따른 기업금융의 주요 특징」(102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II. 자산시장

주식시장에서는 주가가 일정 범위내에서 등락하였으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채권시장에서는 미 금리인상 가능성 부각 등으로 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회사채시장에서의 신용차별화 현상이 지속되었다. 한편 주택시장의 가격 및 거래량은 대체로 안정되었으나 일부 지역의 분양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였다(그림 II-1).

〈그림 II-1〉 자산시장 상황 변화 지도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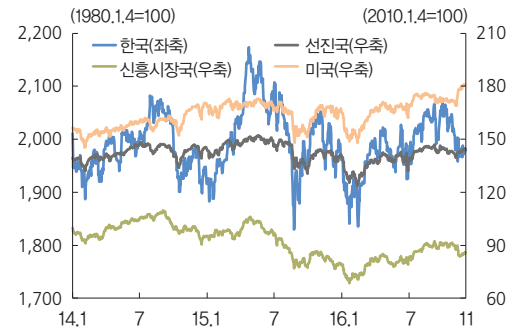


주: 1) 2015년 12월 ~ 2016년 5월의 6개월간 실적을 기준으로 2016년 6~11월중(주택매매거래량은 6~10월중)의 6개월간 변화 정도를 지수화
 2) V-KOSPI 200 기준
 3) 주택매매거래량의 월별 변동성을 지수화
 4) 주택매매가격지수의 월별 변동성을 지수화
 5) 회사채(A-등급) 금리 - 국고채(3년) 금리, 2016년 5월말 대비 2016년 11월말의 변화정도를 지수화
 6) 국고채(3년) 금리의 일별 변동성을 지수가중이동평균(EWMA) 방식으로 산정
 자료: 한국은행

주가는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확대

최근 주가(KOSPI) 추이를 보면 2016년 6월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 결과로 1,920대로 하락하였다가 ECB 및 일본은행 통화정책의 추가 완화 기대 및 국내 상장기업의 영업실적 개선 등으로 상승하여 9월 29일 연중최고치(2,068.7)를 기록하였다. 이후에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 및 미국 대선 결과 등으로 변동성이 재차 확대되면서 11월초 1,950대로 하락하였다가 이후 다시 반등하여 11월 30일 현재 1,983.5를 기록하였다(그림 II-2).

〈그림 II-2〉 코스피 및 글로벌 주가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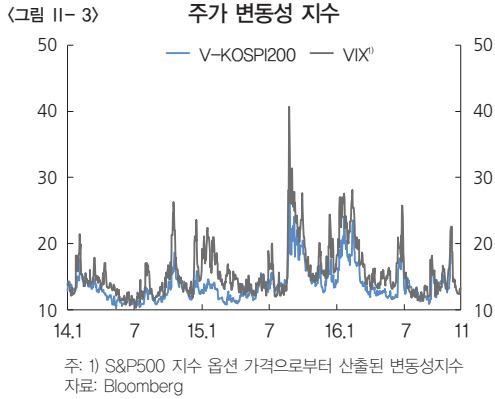


주: 1) 미국은 다우지수, 선진국과 신용시장국은 MSCI 기준
 자료: Bloomberg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200)도 이러한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변동에 따라 큰 폭의 등락을 보였다(그림 II-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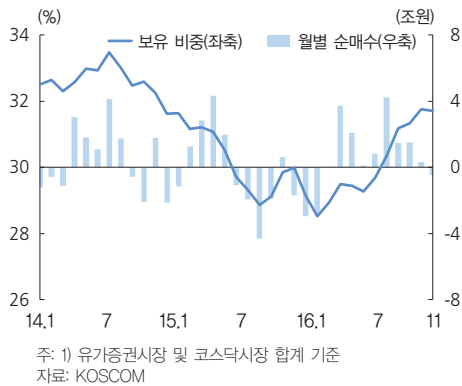
1. 주식시장

주가는 2016년 중에도 2012년 이후 나타나고 있는 일정 범위 내에서의 등락을 거듭하였으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한편 외국인의 주식투자자금(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은 연초부터 시작된 유입세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1~10월중 순유입 규모가 2013년 이후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¹⁾ 다만 11월에는 미 연준의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소폭 순유출로 전환되었다(그림 II-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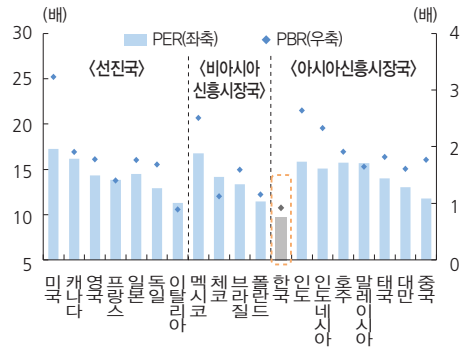
〈그림 II- 4〉 외국인 주식 순매수 및 보유 비중¹⁾



주요국과 비교한 PER 및 PBR은 낮은 수준

국내 주가 수준을 기업의 수익성 및 청산가치에 비추어 보면, 먼저 주가수익비율(PER)은 2016년 11월말 현재 9.8배로 선진국은 물론 주요 신흥시장국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의 경우에도 0.9배로 대부분의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그림 II-5).

〈그림 II- 5〉 주요국의 PER¹⁾²⁾ 및 PBR²⁾



1) 1~10월중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순유입 규모(조원)는 다음과 같다.

2012	2013	2014	2015	2016
14.5	7.0	6.2	0.7	11.4

2. 채권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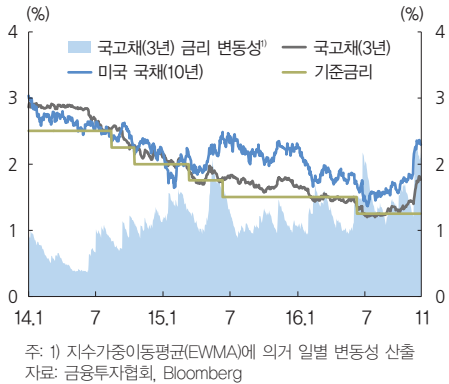
장기시장금리는 대외여건 변화에 따라 높은 변동성을 보였으며 회사채시장은 신용 차별화 현상이 지속된 가운데 거래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장기시장금리 변동성 확대

국고채(3년) 금리는 2016년 6월 기준금리 인하,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 결과에 따른 ECB 및 일본은행 통화정책의 추가 완화 기대 등으로 가파르게 하락하였다. 7월 들어 국고채(3년) 금리가 사상 최저수준(7월 6일, 1.20%)으로 떨어진 후 좁은 범위에서 등락함에 따라 일부에서는 채권시장의 과열을 우려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8월 하순 이후 미 연준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상승하다가 9월 FOMC 회의²⁾ 이후 반락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10월 이후에는 주요국 경제지표 호조, 인플레이션 경계감 등으로 추가적인 통화정책 완화 기대가 약화된 데다 미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고채(3년) 금리가 재차 상승세로 돌아섰다. 특히 11월 미국 대선 이후 인플레이션 우려³⁾에 따른 미 국채 금리 급등 등의 영향으로 국고채(3년) 금리가 큰 폭 상승하여 11월 24일 현재 연중 최고치인 1.81%까지 올랐으나, 이후 소폭 하락하여 11월 30일 현재 1.71%를 기록하였다(그림 II-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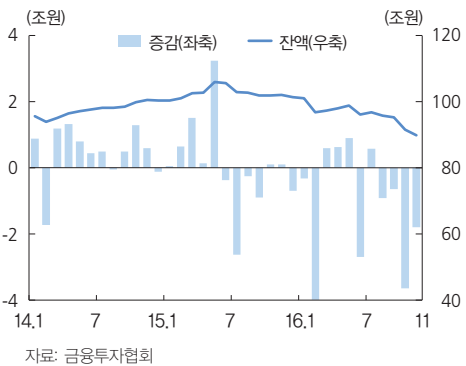
〈그림 II-6〉 기준금리, 국고채 및 미국 국채 금리



외국인 국내채권 순매도 증가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은 2016년 6~11월중 9.1조원 줄어든 가운데 8월 이후에는 4개월 연속 순유출을 기록하였다. 특히 10월에는 외국인 국내채권 보유잔액이 3.6조원 감소하여 2016년 2월(-4.2조원)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외국인 채권투자자금 유출은 미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 증대 및 미국 대선 이후 달러화 강세 강화, 글로벌 펀드 수탁고 감소, 일부 아시아계 중앙은행의 투자자금 회수 등 대외요인에 주로 기인하였다(그림 II-7).

〈그림 II-7〉 외국인 채권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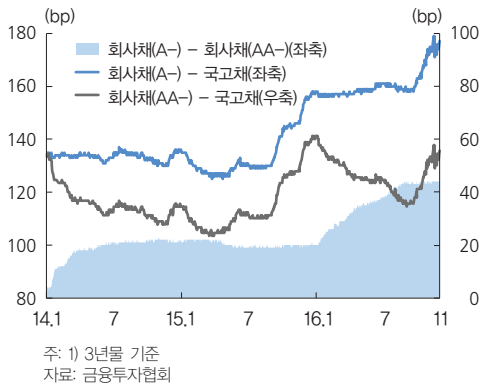
2) 정책금리가 동결된 가운데 정책금리경로 전망(dot plot)이 하향 조정되면서 미 국채(10년) 및 주요국 금리가 상당폭 하락하였다.

3) 시장참가자들은 세금 감면, 인프라 투자 확대 등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이 국제 발행규모를 증가시키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회사채 신용스프레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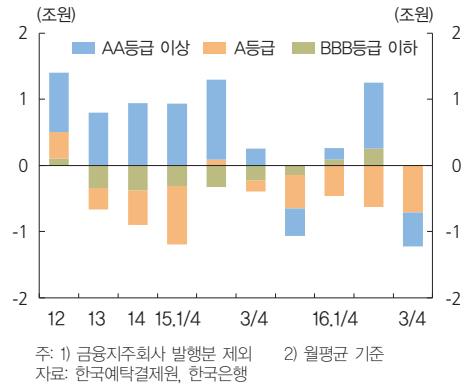
회사채시장은 2016년 들어서도 신용차별화 현상이 지속된 가운데 9월 하순 이후 우량물(AA등급 이상)과 비우량물(A등급 이하) 모두 신용스프레드가 확대되었다. 이는 장기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금리변동 리스크 증대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제도적·계절적 요인 등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채 및 은행채 스프레드가 확대⁴⁾된 데 기인한다. 한편 미국 대선 이후 시장금리 급등에도 불구하고 신용스프레드 확대폭은 제한적이나 변동성이 다소 커진 모습을 보였다(그림 II-8).

〈그림 II-8〉 회사채 신용스프레드¹⁾ 및 신용등급 간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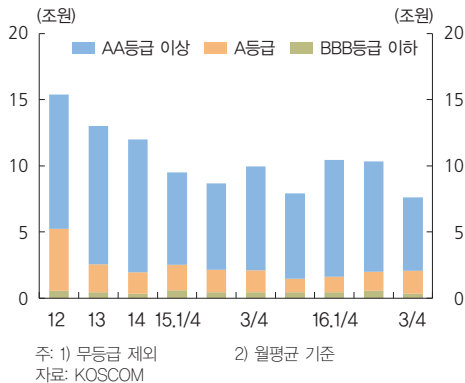
발행시장에서는 최근 들어 회사채가 순상환되는 모습을 보였다. 만기도래를 감안한 월평균 순발행 규모를 보면, 비우량물의 경우 2013년 이후 순상환 기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2016년 1/4분기 및 2/4분기 순발행되었던 우량물도 3/4분기 들어 0.5조원 순상환으로 전환되었다(그림 II-9).

〈그림 II-9〉 회사채¹⁾ 순발행²⁾



유통시장에서는 회사채 거래가 전반적으로 부진해지면서 거래량이 감소하였다. 특히 2016년중 회사채 거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던 우량물 거래가 3/4분기 들어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다소 줄어들었다(그림 II-10).

〈그림 II-10〉 회사채¹⁾ 신용등급별 거래규모²⁾



4) 대기업 계열사의 경우 모기업 등의 지원가능성을 배제한 자체신용도 도입계획 발표(2016.9.22), 유동성비율 관리, 연발 자금수요에 따른 은행채 발행 증가 등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채(AA-, 3년) 및 은행채(AAA, 3년) 스프레드가 2016년 9~10월중 각각 20bp, 6bp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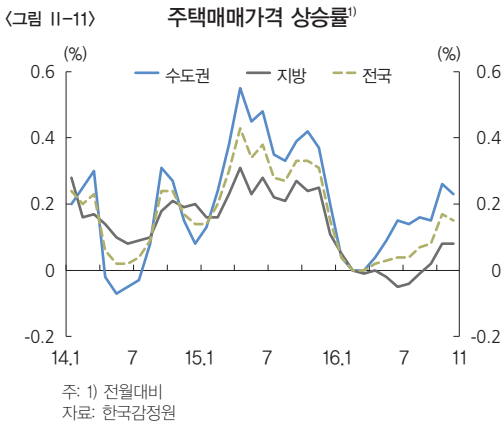
3. 부동산시장

2016년중 주택시장은 가격 및 거래량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지방이 서로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서도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다만 분양시장은 일부 지역에서 과열 조짐을 보이기도 하였다.

한편 상업용부동산시장은 양호한 수익률을 바탕으로 거래량이 증가하였으나 오피스를 중심으로 공실률이 높아졌다.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매매가격 상승

2016년중 기존주택의 매매가격은 4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나 11월 들어 주택시장 관리 대책(11.3 대책, 이하동일)⁵⁾의 영향 등으로 상승률이 다소 둔화되었다.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2016년 1~11월중 전년말 대비 0.6% 상승하여 전년동기중 상승률(3.4%)을 상당폭 밑돌고⁶⁾ 있다(그림 II-11).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이 2016년 1~11월중 전년말 대비 2.0% 상승하여 같은 기간중 인천 및 경기도의 상승률(각각 0.7%, 0.8%)을 상당폭 웃돌았으며, 특히 서울 강남4구 아파트가격의 상승률이 4.1%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우수한 주거여건, 가격상승 기대 등을 바탕으로 실거주 및 투자목적 수요가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표 II-1).

〈표 II-1〉 지역별·유형별 주택매매가격 상승률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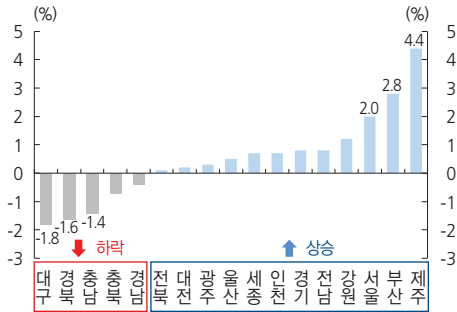
	아파트	연립	단독	전세주택
수도권	1.8	0.4	0.5	1.2
서울	3.1	0.7	0.8	2.0
(강남 4구 ²⁾)	(4.1)	(0.4)	(0.5)	(2.8)
경기도	1.1	0.2	0.3	0.8
지방	-0.3	0.4	0.7	0.1
광역시	0.6	0.6	1.0	0.7
기타 지방	-1.1	0.3	0.6	-0.3

주: 1) 2016년 1~11월중 상승률
2)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자료: 한국감정원

지방의 경우 주택매매가격은 2016년 1~11월중 전년말 대비 0.1% 상승에 그쳐 대체로 보합세를 나타냈다. 부산 및 제주⁷⁾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대구, 경북, 충남 등의 경우 가격 고점인식⁸⁾ 및 아파트 공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하락하였다(그림 II-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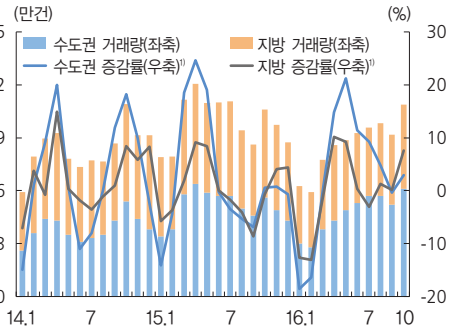
5) 최근 정부는 일부 청약시장에서 과열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2016.11.3)」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전매제한 기간 연장,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재당첨 제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6) 주택매매시장은 2015년중 전세의 매매전환 수요, LTV·DTI 규제 완화 효과, 금리인하 등으로 회복세가 뚜렷하였으나 2016년 들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및 신규주택 공급 확대 등으로 가격 상승률이 전년에 비해 둔화되었다.
7) 부산은 분양시장 호조세가 기존주택 매매가격의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으며 제주는 인구 유입, 개발 호재 등으로 주택매매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그림 II-12〉 시도별 주택매매가격 상승률¹⁾



주: 1) 2016년 1~11월중 상승률
자료: 한국감정원

〈그림 II-13〉 주택매매거래량



주: 1) 전월대비 증감률의 3개월 이동평균
자료: 국토교통부

한편 주택매매거래량은 2016년 3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2016년 1~10월 중 주택매매거래량은 86.2만건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던 전년 동기(100.8만건)의 거래량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과거 평균 거래량(2010~14년 1~10월중 평균 69.3만건)을 상당폭 웃도는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된 수도권의 거래량이 지방보다 빠르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그림 II-13).

아파트 분양물량 급증세 유지

2016년중 아파트 분양물량은 45.8만호(12월 분양 예정물량 포함)로 2015년의 51.8만호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2010~14년중 연평균 분양물량(26.3만호)을 여전히 크게 상회하였다.⁹⁾ 이는 기존주택 노후화에 따른 새집 선호 경향, 주택관련 규제 완화¹⁰⁾, 저금리 등에 따른 투자 수요 유입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분양물량 증가와 함께 분양가격¹¹⁾도 꾸준히 상승하였다(그림 II-14). 다만 11.3 대책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의 경우 분양시장이 관망세를 보였다.¹²⁾

8) 수도권은 주택매매가격이 2010~14년중 하락(연평균 -1.0%)하였으나 지방은 동 기간중 연평균 4.5%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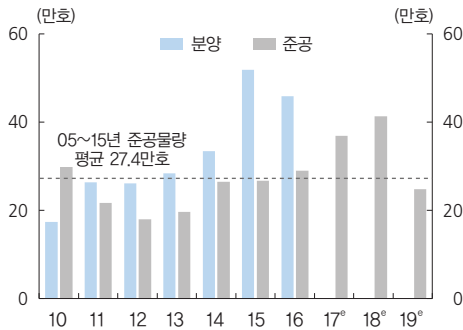
9) 자세한 내용은 〈참고 6〉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의 주요 특징」(45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10) 수도권 민간택지 내 전매제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2014년 6월),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2014년 12월), 재건축 가능 연한을 최대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2015년 1월) 등이다.

11) m² 당 평균 분양가격(전국, 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이 2015년 12월 272만원에서 2016년 9월 283.2만원으로 4.1% 상승하였다.

12) 서울 청약경쟁률이 2016년 1~10월중 24.4:1을 기록하였으나 11.3 대책 이후(12월 7~9일 당첨자발표 기준)에는 12.5:1로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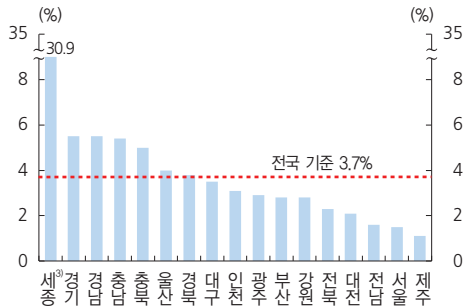
(그림 II-14) 아파트 분양 및 준공물량¹⁾



주: 1) 2017~19년은 예정 물량 기준
자료: 부동산114

한편 2016년 11월말 기준 세대수 대비 아파트 준공예정 물량(2017~18년) 비율을 보면 경기, 경남, 충남 등이 전국 평균(3.7%)을 상당폭 상회하고 있다(그림 II-15).

(그림 II-15) 지역별 세대수¹⁾ 대비 아파트 준공예정²⁾ 물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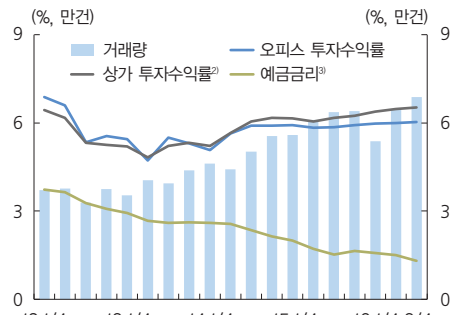


주: 1) 2016년 11월말 기준
2) 2017~18년중 준공예정 기준
3) 세종시는 이주 진행 등 특이요인으로 매우 높음
자료: 통계청, 부동산114

상업용부동산시장은 양호한 투자수익률을 배경으로 거래량 증가

상업용부동산은 저금리 하에서 대체투자 수단으로 부각되면서 2015년 이후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2016년 3/4분기 현재 상업용부동산의 연간 투자수익률은 오피스 및 상가 모두 5~6%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예금금리(2016년 3/4분기 1.3%)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그림 II-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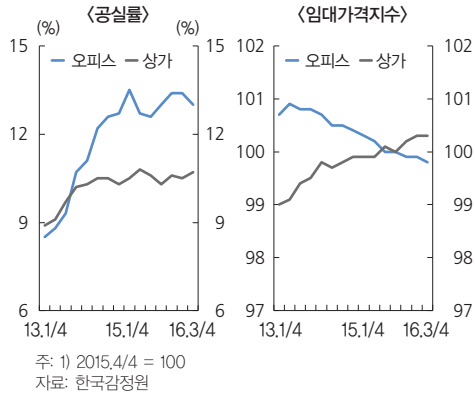
(그림 II-16) 상업용부동산 투자수익률¹⁾ 및 거래량



주: 1) 소득수익률(임대료 등) + 자본수익률(부동산 가격 등락)로 과거 1년간 수익률
2) 3층 이상 상가 기준
3) 예금은행 정기 예·적금 평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한국감정원, 국토교통부

상업용부동산의 시장별 여건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상가의 경우 꾸준한 임차수요 등으로 공실률은 2016년중 10% 내외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인 반면 오피스의 공실률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임차수요 위축 등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2016년 3/4분기 현재 13.0%)을 유지하였다. 다음으로 임대료의 경우 상가는 수익추구 목적의 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2016년 들어서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오피스는 공실률 상승 등을 반영하여 하락세를 이어갔다(그림 II-17).

〈그림 II-17〉 상업용부동산 공실률 및 임대가격지수¹⁾



상업용부동산의 경우 당분간 공급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공실률이 높은 오피스를 중심으로 공실률 추가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대출¹³⁾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표 II-2).

〈표 II-2〉 상업용건축물 허가 및 착공 면적

(백만㎡)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1~10
허가	26.6	34.0	32.3	33.7	37.4	52.4	40.0
착공	20.4	23.9	24.1	25.7	29.1	41.8	31.8

자료: 국토교통부

13) 부동산임대업대출이 전체 중소기업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일반은행 기준)이 2010년말 13.0%에서 2016년 9월말 23.7%로 상승하였다.

참고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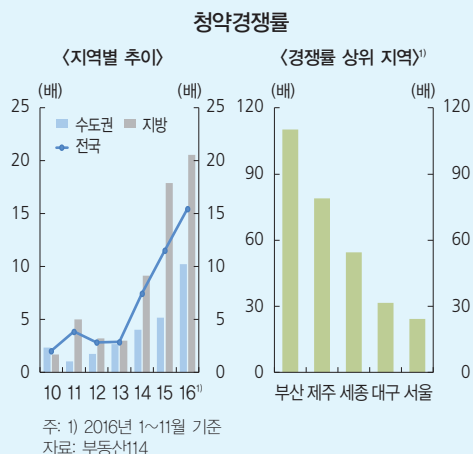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의 주요 특징

저금리 하에서 주택관련 규제 완화 등을 배경으로 2015년 이후 아파트 분양시장이 호조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높은 청약경쟁률)

청약경쟁률이 높은 수준으로 상승한 가운데 일부 지역 분양시장에서 과열현상이 나타났다. 전국 청약경쟁률은 2014년 이후 급등하기 시작하여 2015년에는 11.5:1, 2016년 1~11월중은 15.4:1로 더욱 높아졌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등으로 청약경쟁률(2016년 1~11월중)이 110.2:1로 전국 최고수준을 기록하였다. 한편 제주(78.8:1)는 아파트 공급 부족, 세종시(54.4:1)는 인구 유입 등으로 청약경쟁률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24.3:1, 강남4구 32.0:1)의 경우 전국 청약경쟁률을 상당폭 상회하는 가운데 강남 일부 재건축 단지는 고분양가에도 불구하고 높은 청약경쟁률로 분양되었다.¹⁾

다만 2016년 11.3 주택시장 관리 대책 이후에는 규제 대상지역²⁾ 내 일부 분양아파트의 경우 청약경쟁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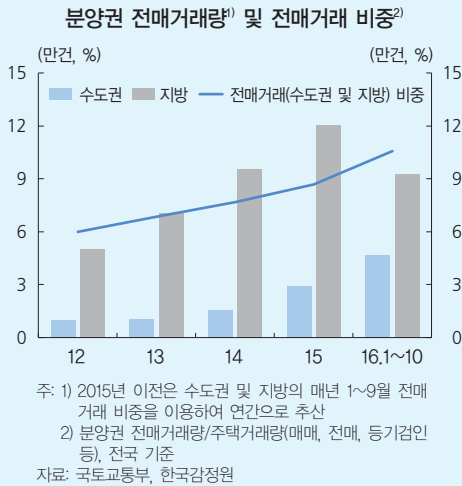


(투자목적의 수요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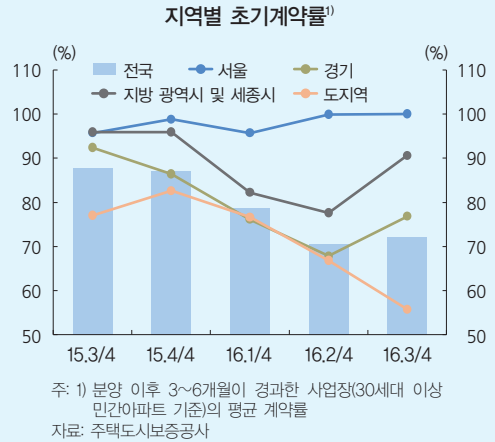
2015년 이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단기 시세차익 목적의 투자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양권 전매거래량은 2012년 6.0만건에 그쳤으나 2015년 14.9만건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2016년 1~10월중에도 14.0만건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주택거래량에서 분양권 전매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2년 6.0%에서 2016년 1~10월중에는 10.6%로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지역별로는 2016년 1~10월중 지방의

1) 2016년 8월 및 10월에 분양한 디에이치아너힐즈(개포주공 3단지), 아크로리버뷰(신반포 5차) 아파트의 경우 청약경쟁률이 각각 100.6:1, 306.6:1에 이르고 3.3㎡당 평균 분양가도 각각 4.3천만원, 4.2천만원에 달했다.
2) 국지적인 청약시장의 과열을 완화하여 실수요자의 청약당첨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시장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청약과열 현상을 보인 서울 전지역, 경기·부산 일부지역, 세종시를 규제 대상지역(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3) 11.3 대책 이후 서울의 청약경쟁률이 12.5:1(12월 7~9일 당첨자발표 기준)로 하락하였는데 이는 마포구(2016년 1~10월 69.3:1, 11월 32.0:1), 성북구(15.8:1, 5:1)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청약경쟁률이 낮아진 데 기인한다.

전매거래 비중이 세종시 등의 높은 전매거래 비중으로 인해 수도권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상승폭은 수도권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⁴⁾ 아울러 청약시장에서 중복 당첨자 수가 크게 증가⁵⁾한 것도 분양시장에서 투자수요가 늘어나는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큰 폭으로 하락한 데 기인한다. 이를 반영하여 2016년 10월말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의 미분양 주택이 전년말 대비 각각 1.3만호, 0.2만호 감소한 반면 초기계약률이 낮은 도지역은 같은 기간중 1.1만호 증가하였다.



(일부 지방 중심으로 초기계약률 하락)

분양시장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분양개시 후 3~6개월이 경과한 민간아파트의 계약률인 초기계약률이 일부 지방을 중심으로 하락하였다. 전국 초기계약률은 2015년 3/4분기 87.7%에서 2016년 2/4분기 70.5%로 하락하였으며 3/4분기에도 72.0%로 전년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도지역의 초기계약률이 2015년 4/4분기 82.6%에서 2016년 3/4분기 55.7%까지

4) 2016년 1~10월중 전매거래 비중이 수도권은 7.0%로 전년대비 3.4%포인트 상승한 반면 지방은 14.3%(2016년 1~10월중)로 전년대비 1.1%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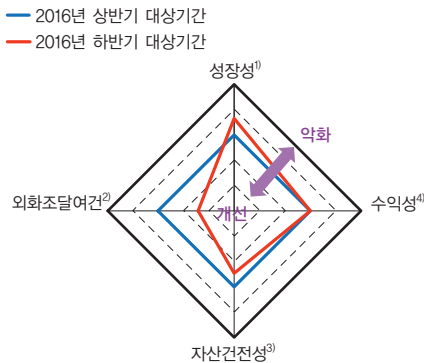
5) 과거 2년간 2회 이상 청약이 당첨된 중복 당첨자 수가 2012년 6월말 1,3만명에서 2016년 6월말 3,9만명으로 크게 늘었다.

III. 금융기관

1. 은행

일반은행은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총 자산 증가율이 소폭 둔화되었으나 그간의 부실채권 정리 노력 등에 힘입어 자산건전성이 꾸준히 개선되고 수익성도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다만 기업의 업황부진 지속, 시장금리 상승세 등이 취약 가계 및 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자산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유의할 필요가 있다(그림 III-1).

〈그림 III-1〉 일반은행 경영건전성 상황 변화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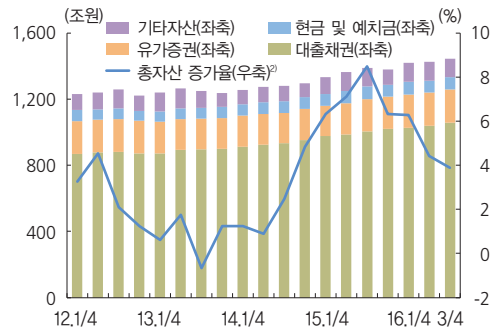
주: 1) 총자산증가율, 2015년 10월 ~ 2016년 3월중 대비 2016년 4 ~ 9월중의 변화 정도를 지수화
 2) CDS 프리미엄, 2015년 10월 ~ 2016년 3월중 대비 2016년 4 ~ 9월중의 변화 정도를 지수화
 3) 고정이자여신비율, 2016년 1/4분기말 대비 2016년 3/4분기말 변화 정도를 지수화
 4) 총자산순이익률(ROA), 2015년 10월 ~ 2016년 3월중 대비 2016년 4 ~ 9월중의 변화 정도를 지수화
 자료: 한국은행

총자산 증가세 둔화

2016년 들어 일반은행¹⁾의 총자산(은행계정 기준)은 대출채권을 중심으로 지난해 4/4분기 이후 증가세가 뚜렷이 둔화되었다. 2016년

3/4분기말 현재 일반은행의 총자산은 1,444조 원으로 금년 1/4~3/4분기중 66조원 늘어났다. 총자산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2015년 3/4분기 8.5%에 달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6년 3/4분기에는 3.9%를 기록하였다. 항목별로 보면 같은 기간중 대출채권 증가율은 7.8%에서 5.0%로 낮아졌으며, 유가증권 증가율은 6.5%에서 3.0%로 낮아졌다(그림 III-2).

〈그림 III-2〉 일반은행 총자산 규모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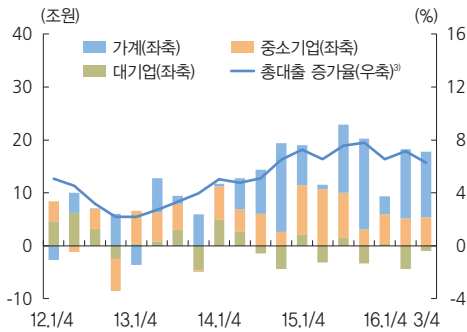


주: 1) 은행계정 기말 잔액 기준
 2) 전년동기대비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차주별 대출채권(원화대출금 기준)을 보면 가계대출은 분양시장 호조 등을 반영하여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된 반면 기업대출은 설비투자 수요 부진,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가계대출은 2016년 1/4~3/4분기중 28.8조원 증가하여 전년동기중 증가규모(21.3조원)를 상회하였다. 기업규모별 대출동향을 보면 대기업대출이 2014년 하반기 이후 대체로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중소기업대출은 2016년 1/4~3/4분기중 16.2조원 늘어나 전년동기중 증가규모(28.4조원)를 상당폭 하회하였다(그림 III-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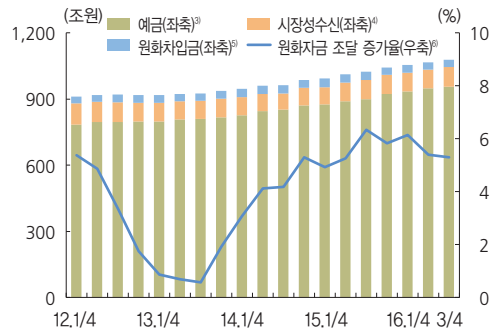
1) 금융안정보고서의 은행부문은 일반은행(시중·지방은행)을 분석대상으로 하며, 영업모델이 상이한 특수은행(산업, 기업, 수출입, 농협)은 분석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림 III- 3〉 일반은행 대출¹⁾ 증감²⁾



주: 1) 원화대출금 기준 2) 전기대비
3) 전년동기대비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그림 III- 4〉 일반은행 원화자금 조달¹⁾ 규모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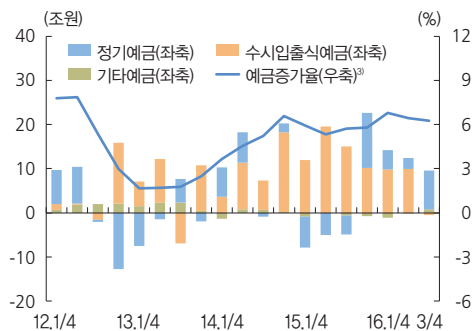
주: 1) 예금, 시장성수신, 원화차입금
2) 은행계정 기말 잔액 기준 3) 원화예수금
4) CD, RP, 표지어음, 은행채 5) 원화클러니 포함
6) 전년동기대비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예금조달 비중 증가

일반은행의 원화조달자금은 2016년 들어 예금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2016년 3/4분기말 현재 일반은행의 원화조달자금 규모²⁾는 1,079조원으로 금년 1/4~3/4분기중 35조원 늘어난 가운데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2015년 3/4분기 6.3%에서 2016년 3/4분기에는 5.3%로 낮아졌다. 조달원천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같은 기간중 예금이 5.7%에서 6.3%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시장성수신 및 차입금은 각각 19.2% 및 -4.7%에서 1.4% 및 -9.1%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전체 원화조달자금에서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말 88.4%에서 2016년 3/4분기말에는 88.7%로 소폭 상승하였다(그림 III-4).

예금 종류별 자금조달을 살펴보면 2015년 4/4분기 이후 수시입출식예금은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반면, 정기예금은 예대율 관리를 위한 은행의 조달 확대³⁾ 등에 힘입어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수시입출식예금은 2016년 1/4~3/4분기중 19조원 늘어나 전년동기중 증가규모(46조원)를 하회하였다. 정기예금은 금년 1/4~3/4분기중 16조원 증가하였다(그림 III-5).

〈그림 III- 5〉 일반은행 예금¹⁾ 증감²⁾



주: 1) 원화예수금 기준 2) 전기대비
3) 전년동기대비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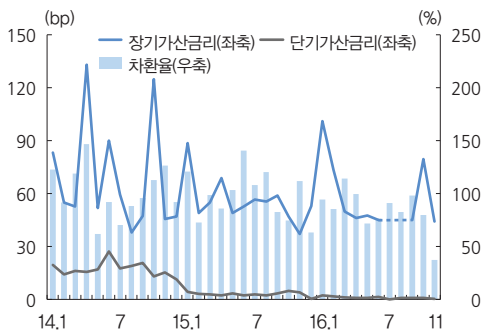
2) 은행계정 원화예수금, CD(양도성예금증서), RP(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어음), 은행채(원화발행행금융채권), 원화차입금(원화클러니 포함) 기준이다.

3) 2015년 하반기중 원화 예대율이 상승(2015년 2/4분기 97.0% → 4/4분기 98.0%)함에 따라 2016년 들어 은행들이 안정적인 예대율 관리 차원에서 정기예금 조달을 확대하였다.

외화조달 여건 양호

일반은행의 외화조달 여건은 2016년 들어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장기 외화차입 가산금리는 금년 1월 100bp를 상회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빠르게 하락하였다. 단기 외화차입 가산금리도 2016년 2/4분기 이후 지난해보다 낮은 1bp 내외에서 유지되었다. 풍부한 외화유동성 상황을 반영하여 차환율(신규차입액/만기 도래액)도 2016년중 80% 내외에서 움직였다(그림 III-6).

〈그림 III-6〉 외화차입 차환율¹⁾ 및 장·단기차입 가산금리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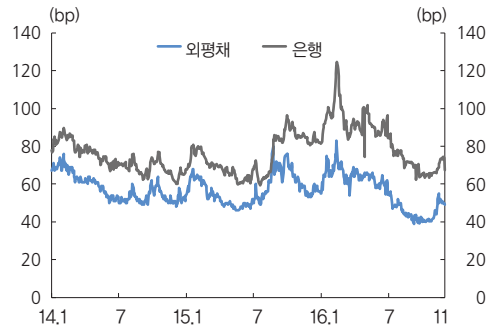


주: 1) 신규 차입액/만기 도래액
 2) LIBOR 기준 가산금리(국민, 신한, 우리 및 KEB하나은행의 차입금액 가중평균)
 3) 차입실적 부재로 데이터가 단절된 시점(2016년 7~8월 장기차입 가산금리)은 점선으로 표시
 자료: 한국은행

일반은행의 CDS 프리미엄은 2016년 상반기 중 유럽계 은행의 신용위험 부각,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 결과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하반기 들어서는 주요국의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 상승 등에 힘입어 빠르게 안정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나타내는 외평채 CDS 프리미엄은 S&P

의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 등으로 2016년 9월중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인 39bp(9월 8일)로 하락하였다. 다만 11월중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향후 미국 경제정책 관련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외평채 및 은행의 CDS 프리미엄이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그림 III-7).

〈그림 III-7〉 CDS 프리미엄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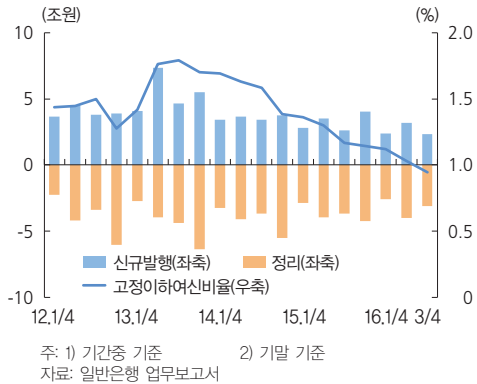
주: 1) 국민, 신한, 우리 및 KEB하나은행의 단순평균 기준, 외평채는 5년물 기준
 자료: Bloomberg

자산건전성 개선 지속

일반은행의 자산건전성은 2016년중 기업여신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신규 부실채권 감소,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 노력 등⁴⁾에 힘입어 개선 추세를 이어갔다. 2016년 3/4분기말 현재 일반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95%로 전년말 대비 0.20%포인트 하락하였다(그림 III-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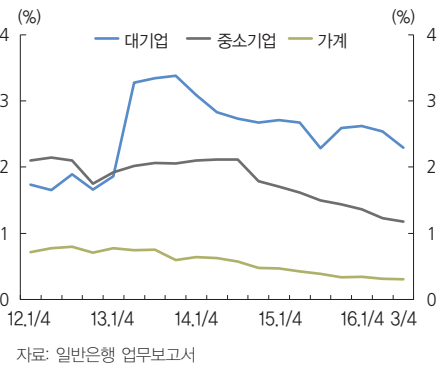
4) 2016년 들어 부실채권 정리 실적이 신규발생 규모를 상회하면서 부실채권 잔액은 전년말보다 1.8조원 감소하였다.

〈그림 Ⅲ- 8〉 부실채권 발생·정리 실적¹⁾ 및 고정이하여신비율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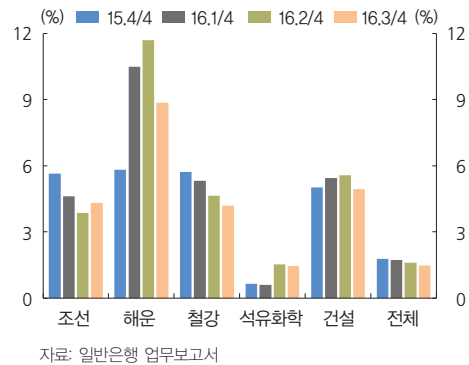
차주별 고정이하여신비율을 살펴보면 가계가 0.3%대의 낮은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대기업 및 중소기업 모두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 강화, 부실채권 정리 노력 등에 힘입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6년 3/4분기말 현재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각각 2.30% 및 1.17%로 전년말 대비 0.29%포인트 및 0.26%포인트 하락하였다(그림 Ⅲ-9).

〈그림 Ⅲ- 9〉 일반은행 차주별 고정이하여신비율



경기민감업종⁵⁾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을 보면 2016년 3/4분기말 현재 조선 및 철강이 각각 4.32% 및 4.20%로 전년말 대비 1.33%포인트 및 1.51%포인트 하락하였으나, 해운은 8.86%로 전년말 대비 3.03%포인트 상승하였다. 한편 2016년 3/4분기말 현재 경기민감업종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석유화학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체 업종의 평균(1.49%)을 크게 상회하였다(그림 Ⅲ-10).

〈그림 Ⅲ-10〉 일반은행 업종별 고정이하여신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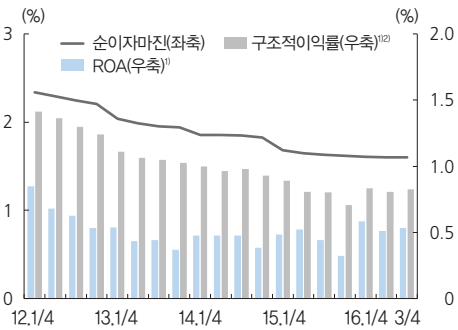
수익성 다소 회복

일반은행의 수익성은 2016년 들어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일반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2015년중 0.32%에서 2016년 1/4~3/4분기중 0.53%(연율 환산)로 상승하였다. 은행의 지속가능한 이익 창출능력을 나타내는 구조적 이익률도 같은 기간 0.71%에서 0.82%(연율 환산)로 높아졌다. 다만 구조적 이익률이 예년 수준(2011~15년 평균, 1.06%)을 하회하고 있는 데다 순이자마진도 2016년 2/4분기까지는 계속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그림 Ⅲ-11).⁶⁾

5)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건설 등 5대 업종을 의미한다.

6) 일반은행의 순이자마진은 2015년 4/4분기 1.62%에서 2016년 1/4분기 1.61%, 2/4분기 1.60%로 축소되었으며 이후 회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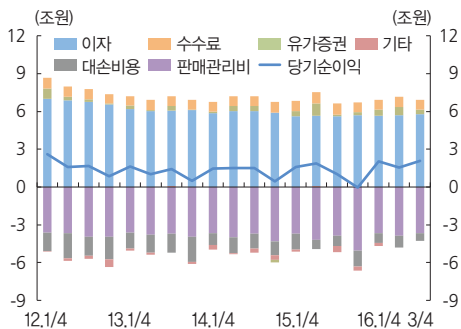
〈그림 III-11〉 일반은행 수익성 지표



주: 1) 누적 분기 실적을 연율로 환산
 2) (이자이익 + 수수료이익 + 신탁이익 - 운영경비)/총자산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일반은행의 수익성 개선은 가계대출 취급 확대에 따라 이자이익이 늘어난 가운데 신규 부실채권 감소로 대손비용도 줄어든 데 주로 기인하였다. 2016년 1/4~3/4분기중 일반은행의 이자이익은 17.1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3조원 늘어난 반면, 대손비용은 2.4조원으로 0.4조원 감소하였다. 일반은행의 당기순이익은 5.7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조원 증가하였다(그림 III-12).

〈그림 III-12〉 일반은행 당기순이익 증감요인¹⁾



주: 1) 기간중 기준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참고 7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의 의의 및 향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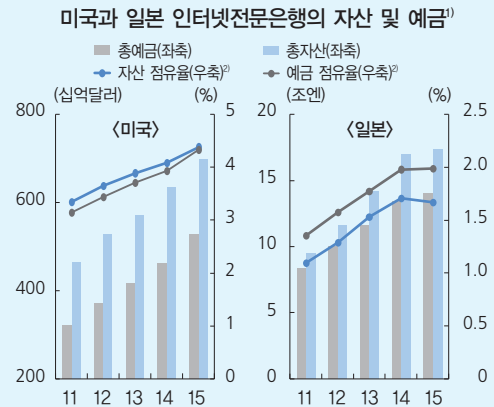
정부는 IT기술과 금융의 융합을 통한 금융 서비스 혁신 및 금융산업내 경쟁 촉진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¹⁾ 도입을 추진해 왔으며, 2016년말 현재 케이뱅크은행 및 한국카카오은행이 출범을 준비 중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보다 앞선 미국과 일본의 관련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의 의의 및 향후 과제를 점검해보았다.

(미국 및 일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사례)

1995년 10월에 세계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인 Security First Network Bank가 미국에서 설립된 이래 인터넷 및 모바일 기기의 대중화 등을 배경으로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활발하게 영업하고 있다. 특히 2015년에는 중국의 거대 IT기업인 알리바바와 텐센트도 각각 인터넷전문은행을 출범시키는 등 IT와 금융의 융합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2016년 현재 미국에서는 20개 이상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업 중이다. 이들 은행(주요 20개사 기준)의 자산과 예금이 미국 전체 부보 예금취급기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각각 4.4%와 4.3%(2015년말 기준)를 나타냈다. 일본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8개사 기준)의 자산과 예금이 전체 은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져 2016년 3월말 현재 각각 1.7%와 2.0%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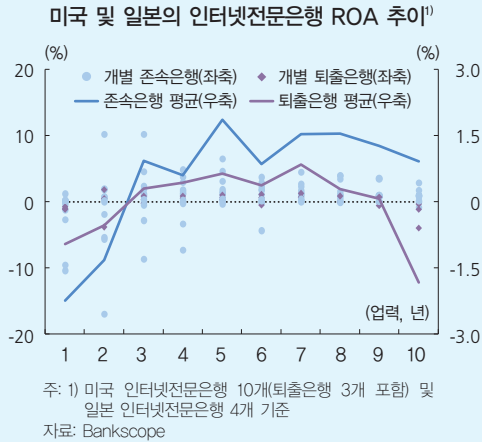
주: 1) 미국은 주요 20개 인터넷전문은행, 일본은 8개 인터넷전문은행, 회계연도말 기준
 2) 미국은 전체 부보 예금취급기관 대비, 일본은 전체 은행 대비
 자료: Bankscope, FDIC, 일본은행, 각 은행 연차보고서

미국과 일본의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체로 모회사의 고객을 기반으로 오토론, 카드론, 자산관리, 온라인결제 등 특정 부문에 특화하는 사업모델에 기초하여 성장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전자상거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IT 플랫폼을 활용한 사업모델²⁾이 부각되고 있다.

미국 및 일본의 경험을 보면 성공한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총자산순이익률(ROA)이 마이너스에서 0.4%~1% 수준으로 상승하는 데 통상 3년 이상이 소요³⁾되었다. 이는 수익기반 안정화를 위한 중장기 경영전략 마련과 함께 출범 초기에

1) 일반적으로 점포 없이 또는 소수의 영업점만을 두고 인터넷, 모바일, ATM 등 전자매체를 주된 영업채널로 활용하는 온라인 기반의 은행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은행법」 제8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할 것 등을 조건으로 인가한 은행으로 정의하고 있다(「은행업감독규정」 제102조).
 2)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에게 신용대출을 공여하거나 SNS를 활용하여 광고홍보비를 절감하는 등 IT 플랫폼은 고객과의 접점 확대 및 마케팅 역량 강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영업 지속을 위한 자본충실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경쟁력 있는 고유의 수익모델을 창출하지 못한 채 주로 예대마진에 의존해 온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수익성이 악화되어 퇴출된 사례⁴⁾도 나타나고 있다.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의 의의)

「은행법」상 은행에 해당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할 경우 1992년 평화은행의 출범 이후 24년만에 신규 은행이 진입하게 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무점포·소수인력에 기초한 저비용 구조, IT 기반의 다양한 금융 플랫폼 활용 등의 강점을 바탕으로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혁신적 기업문화와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은 기존 금융기관의 업무행태에 변화를 가져오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그간 기존 제도금융

권에서 소홀히 취급되어 왔던 소액 금융거래는 물론 특히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 신용대출 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온라인·비대면 거래를 기초로 다양한 측면에서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과제)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온라인 거래의 특성상 전산시스템의 오류, 해킹 등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운영리스크를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출범 초기에 은행업무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업무처리 미숙 등에 따른 평판리스크 발생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이 특화하려는 소액, 중금리·중신용 대출의 경우 차주에 대한 신용리스크 파악이 긴요한 만큼 빅데이터 분석 등을 포함한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신용평가 역량을 확보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IT산업과 접목된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IT기업의 전문역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이들 기업이 일정한 지분을 갖고 경영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⁵⁾ 한국은행도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한은금융망을 통한 지급결제업무 수행, 중앙은행에 대한 지급준비금 적립, 외국환업무 처리 등의 측면에서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3) 일본 8개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전환하는 데 영업개시 후 최소 2년에서 최대 9년이 소요되었다(자료: 각 은행 연차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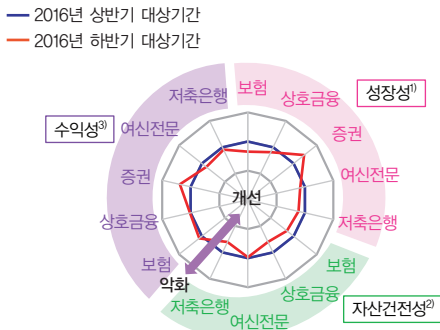
4) 1997년에 설립된 미국 Net Bank의 경우 고금리 예금을 통해 영업 초기에는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나, 핵심 역량 및 안정적 고객 기반을 갖추지 못한 데다 ATM 지급결제 서비스 등으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다가 수익성이 악화되어 2007년에 도산하였다.

5) 현재 IT기업 등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4%를 초과 보유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비금융주력자의 동 주식보유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 및 특별법 제정안이 20대 국회에 계류중이다.

2. 비은행금융기관

비은행금융기관은 저금리 지속과 인구 고령화 과정에서 고객자금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대부분의 업권에서 견조한 자산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자산건전성도 개선되었다. 다만 일부 업권에서는 수익률 추구를 현상이 강화되면서 위험자산 운용을 확대하고 있어 향후 관련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그림 III-13).

〈그림 III-13〉 비은행금융기관 경영건전성 상황 변화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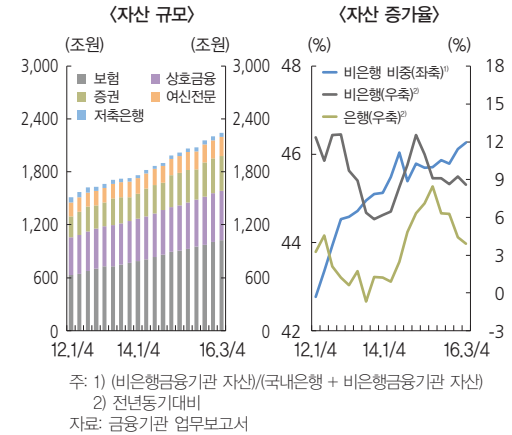
주: 1) 총자산 증가율, 2015년 10월~2016년 3월중 대비 2016년 4~9월의 변화 정도를 지수화
 2) 연체율, 2016년 1/4분기말 대비 2016년 3/4분기말 변화 정도를 지수화
 3) 총자산순이익률(ROA), 2015년 10월~2016년 3월중 대비 2016년 4~9월의 변화 정도를 지수화
 자료: 한국은행

견조한 자산 성장세 지속

2016년 3/4분기말 비은행금융기관의 자산 규모는 2,242조원으로 전년말(2,076조원) 대비 166조원 증가하였다. 총자산 증가율은 2016년 3/4분기말 8.6%(전년동기대비)로 일반은행의 총자산 증가율(3.9%)을 크게 상회하

였다. 이를 반영하여 금융권(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총자산에서 비은행금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말 45.9%에서 2016년 3/4분기말에는 46.3%로 0.4%포인트 상승하였다(그림 III-14).

〈그림 III-14〉 비은행금융기관 총자산 규모



업권별로 2016년 1/4~3/4분기중 평균 자산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을 살펴보면 보험회사(10.1%)의 경우 저축성보험 판매 둔화 등으로 전년동기중 증가율(12.2%)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⁷⁾

상호금융조합(6.7%)은 예탁금 비과세 등 유리한 수신여건, 은행권에 비해 낮은 규제수준 등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이 늘어나면서 평균 자산증가율이 전년동기(6.2%)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

증권회사의 경우 ELS 발행에 대한 규제⁸⁾ 등으로 파생결합증권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평균 자산증가율이 같은 기간중 20.3%에서 7.3%로 크게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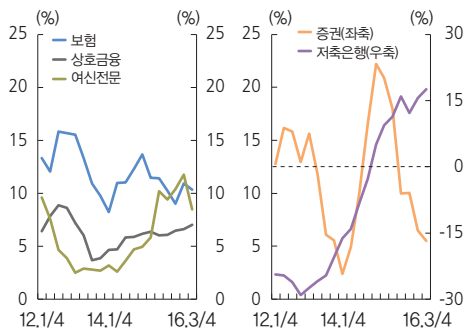
7) 2016년 1~9월중 보장성 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7.2% 증가한 반면 저축성 보험료는 전년동기 수준에 그쳤다.

8) 금융감독당국은 2015년 10월 HSC티지수 급락으로 동 지수와 연계한 주가연계증권(ELS)의 발행 규모를 원칙적으로 상한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신규 발행토록 자율합의를 유도하였다.

여신전문금융회사(10.2%)는 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에 따른 수익성 저하에 대응하여 카드 대출과 자동차 할부금융을 확대함에 따라 평균 자산증가율이 전년동기(7.0%)보다 높아졌다.

저축은행(15.1%)의 경우 구조조정⁹⁾ 이후 경영정상화에 따라 대출여력이 확대되면서 평균 자산증가율이 전년동기(8.6%)보다 상당폭 상승하였다(그림 III-15).

〈그림 III-15〉 비은행금융기관 업권별 총자산 증가율¹⁾



주: 1) 전년동기대비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자산건전성 개선세 지속

비은행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은 저금리에 따른 차주의 채무상환부담 완화,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노력 등으로 연체율 및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하락하는 등 개선세가 이어졌다.

업권별로 보면 보험회사의 대출자산 연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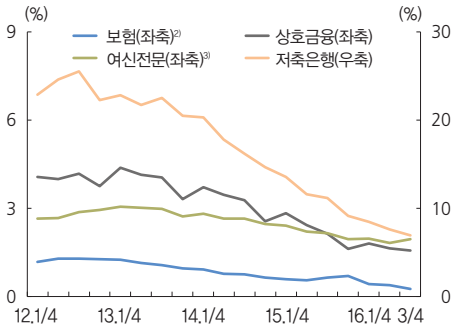
이 2015년말 0.7%에서 2016년 3/4분기말에는 0.3%로 하락(0.4%포인트)하였으며, 고정이하 여신비율도 같은 기간 중 0.4%에서 0.3%로 소폭 하락하였다. 다만 고LTV(60% 초과)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상승하고 있어 최근의 시장금리 상승 압력 등과 함께 부실채권 발생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¹⁰⁾

같은 기간중 상호금융조합 연체율은 1.6% 수준을 유지하였고,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7%에서 1.6%로 소폭 하락하였다. 다만 가계대출 급증 과정에서 저소득 취약차주 비중이 증가하고 고LTV 주택담보대출 비중¹¹⁾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관련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¹²⁾

여신전문금융회사 연체율은 같은 기간중 1.9%에서 2.0%로 소폭 상승하였으며,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7% 수준을 유지하였다. 저축은행 연체율은 같은 기간중 9.1%에서 6.9%로,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0.1%에서 7.9%로 낮아졌다. 다만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 모두 고금리 대출(카드론 및 신용대출)이 빠르게 증가¹³⁾하고 있어 향후 차주의 상환능력 저하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그림 III-16, III-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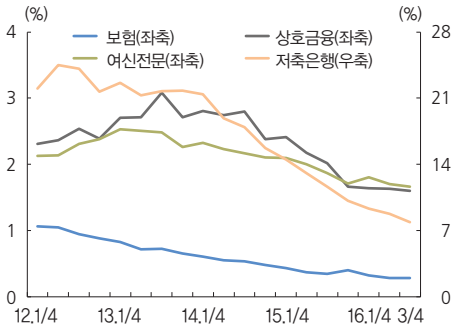
9) 감독당국은 2010년말부터 저축은행의 부동산PF 대출 부실이 심화됨에 따라 저축은행의 매각 및 부실자산 정리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수는 2010년말 105개에서 2016년 9월말 현재 79개로 감소하였다.
10) 생명보험회사의 고LTV(60%초과)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2016년 9월말 현재 11.3조원으로 전체 주택담보대출(24.1조원) 대비 47.0%로 2015년말(43.0%)보다 4.0%포인트 높아졌다.
11) 저소득(연소득 3천만원 미만) 차주의 비중은 2013년말 27.4%에서 2016년 9월말 32.3%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자료: NICE). 고LTV(60%초과)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2016년 3/4분기말 66.4%(3개 조합 기준)로 국내은행의 36.2%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12)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당국은 2016년 10월부터 상가·토지 등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의 LTV 기준을 강화(총한도 80% → 70%)하였고, 주택담보대출 차주에 대한 상환능력 심사 강화와 분할상환 유도를 내용으로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2017년에 시행할 예정이다.
13)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카드론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2016년 9월말 11.6%로 전년말(13.1%)보다 소폭 하락하였지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증가율은 2016년 9월말 32.5%로 전년말(18.4%)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Ⅲ-16〉 비은행금융기관 업권별 연체율¹⁾



주: 1) 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상호금융 및 저축은행은 1월이상 원금 연체 기준) 2) 보험약관대출 제외
3) 카드(판매신용 제외)· 할부· 리스자산 포함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그림 Ⅲ-17〉 비은행금융기관 업권별 고정이하여신비율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수익성 대체로 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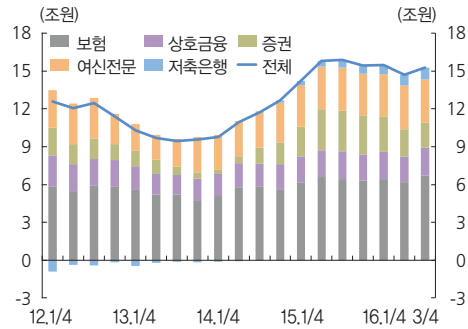
비은행금융기관의 수익성은 2016년 들어 저축은행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보험회사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2015년 0.69%에서 2016년 1/4~3/4분기 중에는 0.68%(연율 기준)로 소폭 하락하였다.¹⁴⁾ 같은 기간중 상호금융조합의 총자산순이익률은 0.40% 수준을 유지하였다.

한편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금리의 추가 하락이 제한된 데 따른 채권 매각 및 평가 이익 축소 등으로 같은 기간중 총자산순이익률이 0.93%에서 0.55%로 상당폭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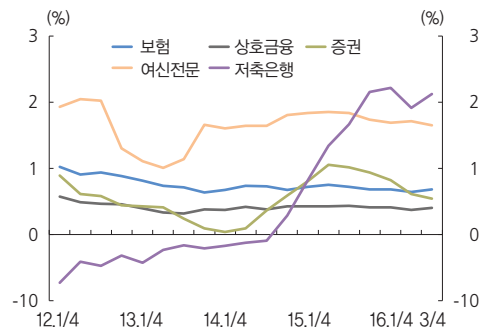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총자산순이익률은 같은 기간중 1.74%에서 1.65%로 낮아졌다. 저축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은 같은 기간중 2.15%에서 2.04%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다른 업권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그림 Ⅲ-18, Ⅲ-19).

〈그림 Ⅲ-18〉 비은행금융기관 당기순이익¹⁾



주: 1) 당분기 포함 과거 1년간 누적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그림 Ⅲ-19〉 비은행금융기관 총자산순이익률(ROA)¹⁾



주: 1) 과거 1년간 당기순이익/과거 1년간 총자산 평잔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14) 2016년 1/4~3/4분기 평균 ROA(=당분기 포함 과거 1년간 당기순이익/과거 1년간 총자산 평잔)를 2015년 ROA와 비교하였다.

참고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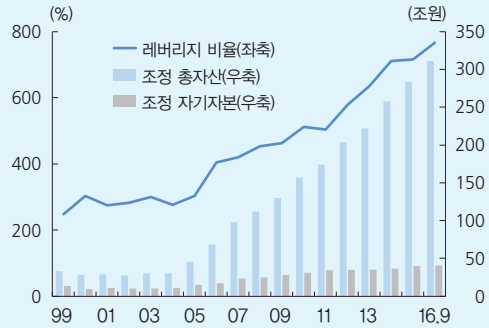
증권회사 레버리지 규제 도입의 영향

(레버리지 규제 도입 배경 및 내용)

금융감독당국은 2014년 11월 증권회사에 대한 레버리지 비율 규제¹⁾를 도입하고 2016년 1월부터 시행한 바 있다. 동 비율규제는 현재 경영개선 권고 등의 기준으로도 활용되고 있다.²⁾

이와 같이 감독당국이 레버리지 비율을 도입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증권회사들³⁾이 ELS 등 파생결합증권과 대고객 RP 등 외부차입⁴⁾을 적극적으로 늘리면서 레버리지를 크게 확대하여 왔기 때문이다. 증권회사 자기자본은 2005년말 14.5조원에서 2014년말 34.5조원으로 2.4배 증가한 데 비해 같은 기간 총자산은 44.7조원에서 253.9조원으로 5.7배 늘어났다. 이에 따라 레버리지 비율은 2005년말 311.6%에서 2014년말 735.1%로 큰 폭 상승하였다.⁵⁾

증권회사 레버리지 비율 추이¹⁾



주: 1) 2015년 이전은 재무상태표의 총자산, 자기자본, 투자자예수금, 미수금 등을 이용하여 추정
자료: 금융감독원

(레버리지 규제 도입의 영향)

규제 도입 발표(2014년 11월) 이후의 증권회사 레버리지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2014년말 735.1%에서 2015년말 729.6%로 소폭 낮아졌다가 규제 시행 이후인 2016년 3/4분기말에는 772.7%로 다시 높아졌다. 이러한 변화는 고레버리지 비율(800% 이상)⁶⁾ 증권회사의 경우에도

1) 레버리지 비율 = $\frac{\text{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 - \text{차감항목}^*}{\text{재무상태표상 자기자본} - \text{대손준비금}}$

* 투자자예수금, 증금계정 자산, 대손준비금, 장내위탁 및 장외채권거래 관련 미수금 등

2) 레버리지 비율과 관련한 적기시정조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경영개선권고	레버리지 비율 1,100% 초과(단, 2년 연속 당기순손실시 900%)
경영개선요구	레버리지 비율 1,300% 초과(단, 2년 연속 당기순손실시 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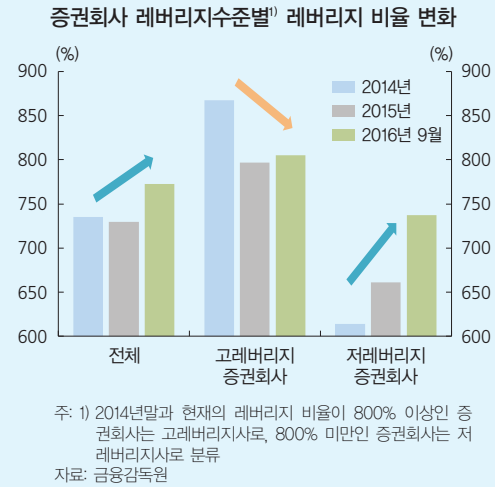
3) 동 규제가 파생결합증권 등에 미친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증권회사(25개사) 중 장외파생상품 관련 인가취득 증권회사 21개사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4)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은 2010년말 25.5조원에서 2016년 9월말 97.4조원으로, 대고객 RP는 44.5조원에서 72.1조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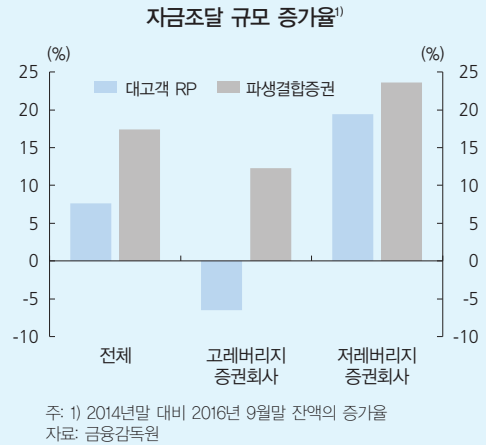
5)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글로벌 증권회사들의 레버리지 비율은 금융위기 직전 2,000%에 달하였으나, 위기이후에는 부채 축소 등으로 2015년말 1,000% 수준으로 크게 하락하였다. 골드만삭스가 2007년말 1,737%에서 2015년말 988%로, 모건스탠리가 1,943%에서 1,034%로 하락하였다.

6) 2년 연속 당기순손실시 경영개선권고의 레버리지 비율 기준이 900% 이상인 점을 감안하여 2014년말과 2016년 9월말 모두 800% 이상인 증권회사를 고레버리지사로, 800% 미만인 증권회사를 저레버리지사로 분류하였다.

비슷하게 나타났다(같은 기간중 867.2% → 796.8% → 805.5%). 이에 비해 저레버리지 비율 증권회사의 동 비율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613.9% → 661.0% → 737.3%).



한편 규제시행 전후의 증권회사별 레버리지 비율 차이는 자금조달수단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 외형확대가 제한되는 고레버리지는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높은 ELS 등 파생결합증권 중심으로 발행을 확대하였다. 반면 외형확대의 여력이 있는 저레버리지는 파생결합증권 및 대고객 RP를 모두 확대하는 모습이다. 결과적으로 증권회사 레버리지 비율 규제 도입은 기존 고레버리지의 레버리지 비율을 하락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 반면 자금조달 측면에서 고객의 수익을 추구 강화와 맞물려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ELS 등 파생결합증권의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파생결합증권은 주로 가격 변동성이 높은 다수의 해외 기초자산과 연계되어 있어⁷⁾, 국제금융 시장의 여건 변화시 헤지비용 손실이 확대됨으로써 증권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증권회사는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금융감독당국도 2016년 11월 「파생상품시장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파생결합증권 관련 리스크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⁸⁾

7) 예를 들어 파생결합증권의 68.4%를 차지하는 ELS 기초자산 중 해외 주가지수 비중(복수기준)은 2016년 9월말 현재 Eurostoxx50, HSC티지수, S&P500이 각각 60.5%, 48.4%, 31.6%를 차지하고 있다.

8) 금융감독당국은 ELS 등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파생상품시장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였다(2016.11.23).

참고 9

보험부채 시가평가제 도입의 영향

2021년부터 보험부채(책임준비금¹⁾) 시가(market value) 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부문 국제회계기준(IFRS17²⁾)이 도입될 예정이다.³⁾ 현재 보험회사의 경우 자산은 시가로 평가되는 반면 부채는 원가(historical cost)로 평가되고 있어 자산-부채 간 평가방식이 상이하다. 부채 시가평가제가 도입되면 부채를 매 결산 시점의 시장금리가 반영된 할인율로 재평가함으로써 자산·부채 관리(Asset Liability Management)를 강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가평가 시 시장금리가 이전 평가 시점보다 낮아지면(높아지면) 부채 규모는 늘어난다(줄어든다).

보험회사의 부채에 대한 시가평가제 적용에는 많은 기간이 남아 있지만 개별 보험회사에게는 동 규제 강화가 현안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부채의 만기가 여타 금융권에 비해 상당히 길어 시장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할인율(시장금리)을 적용한 부채규모의 변동 폭이 매우 크고 이로 인해 경영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보험상품

별로 만기 및 특약조건 등에 따라 적용할인율이 모두 달라 시가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상품 만기가 대부분 장기(20년 이상 67%)이고 과거 고금리 시기에 판매한 금리확정형(3% 이상 68%) 상품의 비중도 높아 시가평가 시 부채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가평가에 따른 부채의 증가규모는 적용 할인율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가운데 평가 대상 부채 및 추정시점 등에 따라라도 달라질 수 있다.

2016년 9월 현재의 부채규모가 2021년까지 유지되고 할인율이 국고채 수익률(5년)에 유동성 프리미엄 등을 더한 수준이라고 가정할 경우 시가평가제 도입에 따른 부채 증가 규모(생명보험 회사 기준)는 23~33조원으로 추정된다.⁴⁾ 이는 2016년 9월말 현재 부채규모(537.5조원)의 4.3~6.1% 수준이다.

1) 보험부채는 대차대조표상 책임준비금을 의미한다. 책임준비금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적절한 보험료적립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2016년 9월말 현재 책임준비금(537.5조원)은 보험료적립금 96.3%(517.5조원), 지급준비금(2.2%), 미경과 보험료적립금(0.03%)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2016년 11월 8일에 보험부문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의 공식명칭을 IFRS17로 확정하였다.

3) 2021년 시행일정은 2017년 상반기로 예정된 IFRS17 최종기준서 확정과 이후 3년의 유예기간을 전제로 하고 있다. IFRS17은 보험부채 시가평가 이외에 수익인식 방식 변경(이익 조기 인식 → 이익 지연 인식), 비용인식 변경(신계약비 전액 이연 → 해당기간 신계약비 분할 이연) 등을 포함한다.

4) 금융감독원이 발표(2016년 7월)한 할인율 시나리오 중 국고채(5년) 금리와 만기 및 유동성 프리미엄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시산한 추정치(2016년 9월 기준)를 최소치로, 국고채(5년) 금리만 반영한 보험연구원의 추정치(2016년 3월 기준)를 최대치로 각각 제시하였다. 도입 시점의 할인율 수준 및 보험계약 소멸 등에 따라 부채규모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생명보험회사의 부채 만기대별·금리대별 현황¹⁾

(조원, %)

약정이율	원가	(비중)	보험만기	원가	(비중)
■ 3% 미만	167.9	(32)	■ 5년 미만	50.3	(10)
■ 3~5%	195.0	(38)	■ 5~10년	65.4	(13)
■ 5~7%	61.0	(12)	■ 10~15년	25.5	(5)
■ 7~9%	92.8	(18)	■ 15~20년	30.4	(6)
■ 9% 이상	0.8	(0)	■ 20년 이상	345.9	(66)
합계 ²⁾	517.5	(100)	합계	517.5	(100)

주: 1) 2016년 9월말 생명보험회사 기준

2) 보험료적립금 기준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시가평가제의 도입으로 인해 부채가 증가할 경우 보험회사의 수익성, 자본적정성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채 증가분만큼 책임준비금 전입액이 늘어나면서 보험영업손실액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이익잉여금 등의 가용자본이 감소하는데 이는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RBC, Risk-Based Capital Ratio)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수준의 RBC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자본적립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도입시점에 보험회사의 자본적립 부담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감독당국은 후순위채 발행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노력⁵⁾을 지속하는 한편 시가평가방식에 준하는 부채 적정성 평가(LAT, Liabilities Adequacy Test)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보험회사의 선제적 자본확충을 유도하는 등 부채 시가평가제 도입의 충격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

러 등 제도 도입 시까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⁶⁾ 및 영업행태⁷⁾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정책당국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생명보험회사의 손익¹⁾구조

(조원)

	2011.9	2013.9	2015.9	2016.9
■ 보험영업손익(A=B-C)	-17.0	-19.2	-20.7	-21.5
· 보험손익(B)	20.4	27.4	21.6	22.0
· 책임준비금전입액(C)	37.4	46.6	42.3	43.5
■ 투자손익(D)	18.4	19.8	22.8	21.6
■ 영업이익(A+D)	1.4	0.6	2.1	0.1

주: 1) 과거 1년 기준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생명보험회사의 RBC 구성내역

(조원, %)

	2009말	2012말	2015말	2016.9말
■ 가용자본(A)	35.6	57.8	73.5	89.0
· 자본금	7.2	8.7	10.2	10.2
· 이익잉여금	12.3	19.6	27.1	29.4
■ 요구자본(B)	16.5	17.5	26.4	29.6
■ RBC비율(A/B)	215.5	331.0	278.3	300.5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5) 금융감독당국은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등 보험회사의 보완자본 발행요건으로 종전에는 RBC비율이 150% 미만인 경우 발행을 허가하였으나 2016년 3월부터는 RBC비율 악화 우려 시에도 발행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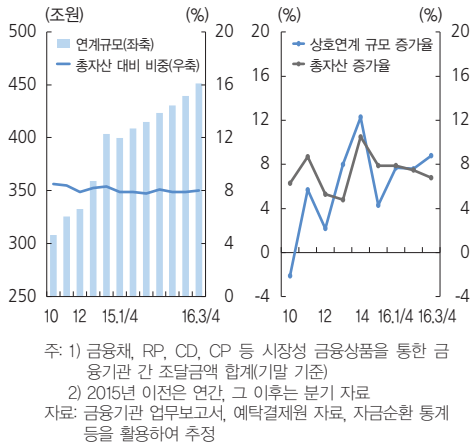
6) 자산운용의 경우 장기물 채권투자 확대 등 포트폴리오 조정 가능성이 있다. 낮은 할인을 적용으로 보험부채 듀레이션이 길어져 자산-부채 듀레이션의 마이너스 갭이 확대되면 시장금리 하락시 이자손실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6년 9월 현재 자산-부채 듀레이션 갭은 -0.3년으로 부채듀레이션(6.7년)이 자산듀레이션(6.4년)보다 길다.

7) 영업행태 면에서는 약정이율이 시장금리에 연동되는 금리연동형 상품판매를 확대할 수 있다. 2016년 9월말 현재 금리연동형 상품과 금리확정형 상품비중은 각각 58%, 42%이다.

3. 상호연계성

금년 들어 금융권의 자산·부채 상호연계 규모¹⁵⁾의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2016년 3/4분기 말 현재 상호연계 규모는 451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8% 늘어나 금융권 전체의 총자산 증가율을 상회(6.8%)하였다. 이는 기업의 신용리스크가 높아지면서 금융기관들이 회사채 대신 신용도가 높은 은행채의 보유를 늘린 데 주로 기인한다. 다만 금융권 총자산 중 상호연계 규모 비중은 2016년 3/4분기말 현재 8.0%로 2010년 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그림 III-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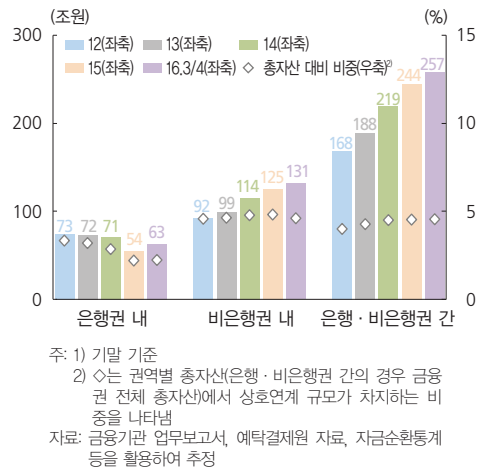
〈그림 III-20〉 금융기관 상호연계 규모¹²⁾ 및 증가율



금융권역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내 연계규모는 증가세가 미미한 반면 비은행권 내 및 은행-비은행권 간 연계규모는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16년 3/4분기말 현재 은행권 내 연계규모는 63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조

원 증가하였으나, 비은행권 내 및 은행-비은행권 간 연계규모는 각각 131조원 및 257조원으로 11조원 및 24조원 늘어났다. 비은행권 내 연계규모 증가는 자산운용회사의 여신전문금융회사채 운용 확대에, 은행-비은행 간 연계규모 증가는 은행의 증권회사 RP매입 증가, 자산운용회사의 은행채 보유 확대 등에 기인한다. 한편 금융권 전체의 연계규모(451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은행-비은행권 간(57.0%), 비은행권 내(29.0%), 은행권 내(14.0%) 순으로 높다(그림 III-21).

〈그림 III-21〉 금융권역별 연계규모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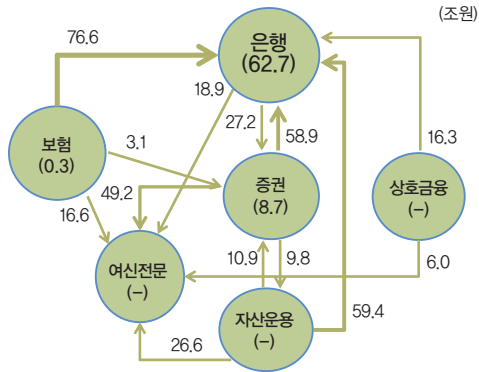


2016년 3/4분기말 현재 금융권역 간 자금운용 현황을 보면 은행권에서는 비은행권역에 대한 운용규모가 46조원(증권 27조원, 여신전문금융회사 19조원)으로 업권내 운용규모(63조원)에 비해 작았다. 비은행권에서는 은행권에 대한 운용규모가 211조원(보험 77조원, 증권 59조원, 자산운용 59조원 등)으로 여타 비은행

15) 금융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금융채, RP, CD, CP 등 시장성 금융상품을 통한 금융기관 간 조달금액 합계를 의미한다. 파생금융상품 거래, 지급보증 등 부외 항목을 통한 금융기관 간 거래는 자료 입수가 어려워 상호연계 규모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한편 은행 시스템내 상호연계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안정 현안 분석> 「III. 은행시스템 상호연계성 분석 및 횡단면 시스템 리스크 측정」(114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권역에 대한 운용규모(131조원)보다 컸다. 한편 비은행권 내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운용규모가 98조원(증권 49조원, 자산운용 27조원 등)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그림 III-22).

〈그림 III-22〉 금융기관 간 상호연계 현황¹⁾²⁾³⁾



- 주: 1) 2016년 3/4분기말 기준
 2) ()내는 업권내 상호연계 규모
 3) 화살표(A→B)는 시장성 금융상품(금융채, RP, CD, CP 등)을 통해 A에서 B로 자금이 이동하는 것을 나타냄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예탁결제원 자료, 자금순환통계 등을 활용하여 추정

IV. 자본유출입

2016년 들어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등으로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은 예년 수준의 변동성을 지속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경상수지 흑자 지속, 상당한 규모의 외환보유액, 높은 국가신인도 등 우리 경제의 양호한 기초여건이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급격한 유출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주로 선진국 중심의 우량 채권 및 주식 비중이 높아 국제금융시장의 충격 발생 시 투자자금 손실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국내증권투자자금 유출입은 예년 수준의 변동성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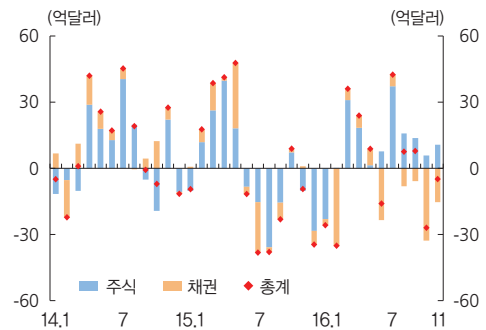
2016년 1~11월중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자금은 17억달러(주식 118억달러, 채권 -101억달러) 순유입되었다.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은 대체로 순유입세를 나타낸 반면 채권투자자금은 순유출입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은 2016년 2월 이후 주요국 통화정책 완화 지속 기대감 등으로 국내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순유입을 지속하였으나 하반기 이후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 결과, 미국 신 행정부의 경제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 증대 등의 과정에서 순유입 규모가 점차 축소되었다.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은 6월중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를 전후로 글로벌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악화되면서 순유출을 나타내었으나 7월

들어서는 불안심리가 완화되면서 소폭 순유입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8월 이후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 부각, 국내 기준금리 인하 기대 약화,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조정 등으로 재차 순유출로 전환되었으며 그 규모도 대체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그림 IV-1).

〈그림 IV-1〉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증감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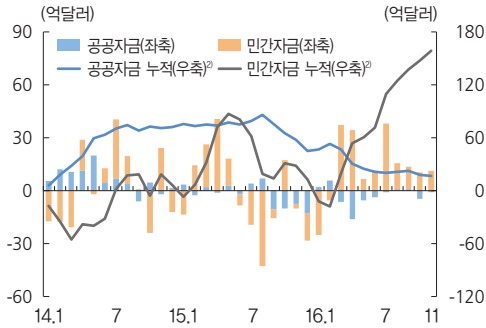


주: 1) '+'는 순유입, '-'는 순유출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투자주체별로 보면, 2016년중 민간의 주식투자자금 유입세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여타 투자자금은 하반기 이후 순유출을 나타내었다. 중앙은행, 국부펀드 등 공공자금의 주식투자자금이 대체로 순유출을 지속하였으며, 채권투자자금은 10월 들어 일부 중앙은행의 보유채권 만기도래 전 매도로 순유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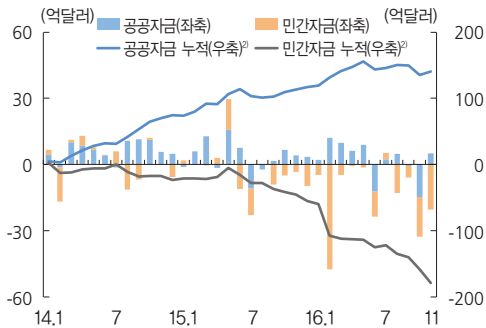
민간자금의 경우 주식투자자금은 유입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9월 이후 순유입 규모가 점차 축소되었으며, 채권투자자금은 10월 들어 일부 글로벌 펀드가 보유채권을 매도하면서 큰 폭의 순유출을 나타내었다(그림 IV-2, IV-3).

〈그림 IV- 2〉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부문별 증감¹⁾



주: 1) '↑'는 순유입, '↓'는 순유출을 의미
 2) 2014년 1월 이후 월별 순유입액의 누적 합계
 자료: 한국은행

〈그림 IV- 3〉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의 부문별 증감¹⁾



주: 1) '↑'는 순유입, '↓'는 순유출을 의미
 2) 2014년 1월 이후 월별 순유입액의 누적 합계
 자료: 한국은행

2016년 11월말 현재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잔액은 469.9조원으로 시가총액의 31.6%를 차지하고 있다. 동 비중은 전년말(28.5%)보다 3.1%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11월말 외국인 채권투자자금 잔액은 89.8조원으로 전체 발행잔액¹⁾의 5.2%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전년말(6.1%)보다 0.9%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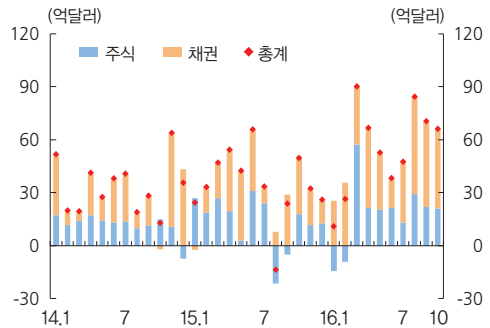
앞으로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은 국내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신 행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영국의 EU탈퇴 협상

경과, 국제유가 등락에 따른 신흥시장국 경제 불안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국내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거주자 해외증권투자 큰 폭 증가

2016년 9월말 현재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잔액은 2,909억달러²⁾로 전년말 대비 550억달러 증가하였다. 저금리 기초,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등을 배경으로 2012년 이후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거주자 주식 및 채권 투자자금 모두 2016년 6~7월중 증가세가 소폭 둔화되었으나 8월 이후 증가세가 재차 확대되었다(그림 IV-4).

〈그림 IV- 4〉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증감¹⁾



주: 1) '↑'는 순투자, '↓'는 순회수를 의미
 자료: 한국은행

투자주체별로 보면, 국민연금 등 일반정부와 자산운용사가 해외주식을 중심으로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는 대규모 해외채권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회사의 해외채권투자 증가세는 가계 금융자

1) 한국예탁결제원 예탁잔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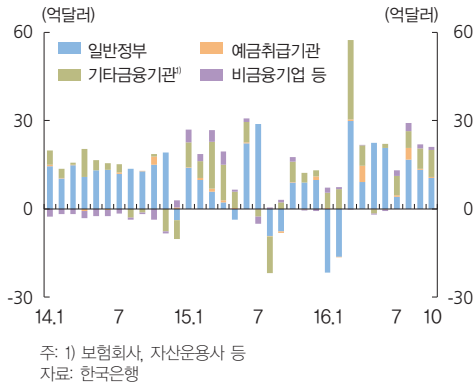
2) 잔액은 국제투자대조표 기준(증감액은 국제수지통계 기준)으로 매 시점별 주식 및 채권가치 변동이 반영된 금액이다.

산 증가, 노후준비 등의 영향으로 보험수신이 꾸준히 늘어난 반면 주요 투자대상인 국내 우량 장기채권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데 주로 기인한다. 이에 더해 한·미 국제수익률(10년물 기준) 역전 등의 영향으로 보험회사의 해외 고수익 채권에 대한 투자 유인 증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그림 IV-5, IV-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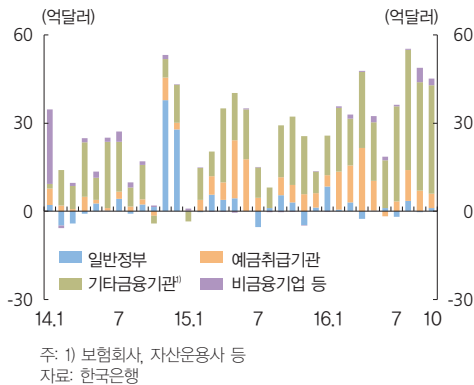
앞으로도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비중 확대 계획³⁾, 보험사의 수신규모 증가 및 IFRS17⁴⁾ 시행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는 주로 선진국 중심의 우량 채권 및 주식 비중이 높으며, 외환 시장의 균형을 도모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해외증권투자의 경우 가격변동 리스크뿐만 아니라 환율변동 리스크에도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림 IV-5〉 거주자 해외 주식투자자금의 투자주체별 증감



〈그림 IV-6〉 거주자 해외 채권투자자금의 투자주체별 증감



3) 보건복지부의 중기(2017~21년) 자산배분 계획에 따라 국민연금은 해외투자 비중을 2015년말 24.3%에서 2021년말 35% 이상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중기(2017~21년) 자산배분 계획

(%)

	주식	채권		대체		
		해외	해외	해외	해외	
2015년말	32.3	13.7	57.1	4.3	10.7	6.3
2021년말	45% 내외	25% 내외	45% 내외	5% 내외	10% 이상	5% 이상

4) 보험회사의 부채 평가방식이 장부가에서 시가로 변경될 경우 과거 보험사의 고금리 확정형 상품의 보험부채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보험회사는 금리변동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장기 해외자산 투자를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복원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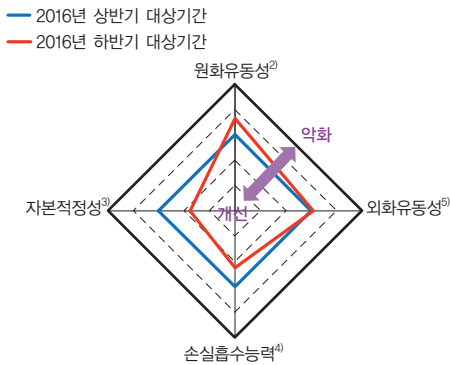
I. 금융기관	69
II. 대외지급능력	82
III. 금융시장 인프라	85

1. 금융기관

1. 은행

2016년 들어 일반은행의 유동성 비율이 소폭 하락하였으나 모든 은행들이 규제기준을 크게 상회하였으며 대손충당금적립비율 및 자기자본비율도 상승세를 이어갔다.¹⁾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대내외 충격을 감내할 수 있는 일반은행의 복원력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압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그림 I-1).

〈그림 I-1〉 일반은행 복원력 지표 변화 지도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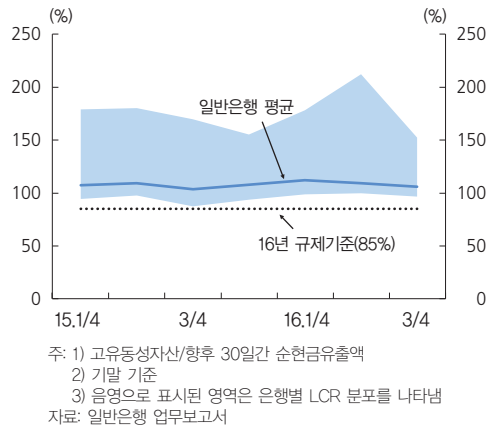


주: 1) 2016년 1/4분기말 대비 2016년 3/4분기말 변화 정도를 지수화
 2)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3) BIS기준 총자기자본비율
 4) 대손충당금적립비율 5) 외화유동성비율
 자료: 한국은행

유동성 상황 양호

급격한 자금 유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일반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2016년 3/4분기말 현재 일반은행의 LCR은 106.2%로 전년말(107.9%) 대비 소폭(1.7%포인트) 하락하였다.²⁾ 은행별로 보면 모든 은행들이 2016년 규제기준(85%)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은행들이 이미 2019년 적용 예정인 규제기준비율³⁾ 100%를 충족하였다(그림 I-2).

〈그림 I-2〉 일반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¹⁾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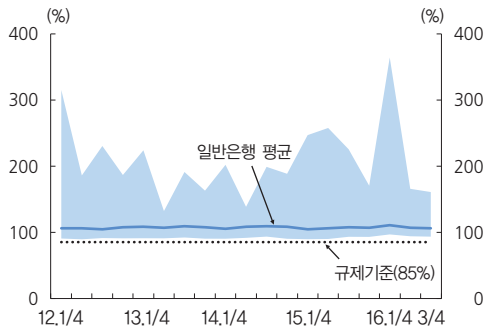


주: 1) 고유동성자산/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
 2) 기말 기준
 3) 음영으로 표시된 영역은 은행별 LCR 분포를 나타냄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일반은행의 외화유동성비율은 2016년 3/4분기말 현재 105.8%로 전년말(106.7%) 대비 0.9%포인트 하락하였다. 은행별로 보면 모든 은행들의 외화유동성비율이 규제기준(85%)을 상회하였다(그림 I-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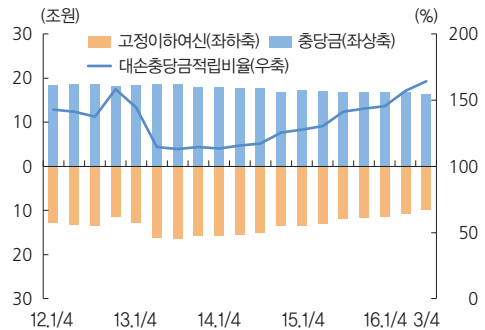
1) 특수은행은 취약업종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복원력 지표가 일반은행에 비해 저조한 상황이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 10〉 「특수은행의 경영건전성」(72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2) 이는 고유동성자산이 2.3조원 감소한 가운데 이탈률이 높은 도매자금조달 증가 등으로 순현금유출가능액이 5.4조원 증가한 데 기인한다.
 3) 바젤Ⅲ 규제의 단계적 이행에 따라 LCR은 2016년 85%에서 2019년 100%로 상향 조정된다.

〈그림 I-3〉 일반은행 외화유동성비율¹⁾²⁾³⁾



주: 1)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자산/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부채
 2) 기말 기준
 3) 음영으로 표시된 영역은 은행별 외화유동성비율 분포를 나타냄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그림 I-4〉 일반은행 대손충당금적립비율¹⁾ 및 변동 요인²⁾



주: 1)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 포함)/고정이하여신
 2) 기말 기준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대손충당금적립비율 상승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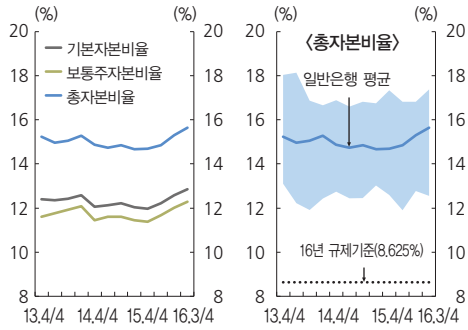
예상손실에 대한 충격흡수능력을 나타내는 일반은행의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2016년 들어서도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2016년 3/4분기 말 현재 일반은행의 고정이하여신 대비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164.2%로 전년말(143.7%) 대비 20.5%포인트 상승하였다. 이는 은행들이 부실채권 매각·상각 노력을 강화해 온 데다 향후 추가 부실여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대손충당금을 감독기준 상 요구액 이상으로 적립하고 있는 데 기인한다(그림 I-4).

자본적정성 제고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한 충격흡수능력을 나타내는 일반은행의 자기자본비율도 2015년 4/4분기 이후 상승세를 보였다. 2016년 3/4분기 말 현재 일반은행의 바젤Ⅲ 기준 총자본비율은 15.64%로 전년말 대비 0.95%포인트 상승하였다. 은행별로 보면 모든 은행의 총자본비율이 2016년 규제기준(8.625%, D-SIB⁴⁾ 8.875%)은 물론 2019년부터 적용 예정인 규제기준⁵⁾(10.5%, D-SIB 11.5%)을 크게 상회하였다. 일반은행의 핵심자본인 보통주자본비율은 12.28%로 전년말 대비 0.91%포인트 상승하였다(그림 I-5).

4) 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으로 KEB하나, 신한, 국민, 농협, 우리, 제주은행이 이에 해당한다.
 5) 바젤Ⅲ 규제의 단계적 이행에 따라 총자본비율은 2015년 8%에서 2019년 10.5%(D-SIB는 11.5%)로 상향 조정된다. 한편 기본자본비율은 6%에서 8.5%(D-SIB는 9.5%), 보통주자본비율은 4.5%에서 7%(D-SIB는 8%)로 조정된다. 2016년 규제기준은 총자본비율 8.625%(D-SIB는 8.875%), 기본자본비율 6.625%(D-SIB는 6.875%), 보통주자본비율 5.125%(D-SIB는 5.375%)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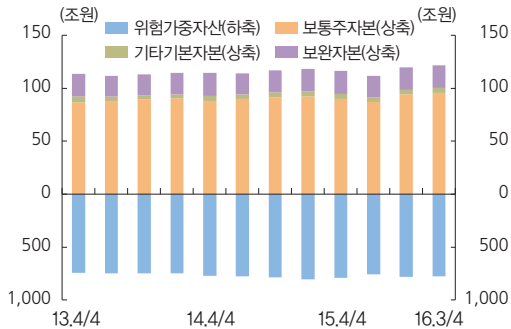
〈그림 1-5〉 일반은행 바젤Ⅲ 기준 자본비율¹⁾²⁾³⁾



주: 1) 기말 기준
 2) 2016년 규제비율: 보통주자본비율 5.125%, 기본자본비율 6.625%, 총자본비율 8.625%
 3) 음영으로 표시된 영역은 은행별 총자본비율 분포를 나타냄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이와 같이 2016년 들어 일반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상승한 것은 대기업에 대한 여신한도 축소 등으로 위험가중자산이 줄어든 가운데 이익잉여금 증가, 조건부자본증권 발행⁶⁾ 등으로 자본이 늘어난 데 기인한다(그림 1-6).

〈그림 1-6〉 자기자본비율 변동 요인¹⁾



주: 1) 기말 기준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6) 2016년 1/4~3/4분기중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액은 2.5조원으로 동 기간중 총자본 증가규모의 36.7%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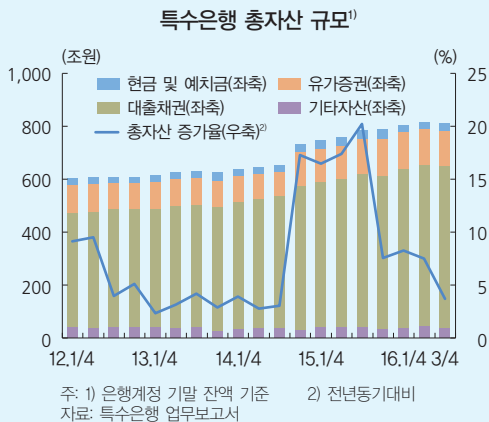
참고 10

특수은행의 경영건전성

특수은행은 2016년 들어 총자산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취약업종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자산건전성 및 수익성이 악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유동성비율과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이 높아지고 정부출자 등에 힘입어 자기자본비율도 상승하는 등 복원력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자기자본비율이 일반은행에 비해 여전히 낮은 데다 향후 취약업종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본적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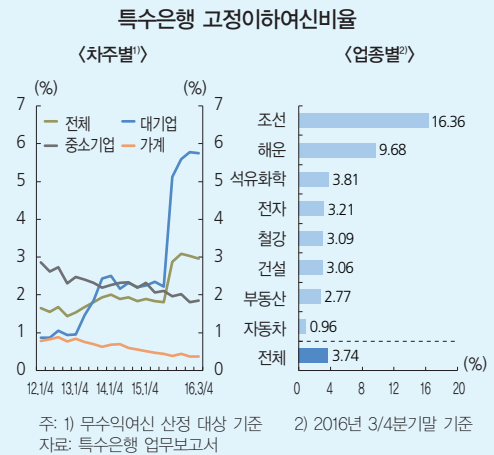
(성장성)

총자산(은행계정 기준)은 2016년 들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총자산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2015년 3/4분기 20.2%에 달한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하여 2016년 3/4분기에는 3.8%를 기록하였다.



(자산건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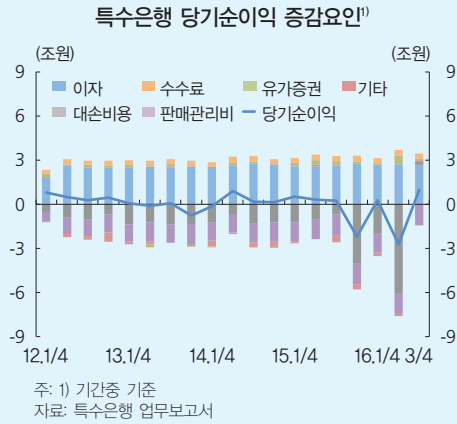
자산건전성도 악화되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16년 3/4분기말 현재 2.95%로 전년말 대비 0.08%포인트 상승하였다. 차주별로는 가계 및 중소기업이 하락한 반면 대기업은 취약업종 대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 등의 영향으로 2016년 3/4분기말 현재 5.75%로 전년말 대비 0.63%포인트 상승하였다. 업종별로는 2016년 3/4분기말 현재 조선 및 해운업이 각각 16.4%, 9.7%로 전체 업종 평균(3.7%)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수익성)

수익성도 악화되었다. 특수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2015년중 -0.14%에서 2016년 1/4~3/4분기중 -0.23%(연율 환산)로 하락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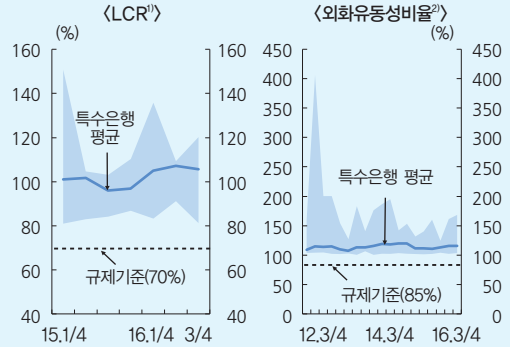
다. 이는 대기업 여신 등에 대한 대손비용이 크게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한다.



(유동성)

유동성비율은 2016년 들어 상승하였다. 2016년 3/4분기말 현재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105.6%로 전년말 대비 8.8%포인트 상승하였다. 은행별로 보면 모든 은행이 2016년 규제기준(70%)을 큰 폭 상회하고 있다. 특수은행의 외화 유동성비율도 2016년 3/4분기말 현재 115.7%로 모든 은행이 규제기준(85%)을 웃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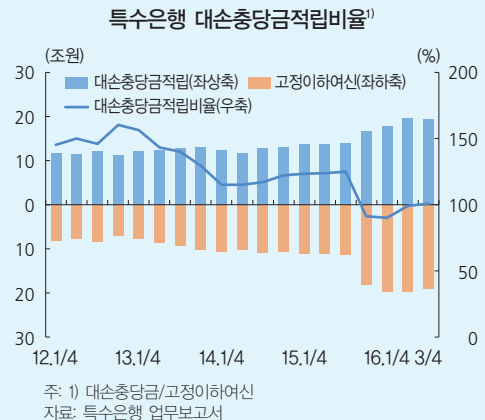
특수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및 외화유동성비율³⁾



주: 1) 고유동성자산/항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2016년 규제기준 70%)
2)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자산/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부채(규제기준 85%), 단 규제미적용은행(수출입은행)은 제외
3) 음영 영역은 은행별 LCR 및 외화유동성비율 분포를 나타냄
자료: 특수은행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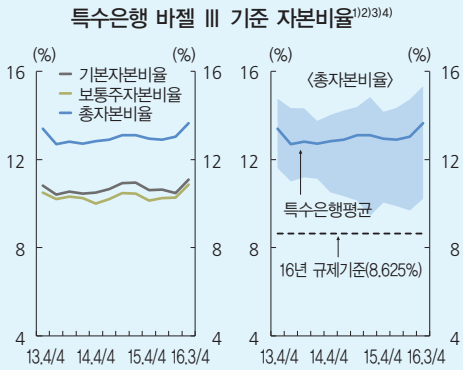
(대손충당금적립비율)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2016년 들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2016년 3/4분기말 현재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100.8%로 전년말(91.5%) 대비 9.3%포인트 상승하였다.



(자본적정성)

자본적정성도 개선되고 있다. 2016년 3/4분기 말 현재 특수은행의 바젤Ⅲ 기준 총자본비율은 13.65%로 전년말 대비 0.71%포인트, 보통주자본비율은 10.86%로 전년말 대비 0.74%포인트 상승하였다. 이는 금년중 적자 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 출자 및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확대 등으로 자기자본이 늘어난 데 기인한다. 은행별로 보면 모든 은행이 2016년 총자본비율 규제기준(8.625%)을 상회하고 있다.



- 주: 1) 수협의 경우 바젤Ⅱ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보통주자본비율은 산정하지 않음
 2) 기말 기준
 3) 2016년 규제기준: 보통주자본비율 5.125%, 기본자본비율 6.625%, 총자본비율 8.625%
 4) 음영으로 표시된 영역은 은행별 총자본비율 분포를 나타냄
 자료: 특수은행 업무보고서

참고 11

대내외 충격에 대한 은행부문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그년 들어 우리 경제의 성장세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 급증, 기업 구조조정 추진에 더해 최근에는 미국 대선 결과 발표 이후 시장금리가 큰 폭 상승하는 등 금융·경제의 하방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스템 리스크 평가모형(SAMP)을 활용한 은행부문 자본적정성 스트레스 테스트¹⁾를 통해 우리 경제의 주요 대내외 리스크 요인인 미 연준의 금리인상²⁾, 국내 주택가격 하락³⁾ 및 두 충격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충격⁴⁾에 대한 국내은행의 복원력을 점검하였다.

먼저 2016년 9월 기준으로 이후 미 연준의 정책금리가 2018년말까지 100bp, 200bp 및 300bp 인상되는 시나리오에서 국내은행의 BIS 기준 총자본비율(이하 BIS 비율)은 2016년 9월 말 14.8%에서 2018년말에는 각각 14.3%, 13.8% 및 13.1%로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미 연준이 정책금리를 300bp 인상하는 경우 국내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자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BIS 비율은 오히려 소폭 상승(0.3%포인트)하는 효과가 있으나 주가, 환율 등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유가증권 평가손실 등 시장손실(-0.7%포인트)과 기업 및 가계 대출 부실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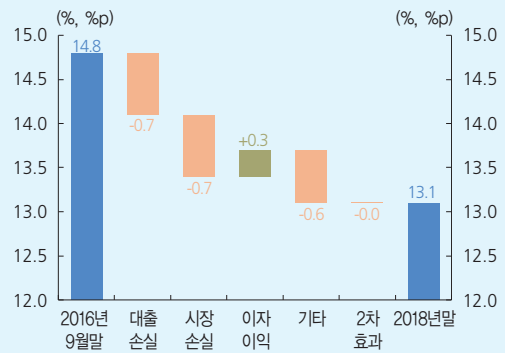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 대출손실(-0.7%포인트)로 인해 동 비율의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은행 자본적정성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시나리오	충격 후 BIS 비율	2016년 9월말 ¹⁾ 대비 변동
미 연준의 금리 인상	+100bp	14.3	-0.5
	+200bp	13.8	-1.0
	+300bp	13.1	-1.7
주택가격 하락 ²⁾	-5%	14.3	-0.5
	-10%	13.9	-0.9
	-15%	13.4	-1.4
복합충격 ³⁾		12.8	-2.0

주: 1) 2016년 9월말 현재 국내은행 BIS 기준 총자본비율 14.8%
 2) 2016년 9월말 대비 2018년말의 주택가격 하락폭
 3) 미 연준 정책금리가 2018년말까지 200bp 인상되고 주택가격이 10% 하락하는 충격이 동시에 발생
 자료: 한국은행

미국 정책금리 300bp 인상시 BIS 비율 변동 요인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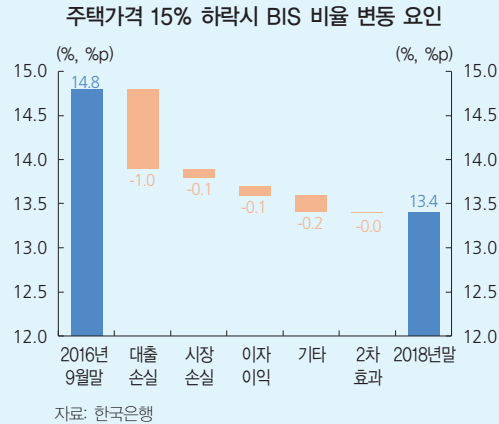
1) 한국은행 시스템 리스크 평가모형(SAMP)을 이용하여 17개 국내은행(시중은행 6개, 지방은행 6개, 특수은행 5개)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스트레스 테스트 대상기간은 2016년 9월말부터 2018년말까지이다(거시 스트레스 테스트 방법론 및 SAMP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2012년 10월 금융안정보고서 <부록 1> 「시스템적 리스크 평가 모형(SAMP)」(137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2) 미 연준의 금리인상 충격은 주로 「미 연준의 금리인상 →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외국인투자자금 유출 → 금리·주가·환율 등 변동성 확대 → 가계·기업의 채무상환 부담 및 금융기관 손실 증가」 경로를 통해 국내은행 자본적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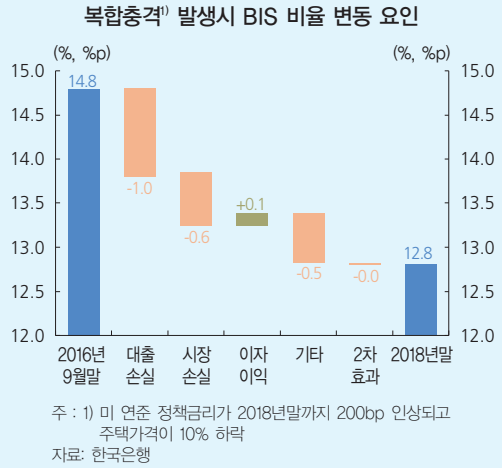
3) 국내 주택가격 하락 충격은 「국내 주택가격 하락 → 담보가치 하락 및 주택공급 축소 → 가계 부채상환부담 증가 및 건설사 손실 확대 → 금융기관 손실 증가」 경로를 통해 은행부문의 자본적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4) 개별충격 시나리오에서는 충격의 크기에 따른 반응을 분석하기 위해 충격의 강도를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정하였으나, 복합충격 시나리오에서는 각 충격의 중간 강도인 미 금리 200bp 인상 및 주택가격 10% 하락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을 상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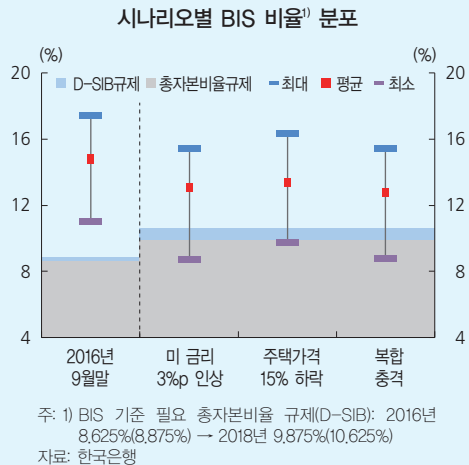
주택가격이 2016년 9월말부터 2018년말까지 5%, 10% 및 15% 하락⁵⁾하는 시나리오에서는 큰 폭의 주택대출 관련 손실 발생 등으로 국내은행 BIS 비율이 2016년 9월말 14.8%에서 각각 14.3%, 13.9% 및 13.4%로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미 연준이 정책금리를 2018년말까지 200bp 인상하고 국내 주택가격이 10% 하락하는 복합충격 시나리오에서는 국내 경기 위축 및 자본유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큰 폭의 대출손실(-1.0%포인트)과 시장손실(-0.6%포인트)이 발생함에 따라 국내은행의 BIS 비율이 12.8%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비추어 미 연준의 금리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의 대내외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국내은행의 충격흡수능력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큰 강도의 개별충격이 발생하거나 대내외 충격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부 은행의 BIS 비율이 크게 하락하여 바젤Ⅲ 규제기준을 하회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따라서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자본적정성이 취약해질 수 있는 금융기관은 자체 리스크관리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5) 전국 평균 주택가격이 2016년 9월말부터 2018년말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시나리오로, 분기별 하락 패턴은 과거 외환위기 및 금융위기 당시의 주택가격 흐름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참고 12

2017년 이행예정 글로벌 금융규제의 영향

2017년에는 바젤Ⅲ 자본 및 유동성 규제가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가운데 은행의 그림 자금용과 관련된 거래리스크를 제어하기 위한 규제를 비롯한 5개 규제¹⁾가 새롭게 적용된다.

여기서는 은행에 대한 바젤Ⅲ 자본 및 유동성 규제의 단계적 강화와 새롭게 적용되는 5개 규제가 국내은행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2017년 국내 이행 예정인 주요 규제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총자본비율 ¹⁾	8.0%		8.875%		9.75%	10.625%	11.5%	
이행(2013.1.1 ~)								
기본자본비율 ¹⁾	4.5%	5.5%	6.0%	6.875%	7.75%	8.625%	9.5%	
보통주자본비율 ¹⁾	3.5%	4.0%	4.5%	5.375%	6.25%	7.125%	8.0%	
LCR ²⁾	80%		85%		90%	95%	100%	
이행(2015.1.1 ~)								
외화LCR ²⁾	60%		70%		80%			
이행(2017.1.1 ~)								
펀드투자·SA-CCR·QCCP 규제·공시 규제	이행(2017.1.1 ~)							
증거금 규제	이행(2017.3.1 ~)							

주: 1) 자본보전완충자본 및 D-SIB에 대한 추가자본 규제가 포함된 비율
2) 일반은행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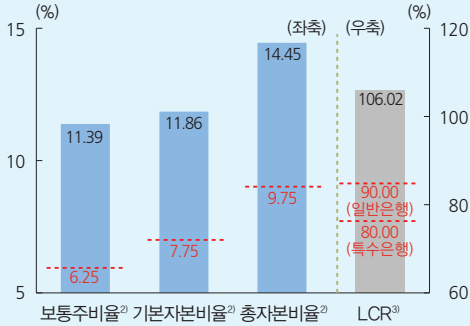
(바젤Ⅲ 자본 및 유동성 규제 강화의 영향)

모든 국내은행의 2016년 9월말 기준 자본비율 및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하 LCR)이 2017년 규제기준을 상회하고 있어 예상치 못한 큰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한 바젤Ⅲ 규제의 단계적 이행은 원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LCR의 산출기준이 월말잔³⁾에서 월평잔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내은행은 일별 유동성 수준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 1) 자본보전완충자본 및 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이하 D-SIB)에 대한 추가자본 규제비율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최저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이 각각 6.25%, 7.75%와 9.75%로, LCR 및 외화LCR은 각각 90%와 60%로 적용될 예정이다.
- 2) 2017년 1월(증거금 규제 강화는 2017년 3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5개 규제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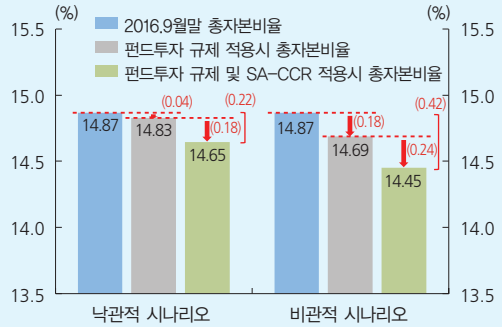
구분	주요내용	발표(이행)시기
은행의 펀드투자에 대한 자본규제	그림자금용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해 펀드 구성내역을 자산 또는 운용원칙별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2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	2013년 12월 (2017년 1월)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 표준방법 (SA-CCR: standardised approach for measuring counterparty credit risk)	파생금융상품 거래상대방 부도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기초자산의 가격변동과 계약기간에 따른 익스포저 변동규모를 표준방법에 반영	2014년 1월 (2017년 1월)
중앙청산소(QCCP: qualifying central counterparty) 익스포저에 대한 자본규제	은행들이 적격 중앙청산소를 통하여 파생금융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청산기금에 납부한 출연금, 개시증거금, 시가평가 익스포저 등에 규제자본을 부과	2014년 4월 (2017년 1월)
증거금 규제 강화	비중앙청산 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개시 및 변동 증거금을 부과하고 증거금 납입수단을 현금, 국제 등 일부자산으로 제한하는 규제로서 변동증거금 규제는 2017년 3월부터, 개시증거금 규제는 2020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	2015년 3월 (2017년 3월)
공시양식 개정	은행간 자본비율 공시의 일관성 및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본비율의 분모(익스포저) 구성항목을 개정양식에 의해서 공시	2015년 1월 (2017년 1월)

2017년 규제비용 대비 2016년 9월말
국내은행의 평균 BIS 비율¹⁾



주: 1) 적색 점선은 2017년 규제비용
2) 수험을 제외한 16개 국내은행 기준(2016년 9월말)이며 펀드투자 규제 및 SA-CCR의 영향을 반영하여 국내은행 평균을 산출
3)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6개 국내은행 기준(2016년 9월말)
자료: 국내은행 업무보고서

펀드투자 규제¹⁾ 및 SA-CCR²⁾ 도입의 영향



주: 1) 구성자산 파악이 어려운 펀드 중 10%에만 1,250% 위험가중치를 적용한 것이 낙관적, 50%에 1,250% 위험가중치를 적용한 것이 비관적 시나리오임
2) 기초자산 종류 및 계약만기에 따라 낮은 수준의 배수(1.0~3.4)를 적용한 것이 낙관적, 높은 수준의 배수(1.3~3.8)를 적용한 것이 비관적 시나리오임
자료: 국내은행 업무보고서

(새롭게 적용되는 5개 규제의 영향)

펀드투자에 대한 자본규제와 거래상대방 신용 리스크 표준방법(SA-CCR)을 2016년 9월말 국내은행이 보유한 익스포저에 적용할 경우 총자본비율이 소폭(0.22~0.42%포인트) 하락⁴⁾하는 것으로 시산되었다. 다만 국내은행이 규제 취지에 부합되게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⁵⁾하거나 중앙청산소를 통해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청산·결제할 경우 총자본비율 하락폭이 축소⁶⁾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비중양청산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변동 증거금 규제가 시작되면 국내은행의 증거금 부담이 증가⁷⁾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앙청산소 익스포저에 대한 규제는 관련 익스포저 비중이 매우 낮은 점을 고려할 때 국내은행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 규제의 경우에도 감독당국, 업계 등이 그동안 충실히 대비해온 점에 비추어 국내은행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 BCBS는 규제도입 초기에 은행들의 규제준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2016년말까지 LCR을 월말잔 기준으로 산출하여 분기별로 공시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허용하였다.
4)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 등 규제 준수를 위한 은행의 행태변화가 없는 것을 가정하여 산출하였다.
5) 일부 은행의 경우 높은 위험가중치가 적용될 수 있는 펀드에 대한 투자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펀드 구성자산 또는 운용원칙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해당 자산운용사와의 계약서를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6) 장외파생상품을 중앙청산소를 통해 청산·결제할 경우 적용되는 위험가중치가 낮아져(통상 2%) 자본비율 하락폭이 축소될 수 있다.
7) 다만 증거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외환스왑 등 외환 관련 파생상품을 주로 거래하는 은행의 경우 증거금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확정 잔여 규제개혁 과제의 영향)

바젤위원회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진행해온 금융규제 개혁과제 중 종결되지 않은 부분을 2017년초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동 과제는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및 표준방법, 운영리스크 규제체계, 자본하한, 레버리지비율 규제 등이다.

이들 과제가 글로벌 은행들의 자본비율, 리스크관리 체계 등에 미칠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내은행은 중장기 사업전략, 자산운용 및 자금조달 활동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2017년초 완료 예정인 BCBS 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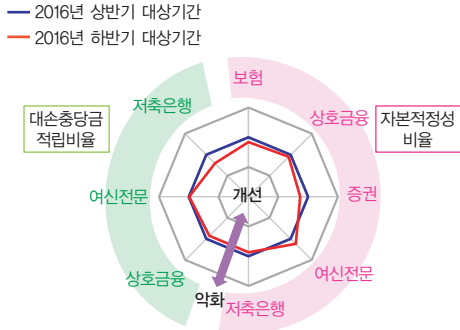
구분	주요 내용	예상 영향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내부등급법 사용 은행의 재량을 축소하기 위하여 특정 자산군에 대해서는 내부등급법 활용을 제한	영향 미미
신용리스크 표준방법	표준방법(은행의 재량 불허)이 실제 리스크를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익스포저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를 조정	다소 영향
운영리스크 규제체계	소송, 사고 등으로 인한 리스크를 측정하기 위한 내부모형 사용을 불허하고 개선된 표준 방법을 적용	영향 미미
자본하한	은행의 내부모형 사용으로 인한 규제자본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내부모형 사용 은행의 최소 규제자본 수준을 설정	다소 영향
레버리지 비율	정교한 레버리지비율 측정을 위한 일부 익스포저에 대한 처리방안을 변경	영향 미미

2. 비은행금융기관

복원력 대체로 양호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적립비율 및 자본적정성 비율 등 복원력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다만 일부 업권에서 수익성 제고를 위해 위험자산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복원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그림 I-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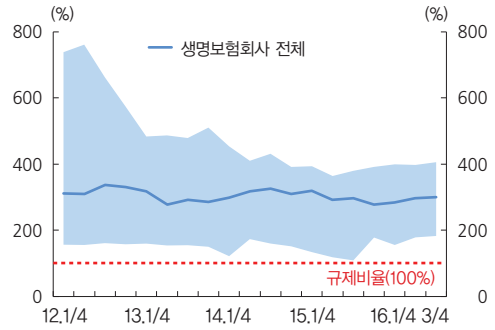
(그림 I-7) 비은행금융기관 복원력 지표 변화 지도¹⁾



주: 1) 2016년 1/4분기말 대비 2016년 3/4분기말 변화 정도를 지수화
자료: 한국은행

생명보험회사는 장기 투자자산 보유비중이 높아 금리변동 위험⁷⁾이 큰 편이나 외부충격에 대한 복원력을 나타내는 자기자본비율(RBC 비율)⁸⁾은 저금리에 따른 채권평가이익 증가 등으로 2015년말 278.3%에서 2016년 3/4분기말에는 300.5%로 상승하였다. 개별 보험회사별 RBC비율도 2016년 3/4분기말 규제비율(100%)을 상당폭 상회하였다(그림 I-8).

(그림 I-8) 생명보험회사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¹⁾



주: 1) 지급여력금액/지급여력기준금액, 감독기준 100%, 음영으로 표시된 영역은 업체별 RBC비율 분포를 나타냄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상호금융조합의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2015년말 143.6%에서 2016년 3/4분기말에는 142.3%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순자본비율도 같은 기간중 8.2% 수준을 유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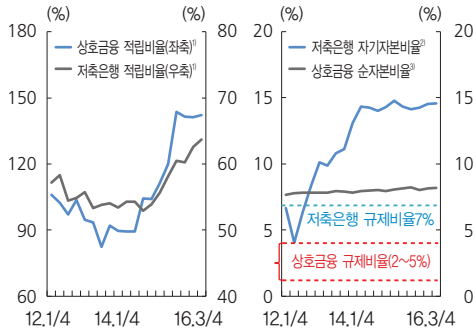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같은 기간중 60.5%에서 63.7%⁹⁾로, BIS자기자본비율은 14.1%에서 14.5%로 소폭 상승하였다. 개별 저축은행별 BIS자기자본비율도 감독기준(7%)을 대부분 상회하였다(그림 I-9).

7) 2016년 9월말 생명보험회사의 총위험액은 35,8조원으로 금리위험액이 46.8%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보험위험액(11.6%), 신용위험액(32.9%), 시장위험액(5.5%) 및 운영위험액(3.2%)으로 구성되어 있다.

8)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Risk-Based Capital Ratio)은 지급여력기준금액(가용자본)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값이다. 여기서 분모인 지급여력기준금액은 보험위험액, 금리위험액, 신용위험액, 시장위험액 및 운영위험액의 규모를 측정하여 산출된 요구자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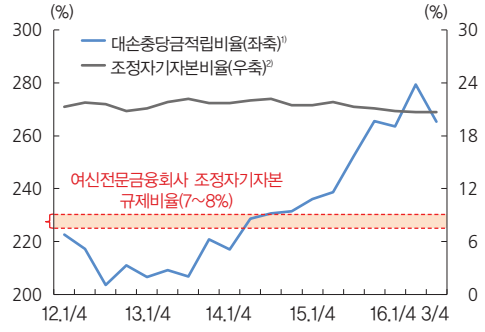
9) 저축은행은 과거 부동산PF 부실채권 등의 영향으로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이 100%를 하회하고 있다.

〈그림 I-9〉 상호금융조합 및 저축은행 복원력 지표



주: 1) 대출채권 대손충당금/대출채권 고정이하여신
2)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감독기준 7%
3) 감독기준 2%(새마을금고 4%, 농협 5%)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그림 I-10〉 여신전문금융회사 복원력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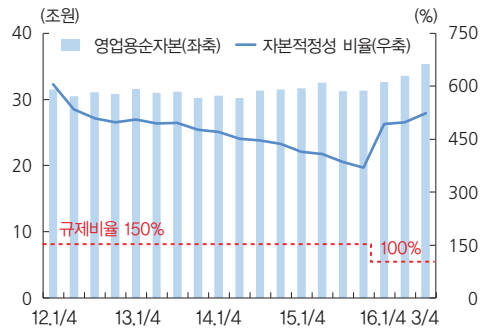


주: 1) 총채권 대손충당금/총채권 고정이하여신
2) 조정자기자본/조정총자산, 감독기준 7%(신용카드회사 8%)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카드로를 중심으로 고정이하여신이 확대되면서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이 2015년말 265.5%에서 2016년 3/4 분기말에는 265.3%로 0.2%포인트 하락하였다. 조정자기자본비율도 레버리지배율 규제 도입¹⁰⁾에 대응한 유상증자 등의 자본 확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카드로 및 자동차할부금융에 대한 대출영업 강화로 같은 기간중 21.1%에서 20.7%로 하락하였다. 다만 개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조정자기자본비율은 감독기준(7~8%)을 상회하였다(그림 I-10).

증권회사의 경우 자본적정성 비율 규제 변경¹¹⁾,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확충 등에 따라 순자본비율이 같은 기간중 369.3%에서 523.0%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개별 증권회사별 순자본비율도 감독기준(100%)을 크게 상회하였다(그림 I-11).

〈그림 I-11〉 증권회사 자본적정성 비율¹⁾



주: 1) 2015년까지: 영업용순자본비율, 감독기준 150%
2016년 이후: 순자본비율, 감독기준 100%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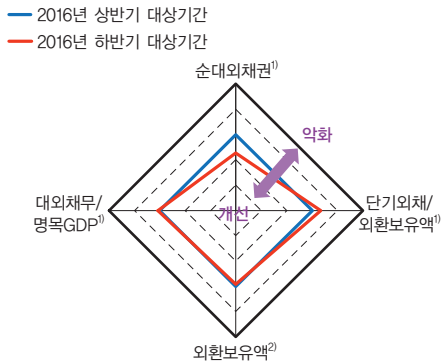
10) 2015년말부터 신용카드회사 및 기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총자산 한도가 자기자본의 각각 6배 및 10배로 제한되었다.

11) 증권회사의 자본적정성 규제는 2015년말 이후 영업용순자본비율=(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에서 순자본비율=(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필요유지자본)로 변경되었으며 감독기준도 150%에서 100%로 하향 조정되었다.

II. 대외지급능력

우리나라의 대외지급능력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이어갔다. 순대외채권 증가세가 확대되고 명목GDP 대비 대외채무 비율이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외환보유액의 증가 기조가 이어진 가운데 단기외채 비율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그림 II-1).

〈그림 II-1〉 대외지급능력 지표 변화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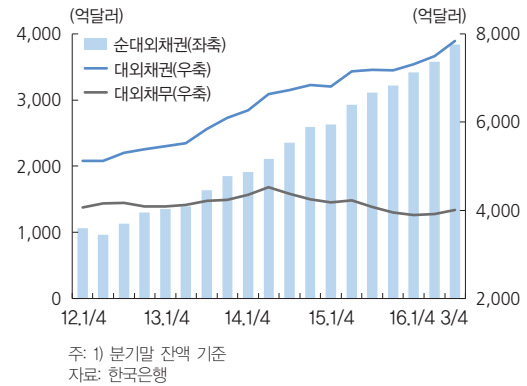


주: 1) 2016년 1/4분기말 대비 2016년 3/4분기말의 변화 정도를 지수화
 2) 2016년 5월말 대비 2016년 11월말의 변화정도를 지수화
 자료: 한국은행

순대외채권 증가세 지속

우리나라의 순대외채권(대외채권 - 대외채무)은 2016년 3/4분기말 현재 3,835억달러로 전년말 대비 613억달러 증가하였다(그림 II-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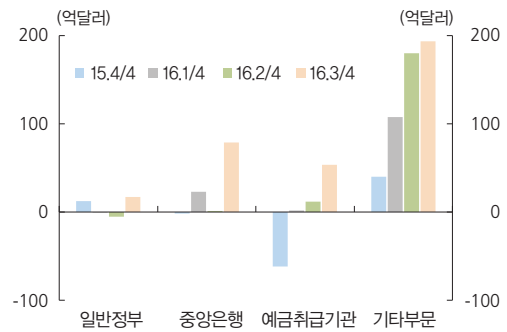
〈그림 II-2〉 순대외채권¹



주: 1) 분기말 잔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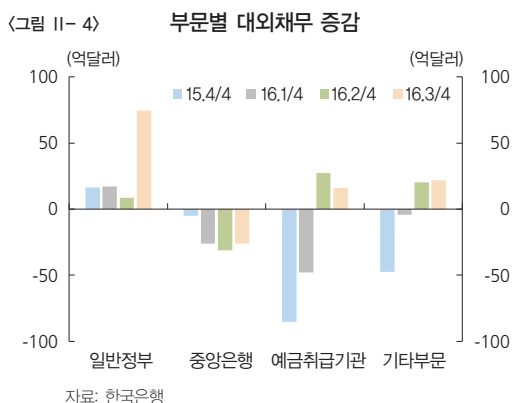
대외채권은 2016년 3/4분기말 현재 7,839억달러로 전년말 대비 663억달러 증가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부문별로는 일반정부 및 중앙은행이 전년말 대비 114억달러, 예금취급기관이 단기외화대출 및 해외채권투자 등으로 67억달러, 기타부문이 기관투자자의 해외예치금 및 해외채권투자 등으로 482억달러 각각 증가하였다(그림 II-3).

〈그림 II-3〉 부문별 대외채권 증감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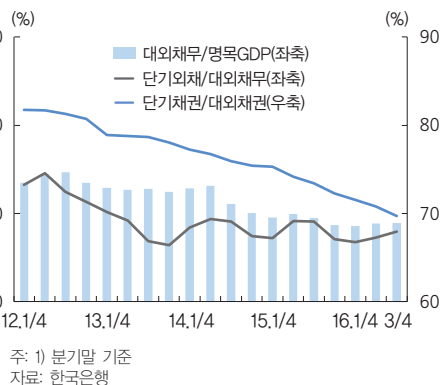
대외채무는 2016년 3/4분기말 현재 4,004억달러로 전년말 대비 50억달러 증가하였다. 부문별로는 일반정부 및 중앙은행이 17억달러, 기타부문이 38억달러 증가하였다. 반면, 예금취급기관은 5억달러 감소하였다(그림 II-4).



명목GDP 대비 대외채무 비율은 2016년 3/4분기말 28.9%로 전년말 28.7%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대외채무 중 단기외채의 비중은 같은 기간중 27.1%에서 27.9%로 다소 높아 지기는 하였으나 과거에 비하여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한편 대외채권 중 단기채권의 비중은 2016년 3/4분기말 현재 69.7%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이는 보험회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수익률 제고를 위해 장기채권을 중심으로 해외증권투자를 확대한 데 주로 기인한다(그림 II-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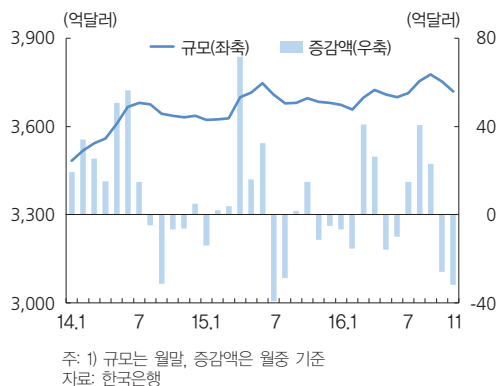
〈그림 II-5〉 단기외채·채권 비중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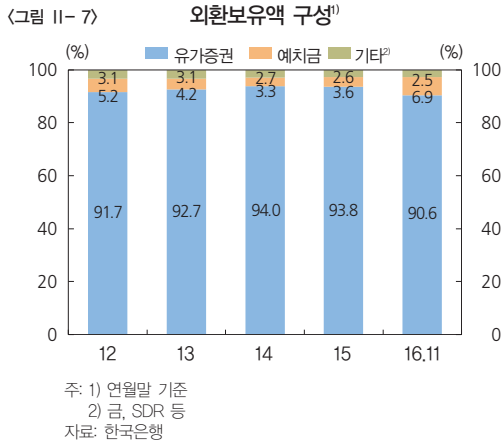
공적 대외지급능력으로서 외환보유액 증가 기조 유지

2016년 11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3,720억달러로 9월말 사상 최고 수준(3,778억달러)을 기록하였다가 2개월 연속 소폭 감소하였다. 1~11월중 기준으로는 40.3억달러 증가하였다. 최근 2개월간의 외환보유액 감소는 외화자산 운용수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로화, 엔화 등 기타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미 달러화 환산액이 감소한 데 기인한다(그림 II-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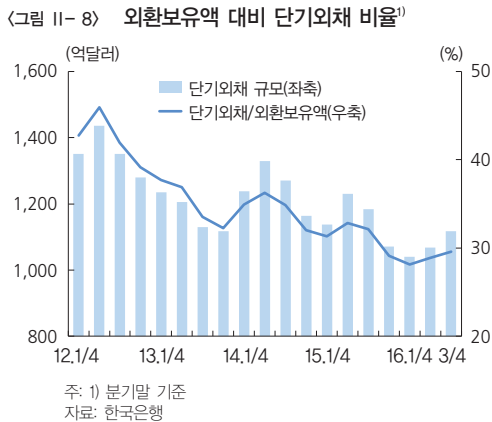
〈그림 II-6〉 외환보유액¹⁾



외환보유액 구성을 보면 2016년 11월말 현재 유가증권이 90.6%, 예치금이 6.9%로 단기 유동성 필요시 대응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그림 II-7).



한편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2016년 3/4분기말 현재 29.6%로 2015년말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으나 과거에 비하여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그림 II-8).



III. 금융시장인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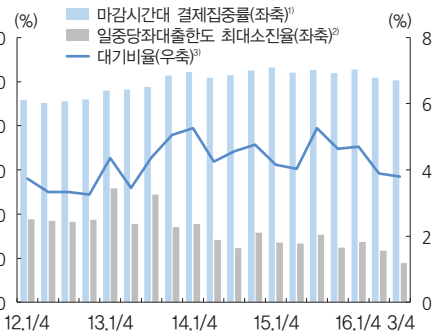
한은금융망 등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은 전반적인 결제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결제리스크가 줄어드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 앞으로 핀테크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지급결제수단이 더욱 복잡·다양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거액결제시스템 안정적으로 운영

거액결제시스템의 결제규모가 2016년 들어 크게 늘어났으나 관련 결제리스크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 간 콜·소액·증권·외환 자금을 최종 결제하는 「한은금융망」(BOK-Wire+)의 일평균 결제규모¹⁾는 2016년 1/4~3/4분기중 299.1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0% 증가하였다.

한은금융망을 통한 결제 중 마감시간대(16:00~17:30) 결제 비중(금액 기준)은 서머타임(3월말~10월말) 적용에 따른 CLS 결제시간 변경(오후 3~6시 → 오후 2~5시) 등의 영향으로 2016년 1/4~3/4분기중 평균 61.3%를 기록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소폭(1.3%포인트) 하락하였다.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결제유동성 확보수준을 나타내는 일중당좌대출한도 최대소진율 및 자금이체지시 대기비율도 같은 기간중 각각 평균 21.4%, 4.1%로 전년 동기대비 2.7%포인트, 0.4%포인트 낮아졌다(그림 III-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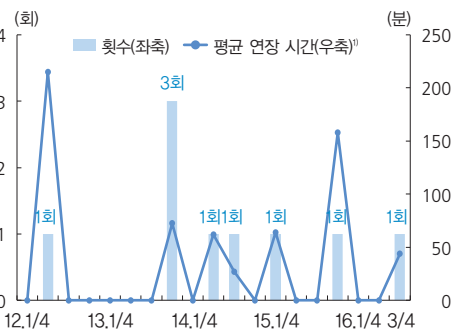
〈그림 III-1〉 한은금융망 관련 리스크 지표



주: 1) 16시 이후 결제금액/총결제금액
 2) 참가기관들의 일별 일중당좌대출한도 최대소진율의 평균
 3) 대기금액/총결제금액(유동성점검을 위한 대기 제외)
 자료: 한국은행

참가기관의 전산장애 등으로 한은금융망의 마감시각이 연장된 경우는 2016년에는 1회(3/4분기)에 그친 가운데 연장시간(44분)도 지난해보다 상당히 짧아졌다(그림 III-2).

〈그림 III-2〉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연장 현황



주: 1) 해당 분기 총 연장시간/연장횟수
 자료: 한국은행

소액결제시스템 원활히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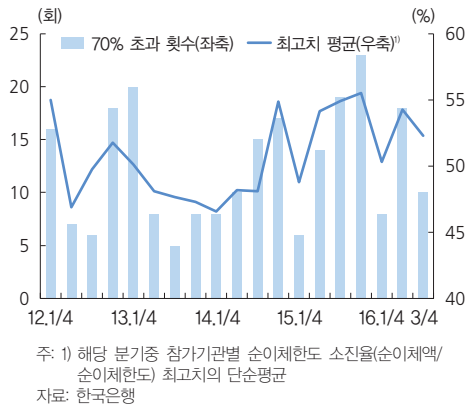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의 일평균 결제규모는 2016년 1/4~3/4분기중 61.4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8% 증가하였다. 다만 2016년 분기별 결제규모는 1/4분기중 61.2조원에서 3/4분기중 59.9조원으로 감소하

1) 원화자금 이체 기준이며 국고전산망을 통한 국고금 관련 거래를 포함한다.

였다. 이는 일반 고객의 거액자금 이체를 한은 금융망으로 전환 처리하는 연계결제시스템²⁾ 가동에 주로 기인한다.

소액결제시스템의 리스크 지표를 보면 차액결제 참가기관들의 순이체한도³⁾ 소진율이 주의 수준(70%)을 초과한 횟수는 2016년 1/4~3/4분기 중 총 36회로 전년동기(39회)에 비해 소폭 줄어들었다. 2016년중에는 2/4분기에 일부 기업의 공모주 청약·환불 등으로 인한 대규모 자금이체 증가 등으로 일시 상승(18회)하기도 하였으나 3/4분기에는 하락(10회)하였다. 순이체한도 소진율을 최고치의 평균도 2/4분기에 54.2%로 높아진 후 3/4분기에는 52.3%로 낮아졌다(그림 III-3).

〈그림 III- 3〉 순이체한도 소진율 현황



증권결제시스템 운영 안정된 모습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증권결제시스템은 결제규모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서도 결제리스크는 안정적으로 관리되었

다. 동 시스템의 일평균 결제규모는 2016년 1/4~3/4분기중 112.2조원을 기록하여 전년동기대비 33.4% 늘어났다.

장내주식 및 장외주식 시장은 결제지연 손해금 부과기준인 기준시한 이전에 대금과 증권의 납부가 모두 완료되었다(표 III-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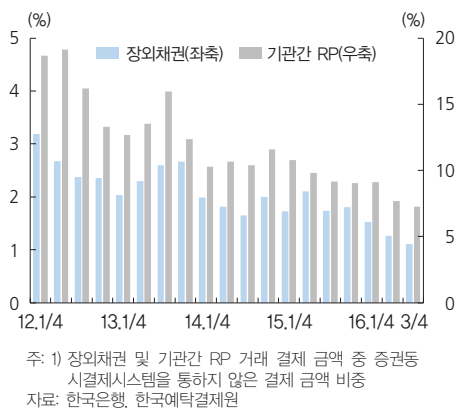
〈표 III- 1〉 기준시한 이후 납부 비중 (%)

	기준시한 ¹⁾	납부 비중 (%)				
		2015년		2016년		
		3/4	4/4	1/4	2/4	3/4
장내주식	16:00	-	-	-	-	-
장내국채	17:00	-	-	-	0.01	-
장외주식 ²⁾	16:50	-	-	0.0001	-	-

주: 1) 결제지연 손해금 부과기준 2) 기관투자자간 거래
자료: 한국은행

장외채권 및 기관간 RP 거래의 경우 증권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하지 않은 분리결제의 비중은 2016년 1/4~3/4분기중 각각 1.3%, 8.0%로 전년동기대비 0.6%포인트, 1.9%포인트 낮아지면서 2012년 이후의 하락세를 지속하였다(그림 III-4).

〈그림 III- 4〉 분리결제 비중¹⁾



2) 한은금융망과 전자금융공동망을 직접 연계하여 기업 등이 거액자금(10억원 초과자금)을 실시간으로 한 번에 이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2016.3.3 가동).
3) 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등 소액결제시스템의 경우 수취인에 대한 지급은 즉시 이루어지지만 이로 인해 발생한 금융기관 간 채권·채무는 차액정산되어 한은금융망을 통해 익영업일 지정시점(11:00)에 결제되므로 금융기관 간 신용공여가 발생한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소액결제시스템의 차액결제리스크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참가기관들이 미결제순이체액의 상한, 즉 순이체한도를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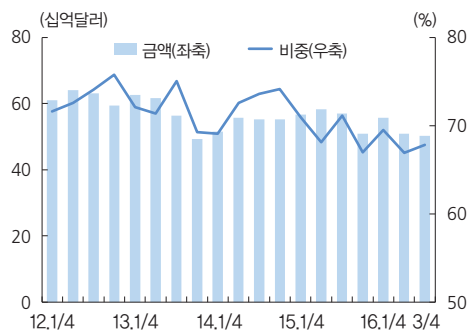
외환결제시스템 운영은 대체로 안정적

외환결제는 은행간 환거래 네트워크, CLS 외환동시결제시스템⁴⁾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중 거액결제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는 CLS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한 일평균 외환결제 규모는 2016년 1/4~3/4분기중 522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8.9% 감소하였다. 동 규모는 지난 수년간 일평균 550억달러를 대체로 상회했으나 2016년 2/4분기 이후에는 500억달러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는 2016년 6월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 등으로 환율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려워지면서 주요 CLS 대상통화인 달러 거래가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한다.

이에 따라 외환동시결제 비중은 2016년 1/4분기 69.5%에서 3/4분기 67.8%로 하락하였다(그림 III-5).

〈그림 III- 5〉 CLS 시스템 이용 금액¹⁾ 및 비중²⁾



주: 1) 분기중 일평균

2) 대상 외환거래 중 CLS 시스템을 통해 결제된 비중

자료: 한국은행

4) CLS(Continuous Linked Settlement)은행은 외환결제리스크의 근본적 발생 원인이 되는 각 국가간 시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결제시간대(중부유럽시간 기준 07:00~12:00)에 집중하여 결제를 처리한다. CLS는 동 시간대에 각 통화별 중앙은행에 개설된 결제회원은행과 CLS은행 계좌간 실제 자금이체(자금 납입 및 지급)가 연속적으로(continuous) 연계되어 결제됨을 의미한다. 현재 17개 CLS 결제통화국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거액결제시스템(한은금융망 포함)과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금융안정 현안 분석

I. 최근 금융 및 실물 사이클 변화와 시사점	91
II. 업황부진 장기화에 따른 기업금융의 주요 특징	102
III. 은행시스템 상호연계성 분석 및 횡단면 시스템 리스크 측정	114

1. 최근 금융 및 실물 사이클 변화와 시사점

1. 검토 배경
2. 우리나라 금융 및 실물 사이클의 특성
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 및 실물 사이클 변화
4. 시사점

1. 검토 배경

일반적으로 금융은 실물부문과 상호작용하면서 서로의 사이클을 확대시키는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을 나타낸다. 이러한 속성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바 있으며,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과 레버리지비율 규제 등을 포함한 바젤 III 규제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세가 장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이에 대처한 각국의 완화적 통화·금융·재정정책 등의 영향으로 금융과 실물 사이클의 움직임이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¹⁾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실물경기의 회복 지연, 기업의 업황부진 장기화, 저금리·부동산 규제 완화 등으로 기업신용과 가계신용 사이클이 상

반된 움직임을 보이는 등 금융과 실물 사이클의 패턴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타나고 있는 금융 및 실물 사이클의 주요 변화 내용을 살펴보고 양 사이클 간 괴리의 원인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보았다.

2. 우리나라 금융 및 실물 사이클의 특성

가. 사이클 측정방법

개념 및 측정지표

금융사이클(financial cycle)은 금융변수들의 종합적인 순환변동으로, 일반적으로 경제주체들의 위험추구 성향이 반영된 금리나 신용위험 등 각종 금융지표들의 영향이 집약되어 나타나는 신용(credit)의 순환으로 정의된다.²⁾ 한편 실물사이클(business cycle)은 통상적으로 실질 GDP 규모가 장기 추세치보다 커지거나 작아지는 호경기와 불경기가 반복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양 사이클의 일반적 정의에 기초하여 본고에서는 금융사이클 측정지표로 민간신용³⁾을, 실물사이클 측정지표로 실질 GDP를 사용하였다. 분석 대상 기간은 사이클 추출에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1986년 1/4분기

1) 주요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 및 실물 사이클 간 동조 관계가 전반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 13> 「금융 및 실물 사이클 국제 비교」(100쪽)를 참조하기 바란다.
 2) 이와 같이 신용사이클을 금융사이클로 정의한 최근 연구로는 Strohsal et al.(2015), Rünstler & Vlekke(2016), Rünstler(2016) 등을 들 수 있다.
 3) BIS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비금융기업 및 가계에 공급한 대출금, 채권(기업어음, 회사채 등) 등의 합계”로 정의하였다. 한편 금융사이클 지표로 민간신용/GDP 비율을 사용하기도 하나, 동 비율에는 금융과 실물의 영향이 혼재되어 나타나므로 금융 및 실물 사이클 간 비교라는 본고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

부터 2016년 2/4분기까지 30.5년(122분기)으로 설정하였다.

측정 방법

시계열 자료로부터 사이클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대역통과필터(band-pass filter), HP필터, 전환점분석 등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전환점분석은 우리나라의 민간신용과 같이 시계열 전구간에서 상승추세가 강한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고, HP필터의 경우 순환변동치의 고점과 저점을 정확하게 식별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대역통과필터 방식⁴⁾과 이를 보완하는 스펙트럼 분석⁵⁾을 결합하여 금융 및 실물 사이클을 추출하였다. 한편 스펙트럼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금융사이클 주기가 통상적인 실물사이클 주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추출되는 사이클 주기의 범위를 8~32분기(2~8년)로 설정하고 대역통과필터를 적용하였다.⁶⁾

나. 금융 및 실물 사이클의 기본 특성

주기 및 진폭

우리나라 금융사이클의 주기는 평균 20분기로 실물사이클 주기(평균 15분기)의 약 1.3배이고 사이클의 진폭도 1.7배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I-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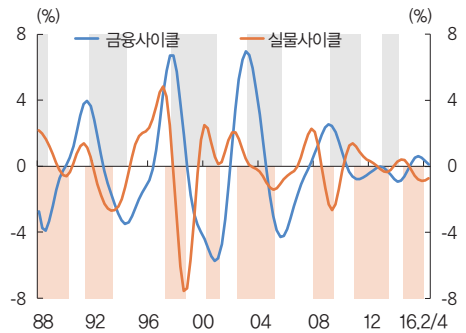
〈표 I-1〉 금융 및 실물 사이클 평균 주기 및 진폭¹⁾

	주 기 (분기)	진 폭 (%)
금융사이클	20	7.3
실물사이클	15	4.3

주: 1) 상승국면과 하강국면의 평균 진폭
자료: 한국은행

금융사이클의 정점은 우리 경제의 주요 금융위기 발생시점 부근에서 관측되었는데, 1990년대 이후 관측된 세 차례의 사이클 정점이 외환위기(97년 4/4분기), 신용카드 사태(03년 1/4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08년 3/4분기) 전후 2분기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그림 I-1).

〈그림 I-1〉 금융 및 실물 사이클 추이¹⁾



주: 1) 상단 음영은 금융사이클의 하강국면, 하단 음영은 실물사이클의 하강국면을 표시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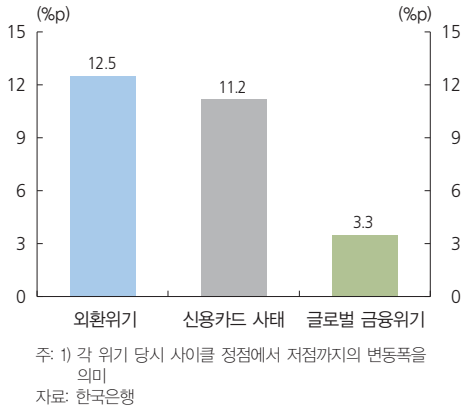
한편 위기의 원인별로 금융사이클의 진폭을 살펴보면 기업 또는 가계부문의 과다부채 등 대내요인에 의해 촉발된 외환위기와 신용카드 사태 당시의 진폭이 대외요인에 기인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진폭에 비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2).

4) 특정 주기 범위에 속하는 순환변동치만을 추출하도록 설정함으로써 계절변동, 불규칙변동 등의 초단기순환과 추세변동과 같은 초장기순환의 영향을 모두 제거하는 방식으로, 본고에서는 여러 가지 대역통과필터 방식 중 Christiano & Fitzgerald(2003)의 추출방법(full-sample asymmetric CF filtering)을 이용하였다.

5) 하나의 시계열 자료를 다양한 주기(frequency)를 갖는 성분으로 분해하고 그 중 가장 설명력이 큰 주기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이다.

6) 〈금융안정 상황〉「I-1. 신용 레버리지」(19쪽)의 신용/GDP비율 갭 추정 시 정확한 사이클 추출보다는 조기경보 차원의 시스템 리스크 축적 여부 판단에 주된 관심이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단측(one-sided) HP 필터를 적용하였다.

〈그림 1-2〉 금융위기시 금융사이클 하강국면 진폭¹⁾



가계와 기업 신용사이클도 대체로 20분기 내외의 주기를 보였으며, 주택가격사이클은 이보다 다소 짧은 18분기로 나타났다(표 I-2).

진폭 측면에서는 가계신용과 주택가격 사이클이 기업신용사이클에 비해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계신용과 주택가격 간 상호작용⁷⁾이 각 사이클의 진폭을 확대시키는 특성에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I-2〉 부문별 사이클의 국면별 지속기간 및 변동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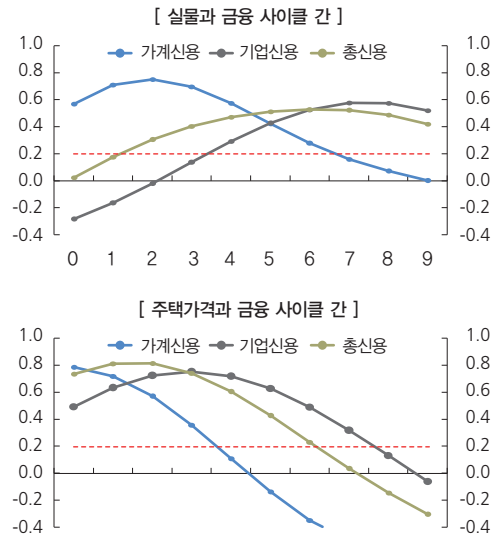
	주기(분기)			진폭(%p)	
	순환 주기	상승 국면	하강 국면	상승 국면	하강 국면
가계신용	19.2	9.6	9.6	9.1	-7.5
기업신용	20.6	11.6	9.0	6.6	-7.8
주택가격	17.5	9.2	8.3	9.5	-8.5

자료: 한국은행

선행성 및 동행성

금융 및 실물 사이클 간 시차 관계를 보면 금융이 실물사이클을 2분기 이상 후행⁸⁾하는데, 이는 가계신용이 실물사이클에 동행하는 가운데 기업신용은 실물사이클에 4분기 이상 후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⁹⁾ 한편 주택가격은 금융사이클, 특히 가계신용사이클과 동행하여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그림 I-3).

〈그림 I-3〉 사이클 간 시차 상관계수¹²⁾



주: 1) 종축은 실물사이클(7기)과 신용사이클(4기) 간 시차 상관계수를, 횡축은 시차(기)를 표시
2) 적색 점선은 5% 유의수준을 표시
자료: 한국은행

7) 「주택가격 상승 → 주택수요 증가 →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증가 → 주택가격 재상승」이 반복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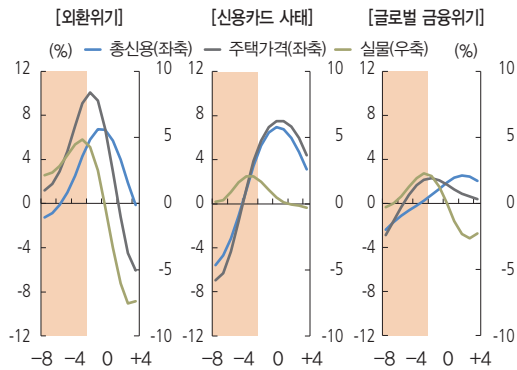
8) 사이클 간 시차 상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보이기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선행성 및 동행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9) 기존 연구들(ECB, 2013 등)은 기업신용이 실물경기에 대체로 후행하는 것이 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따른 기업의 자기자금 선이용(pecking order theory)과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선호 등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과거 금융위기 발생 직전에는 예외 없이 금융, 실물 및 주택가격 사이클의 동행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 주요 금융위기 발생 직전 2년(8분기) 동안에는 세 가지 사이클이 모두 상승국면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가계신용과 주택가격 사이클이 상호 상승작용을 하면서 동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금융위기 발생 이후에도 이들 사이의 높은 동행관계가 유지되었으나 위기 이전 보다는 그 정도가 약화되었다.

또한 금융, 실물 및 주택가격 사이클이 모두 상승국면에 위치하는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된 후에는 예외 없이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특징을 보였다(그림 I-4).¹⁰⁾

〈그림 I-4〉 금융위기 전후 금융 및 실물 사이클 변동패턴¹⁰⁾



주: 1) 황축은 각 위기 발생시점(1기)을 기준으로 2년전(-8분기)부터 1년후(+4분기)까지의 기간을 의미
 2) 음영은 모든 사이클이 상승국면에 위치한 구간을 표시
 자료: 한국은행

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 및 실물 사이클 변화

가. 변화의 주요 내용

금융사이클의 주기 및 진폭 축소

우리나라의 금융사이클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 주기와 진폭이 모두 축소되었다. 위기 이후 금융사이클의 순환(제4순환기) 주기는 11분기로 1~3순환의 평균주기(22분기)의 절반에 그쳤다. 4순환기의 진폭도 상승 및 하강 국면 모두 1%포인트에 미치지 못하는 등 과거(1~3순환 평균: 9.5%포인트)에 비해 대폭 축소되었다(표 I-3).

〈표 I-3〉 금융사이클의 순환기별 주기 및 진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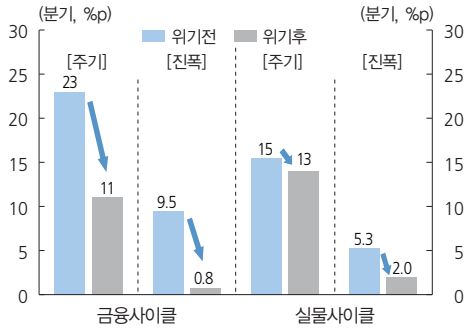
	저점	고점	주기 (분기)	진폭 ¹⁾ (%p)
제1순환	94.2/4	97.3/4	26	11.4
제2순환	00.4/4	03.1/4	19	12.0
제3순환	05.3/4	09.1/4	23	5.1
제4순환	11.2/4	12.4/4	11	0.8
제5순환	14.1/4	—	—	—

주: 1) 상승국면과 하강국면의 평균 진폭
 자료: 한국은행

반면 실물사이클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진폭은 크게 줄었으나(평균 5.3%포인트 → 2.0%포인트), 주기는 위기 전후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그림 I-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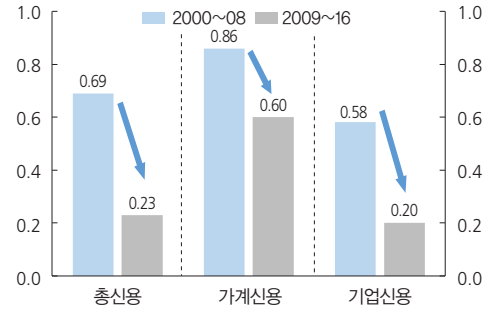
10) 이와 같은 상황은 1990년 이후 외환위기 직전(94년 3/4분기~97년 1/4분기, 11분기), 신용카드 사태 직전(01년 2/4분기~02년 2/4분기, 5분기),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06년 1/4분기~07년 4/4분기, 8분기) 등 총 3차례 관측되었다.

〈그림 I-5〉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주기 및 진폭 비교¹⁾



주: 1)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금융 및 실물 사이클 평균 기준
자료: 한국은행

〈그림 I-6〉 실물과 금융 사이클 간 동조화지수¹⁾



주: 1) 분석 기간중 양 사이클이 동일한 국면에 위치한 기간의 비중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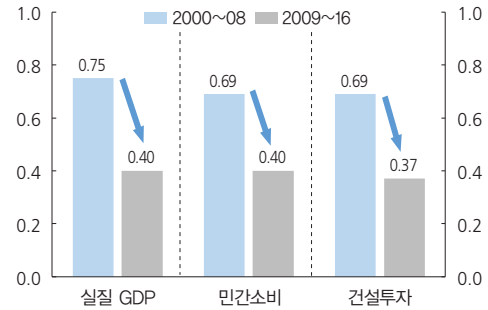
금융·실물 간 동조 관계 약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 실물 및 주택가격 사이클 상호간 동조성이 전반적으로 약화되면서 각 사이클이 괴리되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

먼저 실물과 금융 사이클 간 동조화지수¹⁾를 살펴보면 총신용(0.69 → 0.23)은 물론 가계신용(0.86 → 0.60)과 기업신용(0.58 → 0.20)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물사이클과의 동조 관계²⁾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신용의 경우 위기 이후 실물사이클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역동조 관계로 전환되었다(그림 I-6).

다음으로 실물과 주택가격 사이클 간 동조화지수를 살펴보면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사이클과 실질 GDP, 민간소비, 건설투자 등 실물 지표와의 동조 관계도 크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7).

〈그림 I-7〉 실물과 주택가격 사이클 간 동조화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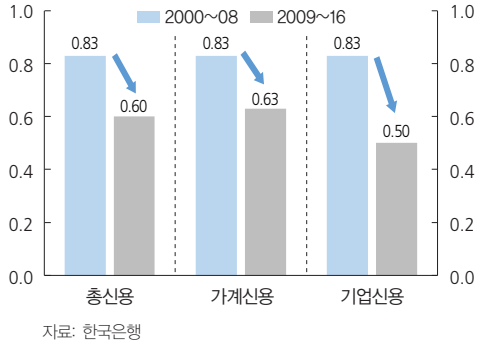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11) 동조화지수(Concordance Index)는 분석대상 기간중 양 사이클이 동일한 국면에 위치한 기간의 비중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동 지수가 0.6 이상이면 동조 관계, 0.4 이하이면 역동조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Drehmann et al., 2012).

12) 기업신용의 동조화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기업신용이 실물사이클에 일정 시차를 두고 후행하여 움직이는 데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주택가격과 금융 사이클 간 동조 관계는 기업신용을 위주로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신용과 주택가격 사이클 간의 동조화 지수는 다소 하락하였으나 양 지표의 증가율 간 상관관계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 0.63에서 위기 이후 0.71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상호 연관성이 여전히 뚜렷하였다. 반면 주택가격과 기업신용 사이클 간 동조화지수는 위기 전 0.83에서 위기 후 0.50으로 큰 폭 하락하였다 (그림 I-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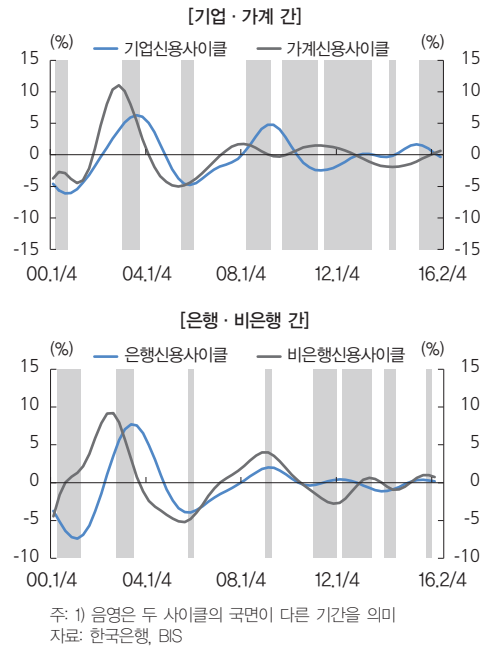
〈그림 I-8〉 주택가격과 금융 사이클 간 동조화지수



민간신용 구성요소 간 동조 관계 약화

최근 민간신용의 구성요소들이 서로 다른 변동 패턴을 보이면서 상호간 동조 관계가 약화¹³⁾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및 가계 신용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로 반대 방향으로 변동하는 역동조화 현상이 빈번하게 관측되었다. 은행 및 비은행 신용의 경우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조 관계가 크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9).

〈그림 I-9〉 민간신용 구성요소별 사이클 비교



나. 변화요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금융 및 실물 사이클 등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저금리 기조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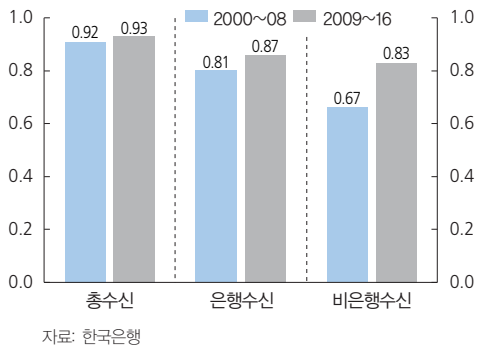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둔화에 대응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풍부한 시중유동성을 바탕으로 경기하강 국면에서도 금융기관의 신용공급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금융·실물 사이클 간 동조 관계 약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저금리 기조 하에서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13) 민간신용 구성요소 간 동조화지수를 살펴보면 가계신용과 기업신용 사이클 간 동조화지수가 위기 이전 0.67에서 위기 이후 0.33으로 하락하여 양 사이클이 역동조 관계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은행신용과 비은행신용 사이클 간 동조화지수는 0.75에서 0.57로 하락해 동조 관계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의 수신 증가로 이어지면서 실물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신용공급 증가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신용과 금융기관 수신 사이클 간 동조 관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오히려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은행 부문의 신용과 수신 사이클 간 동조화지수가 크게 상승(0.67 → 0.83)하였는데 이는 비은행 부문이 수신 호조를 배경으로 실물경기 여건과 무관하게 신용공급을 꾸준히 확대¹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그림 I-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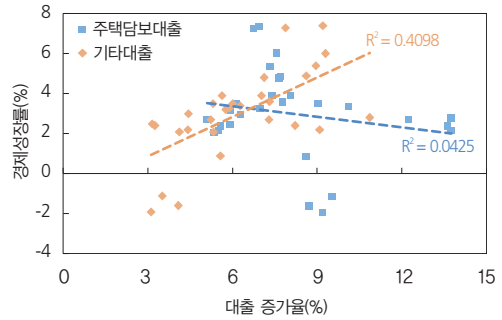
〈그림 I-10〉 신용과 금융기관 수신 사이클 간 동조화지수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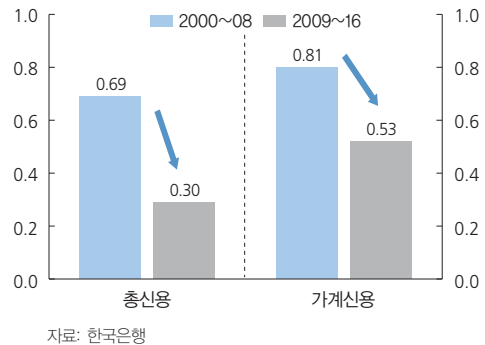
저금리 하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실물경기의 회복지연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신용이 급증한 것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실물 사이클 간 관계 변화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그림 I-11).¹⁵⁾

〈그림 I-11〉 유형별 가계대출 증가율과 경제성장률 간 관계



한편 이와 같은 주택담보대출 누증이 차주의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로 이어져 가계의 소비여력을 제약한 것도 가계신용과 실물경기 간 비동조화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신용과 민간소비 간 동조화지수가 하락(0.81 → 0.53)한 것이 이와 같은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겠다(그림 I-12).

〈그림 I-12〉 신용과 민간소비 사이클 간 동조화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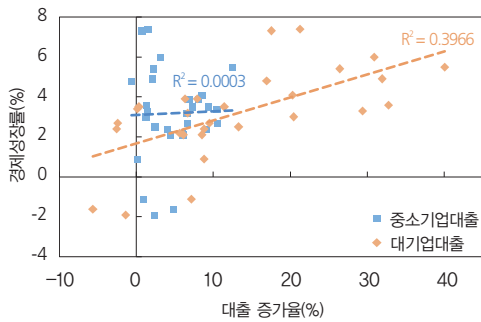
14) 2016년 2/4분기말 현재 은행 수신은 2008년말 대비 46% 증가한 반면 비은행 수신은 85% 증가하였다. 이로써 전체 신용 대비 비은행 신용의 비중은 2008년말 24.9%에서 2016년 1/4분기말 33.6%로 증가하였다.

15) 실물경기 둔화기에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경기대응적 정책의 시행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은 건설경기와는 양(+)의 관계를, 전체 실물경기와는 음(-)의 관계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2009년 이후 경제성장률과 주택담보대출 증가율과의 상관계수는 -0.21, 기타 가계대출 증가율과의 상관계수는 0.64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금융지원 시책

정부·감독당국의 중소기업 관련 금융지원 시책 등에 힘입어 실물경기와의 동조성이 낮은¹⁶⁾ 중소기업대출이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한 것도 금융과 실물경기의 동조 관계 약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 대출은 패스트트랙(2008년 10월), 신용보증 및 정책금융지원 강화(2009년 2월), 기술신용 대출 취급(2014년 7월) 등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시책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확대된 바 있다(그림 I-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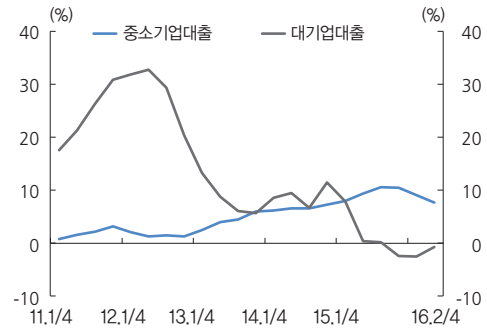
〈그림 I-13〉 기업대출과 경제성장률 간 관계¹⁾



주: 1) 기업대출과 경제성장률 간 4분기 시차 부여
자료: 한국은행

이에 비해 실물경기 민감도가 높은 대기업대출의 경우 중견기업집단(동양, STX, 동부 등) 부실 발생과 조선·해운 등 취약업종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위축되었다(그림 I-14).

〈그림 I-14〉 기업대출¹⁾ 증가율²⁾



주: 1) 예금은행 기업대출 기준
2)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은행권 금융규제 강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각종 금융규제도 가계·기업 신용 간, 은행·비은행 신용 간 동조 관계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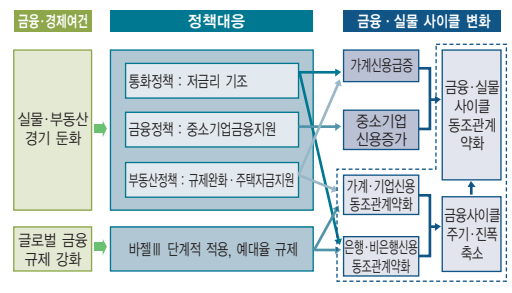
예대출 및 자본규제 강화 등으로 은행권의 대출 확대 여력이 제약된 가운데 은행의 대출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 가계·기업 대출 간 대체 관계가 뚜렷해진 것이 양 사이클 간 동조 관계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은행권에 대한 규제 강화는 비은행권으로 대출 수요를 이동시키는 규제차익 효과를 통해 은행·비은행 신용사이클 간 동조성을 약화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민간신용 구성요소들이 서로 상이한 변동 패턴을 보임에 따라 금융사이클의 주기 및 진폭이 축소되었고, 이는 금융 및 실물 사이클 간 동조성을 약화¹⁷⁾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그림 I-15).

16) 경제성장률과 대기업대출 증가율과의 상관계수(2009년 이후)는 0.63, 중소기업대출 증가율과의 상관계수는 0.02로 나타났다. 한편 BIS도 중소기업대출이 대기업대출에 비해 실물경기 민감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BIS, 2005).

17) 금융순환과 실물순환이 동조하기 위해서는 양 사이클 간 상호 상승작용이 발생할 정도로 순환주기가 충분히 길어야 한다.

〈그림 1-1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책 대응과 금융·실물 사이클 변화



4.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물경기 둔화에 대응한 중앙은행·정부의 확장적 정책은 금융의 경기순응성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가계·기업 신용사이클이 상호 괴리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가계신용사이클이 확장국면에 위치하면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바젤 III 규제의 단계적 강화로 은행권 신용의 경기순응성 약화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동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닌 비은행권 신용이 확대될 경우 금융의 경기순응성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한편 최근 들어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대출의 급증으로 금융 및 실물 사이클 간 비동조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생산적 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이 둔화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경기대응 차원에서 확대된 유동성이 이들 부문으로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미시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고 13

금융 및 실물 사이클 국제 비교

(분석 대상 및 사이클 추출 방법)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38개국의 민간 총신용, 주택가격, GDP 등의 변수를 대상¹⁾으로 금융 및 실물 사이클을 추출하였다. 사이클 추출방법으로는 대역통과필터 방식을 이용하였으며, 분석 대상 기간은 1986년 1분기부터 2016년 2분기 (총 122분기)로 설정하였다.

사이클 추출을 위해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주기의 장·단기 여부를 판단한 후 대역통과필터의 주기대역을 설정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환주기 중 가장 짧은 주기가 32분기 미만이면 단기, 32~64분기 범위 내면 중기, 64분기 이상이면 장기 사이클 변수로 분류하였다. 단기 사이클 변수는 8~32분기, 중기 사이클 변수는 16~64분기, 장기 사이클 변수는 32~128분기의 주기대역을 설정하였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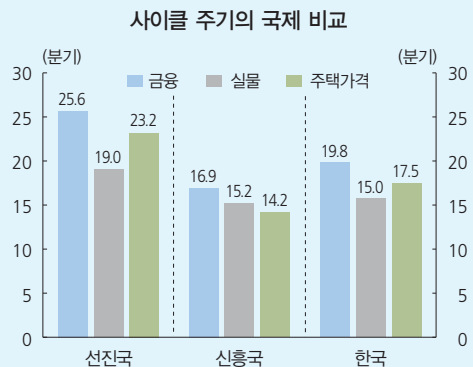
(실물 및 금융사이클의 주요 특징)

1) 주기 및 진폭

분석대상 기간 중 선진국의 경우 금융사이클 주기가 실물사이클 주기의 1.3배 정도로 긴 반면, 신흥국의 경우에는 금융 및 실물 사이클 주

기 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사이클의 주기(19.8분기)는 실물사이클(15.0분기)보다 다소 긴 편이나, 선진국의 금융사이클(25.6분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짧았다.

진폭의 경우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금융사이클이 실물사이클에 비해 50%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흥국의 경우 금융 및 실물 사이클의 진폭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큰 반면 주택가격사이클의 진폭은 다소 작은 편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 실물 및 주택가격 사이클 모두 선진국과 유사한 진폭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료: 한국은행, BIS, IMF

1) 총신용과 주택가격은 BIS, GDP는 IMF(IFS) 자료를 사용하였다.

2) BIS는 실물지표의 경우 8~32분기, 금융지표의 경우 32~128분기의 주기대역을 사용하나, 32분기를 전후하여 단절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어 본고에서는 실물사이클 대역의 각각 2배, 4배인 구간을 사용하여 대역 간 중첩을 허용하였다.

II. 업황부진 장기화에 따른 기업금융의 주요 특징

1. 검토 배경
2. 업황부진기 기업금융의 주요 특징
3.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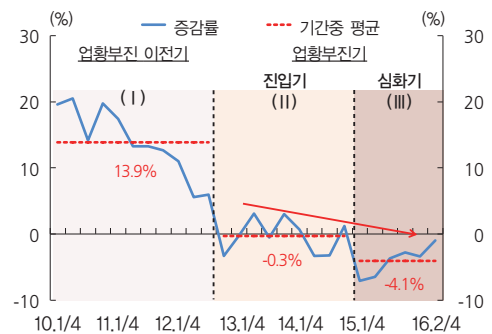
1. 검토 배경

글로벌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¹⁾들의 매출액 증가율이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업황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기업의 매출액 증가세는 2013년에 정체상태에 진입한 이후 특히 2015년 이후에는 감소세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기업의 업황부진은 자금 수요측면 뿐만 아니라 공급측면에서 기업금융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업황부진이 장기화되면서 나타난 기업금융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관련된 시사점을 점검하고자 한다.

분석대상 기간은 2010년 이후로 하되 업황부진의 정도에 따른 기업금융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동 기간을 기업의 매출액 증감률을 기준으로 3개 기간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업황부진기’의 시작 시점은 매출액 증감률이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2012년 4/4분기로 정하였고, 업황부진이 심화된 시점은 매출액 증감률이 연속 마이너스(-) 상태가 시작된

2015년 1/4분기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이하에서는 2010년 1/4분기부터 2012년 3/4분기를 ‘업황부진 이전기(I기)’로, 2012년 4/4분기부터 2014년 4/4분기는 ‘업황부진 진입기(II기)’로, 2015년 1/4분기부터 현재까지는 ‘업황부진 심화기(III기)’로 구분하였다(그림 II-1).

〈그림 II-1〉 기업의 매출액 증감률¹⁾



주: 1) 전년동기대비
자료: KIS-Value

2. 업황부진기 기업금융의 주요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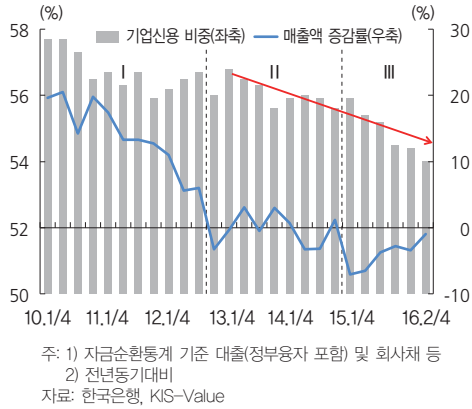
가. 민간신용 중 기업신용 비중이 추세적으로 하락

업황부진이 장기화되면서 기업의 자금수요가 줄어들고 자금공급 측면에서도 위험회피 성향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2013년 이후 전체 민간신용에서 기업신용²⁾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동 비중은 업황부진 이전기에 분기 평균 56.7%에서 업황부진 진입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 상반기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기업(1,806개)과 일부 비상장기업(569개) 등 총 2,375개 기업을 대상(금융·보험업 제외, 폐업기업 포함)으로 분석하였다.
2) 자금순환통계를 기준으로 대출(정부융자 포함) 및 회사채 등을 포함한다.

기와 심화기에 각각 56.1%, 54.9%로 하락하였고 2016년 2/4분기말 현재 54.0%를 기록하였다(그림 II-2).

〈그림 II-2〉 민간신용 중 기업신용¹⁾ 비중 및 매출액 증감률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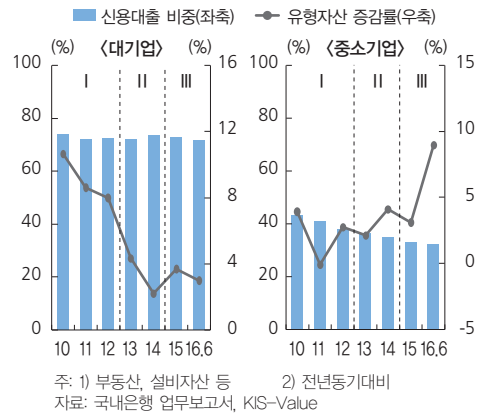


나. 대기업 및 취약업종의 기업신용 감소세가 현저

대기업 신용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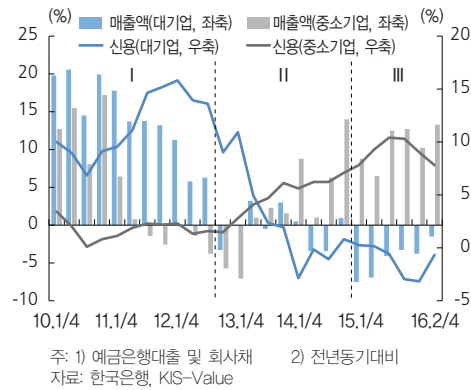
업황부진기에 대기업은 신용의 수요·공급 측면에서 중소기업에 비해 감소세가 보다 현저히 나타났다. 대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감소세를 지속하는 등 업황부진의 정도가 중소기업에 비해 심한 데다 유형자산 등의 설비투자도 더 큰 폭으로 축소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외부자금 조달 수요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기업은 정부 금융지원정책의 혜택을 덜 받는 가운데 신용거래 비중이 높아 담보거래를 선호하는 업황부진기에는 금융기관의 자금공급 유인이 낮았다(그림 II-3).

〈그림 II-3〉 기업규모별 신용대출 비중 및 유형자산¹⁾ 증감률²⁾



이를 반영하여 대기업신용 증감률은 업황부진 이전기 11.7%(기간중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의 평균)에서 진입기에는 2.8%로 둔화된 후 심화기에는 -1.2%를 기록하였다. 이에 비해 중소기업신용 증감률은 같은 기간중 1.7%, 4.9% 및 9.1%로 계속 확대되었다(그림 II-4).

〈그림 II-4〉 기업규모별 매출액 및 신용¹⁾ 증감률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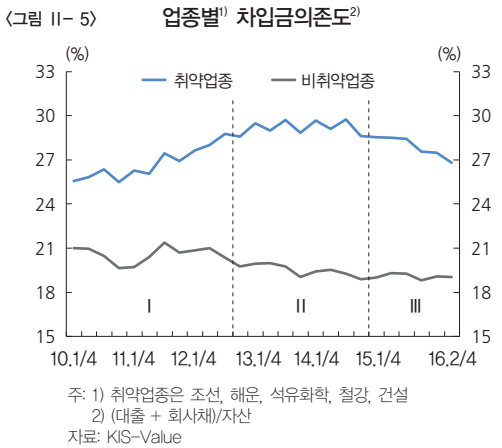


3) 예금은행대출과 회사채를 포함한다. 다만 기업규모별 회사채 발행잔액은 분석대상 2,375개 기업의 분기별 회사채 발행잔액 중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비중을 각각 산출한 후 동 비중을 기업 전체 회사채 발행잔액에 적용하여 추산하였다.

한편 대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회사채의 순발행 규모도 지속적으로 축소되었다. 업황부진 이전기 회사채 순발행 규모는 분기 평균 3.8조원에서 업황부진 진입기에 1.6조원으로 줄어든 후 심화기에는 -0.4조원 감소로 전환하였다.

취약업종 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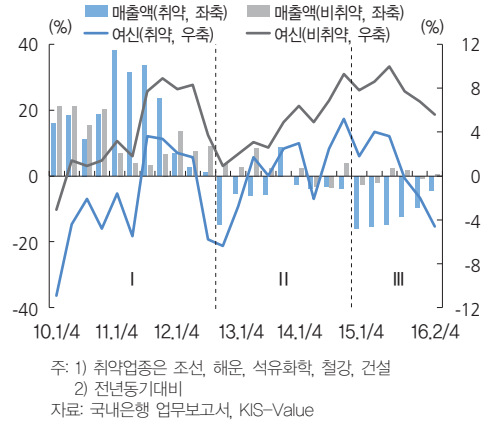
조선, 해운, 석유화학, 철강, 건설 등 취약업종은 업황부진이 심화된 2015년 들어 신용 감소세가 비취약업종에 비해 보다 뚜렷이 나타났다. 취약업종의 경우 비취약업종에 비해 업황이 더 악화된 데다 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자금공급 측면에서 신용경계감이 더 높아졌다. 이러한 가운데 자금수요 측면에서는 취약업종의 경영효율화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차입금 축소 노력이 강화되었다(그림 II-5).



이에 따라 은행의 취약업종 여신은 업황부진 진입기에 0.4%(기간중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의 평균) 증가에 그친 후 심화기에는 1.1% 감소로 전환되었다. 반면 같은 기간중 비취약업종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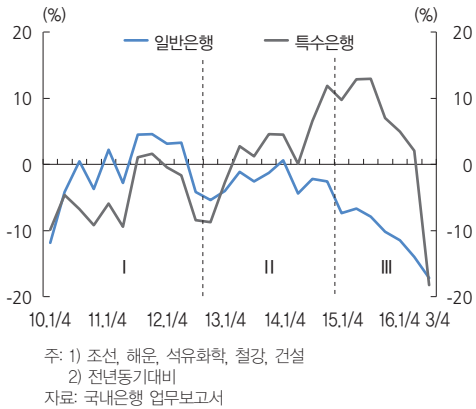
신은 각각 4.6% 및 6.9% 증가하여 대조를 보였다(그림 II-6).

(그림 II-6) 업종별¹⁾ 매출액 및 은행여신 증감률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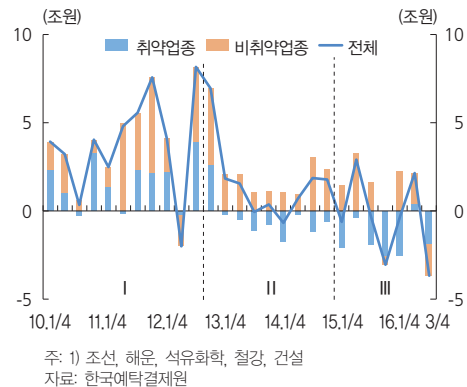
은행권역별로 보면 일반은행은 업황부진이 시작된 2013년부터 취약업종에 대한 신용을 뚜렷이 축소하고 있다. 반면 특수은행은 2013년 이후 신용을 확대하다가 2016년 3/4분기 들어서야 취약업종 여신을 축소하였다. 이에 따라 일반은행의 취약업종 여신 증감률은 업황부진 이전기 -0.8%(기간중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의 평균)에서 업황부진 진입기 -2.5%, 심화기 -10.7%로 큰 폭 하락하였다. 이에 비해 특수은행의 동 증감률은 업황부진 이전기 -4.9%에서 업황부진 진입기와 심화기에 각각 2.2%, 4.5%로 상승하였다(그림 II-7). 이러한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의 차이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인 조선·해운사 등을 중심으로 유동성 확보를 위한 차입수요가 일반은행에서 특수은행으로 상당부분 이전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7〉 일반은행 및 특수은행 취약업종¹⁾ 여신 증감률²⁾



회사채의 경우에도 취약업종 순발행 규모가 업황부진 이전기 분기 평균 1.6조원에서 업황부진 진입기 및 심화기에 각각 -0.4조원 및 -1.6조원의 감소로 전환하였다. 하지만 비취약업종 회사채 순발행 규모는 같은 기간중 각각 2.2조원, 2.0조원, 1.2조원을 기록하였다(그림 II-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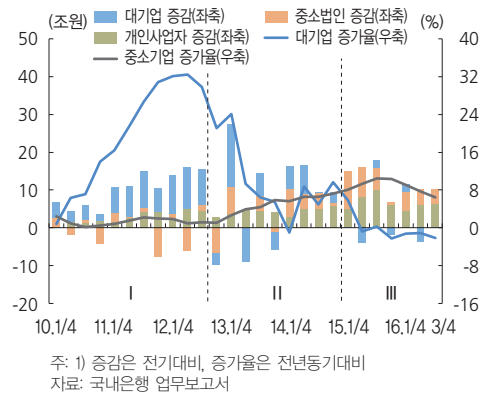
〈그림 II-8〉 업종별¹⁾ 회사채 순발행



다. 중소기업 신용은 견조한 증가세

중소기업은 2013년 2/4분기 이후 매출액 증가세가 유지⁴⁾되는 등 업황부진의 정도가 대기업에 비해 덜한 데다 2014년 7월 이후 시행된 정부의 기술금융 활성화 대책 등의 영향으로 견조한 신용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은 업황부진 이전기 1.3%(기간중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의 평균)에서 업황부진 진입기에는 4.9%로, 심화기에는 8.8%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그림 II-9).

〈그림 II-9〉 기업규모별 기업대출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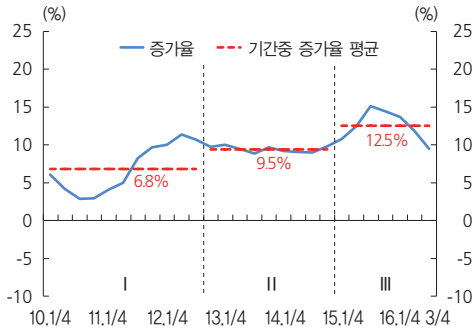
특히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은 업황부진 진입기 9.5%에서 업황부진 심화기에는 12.5%로 크게 확대되었다(그림 II-10). 이는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등에 따른 중장년층의 자영업 진입이 큰 폭으로 늘어난 데다⁵⁾ 개인사업자대출이 상대적으로 신용리스크가 낮고 수익성도 높

4)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감률은 업황부진 이전기 4.7%(기간중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의 평균)에서 업황부진 진입기에 2.5%로 다소 낮아졌다가 업황부진 심화기에는 10.7%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업종별 매출액 비중 차이에 주로 기인한다. 석유화학, 1차금속제조업(철강 포함) 등 매출액 비중이 높은 업종(18.9%, 2016년 상반기 기준 전체업종 매출액 대비)이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하락 등으로 기업 전체의 매출액 감소를 주도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동 업종의 비중(9.0%, 중소기업 전체 매출액 대비)이 대기업(19.3%, 대기업 전체 매출액 대비)보다 크게 낮다.

5) 개인사업자 수는 2016년 8월말 현재 606만명으로 2013년말(538만명)대비 68만명이 늘어났는데, 이는 2011년~13년중 증가폭(+34만명, 2010년말 504만명→2013년말 538만명)의 두 배에 달한다.

은 대출로 인식되고 있고 낮은 위험가중치로 인해 BIS 자기자본비율 관리에도 유리하여 은행이 동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표 II-1).

〈그림 II-10〉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¹⁾



주: 1) 전년동기대비
자료: 국내은행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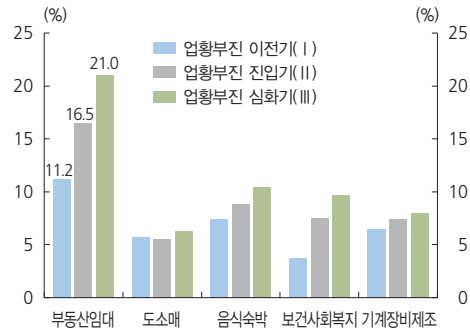
〈표 II-1〉 기업규모별 기업대출 관련 주요 정보¹⁾

	담보대출 비중 (%)	연체율 (%)	대출금리 (%)
대기업대출	28.8	0.51	3.4
중소법인대출	60.2	1.05	4.3
개인사업자대출	77.9	0.43	4.5

주: 1) 2016년 3/4분기말 현재 국내은행 기준(다만 대출금리는 2016년 2/4분기말 현재 5개(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기업) 은행 기준)
자료: 한국은행, 국내은행 업무보고서

업종별 개인사업자대출을 보면 부동산임대업대출 증가율이 업황부진 이전기 11.2%(기간중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의 평균)에서 심화기 21.0%로 대폭 확대되면서 여타 업종의 대출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였다(그림 II-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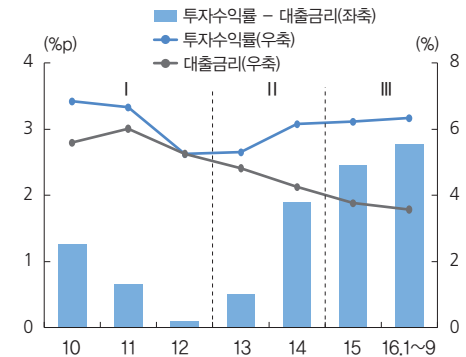
〈그림 II-11〉 개인사업자 대출규모 상위 5개 업종의 대출 증가율¹⁾



주: 1) 각 기간중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의 평균
자료: 국내은행 업무보고서

부동산임대업대출 증가는 저금리 하에서 상업용부동산의 투자수익률이 대출금리를 계속 상회함에 따라 이에 대한 레버리지 투자가 크게 늘어난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그림 II-12).

〈그림 II-12〉 부동산임대업 투자수익률¹⁾ 및 대출금리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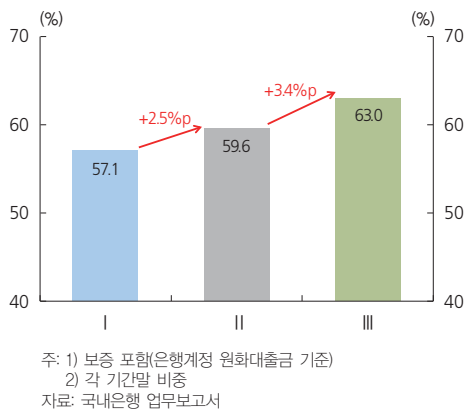
주: 1) 임대수익률 + 가격상승률(중대형 상가 기준, 2016년 1~9월중 투자수익률은 연율 환산치)
2) 중소기업대출 신규취급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한국감정원

라. 기업신용에 대한 경계감 확대

담보대출 비중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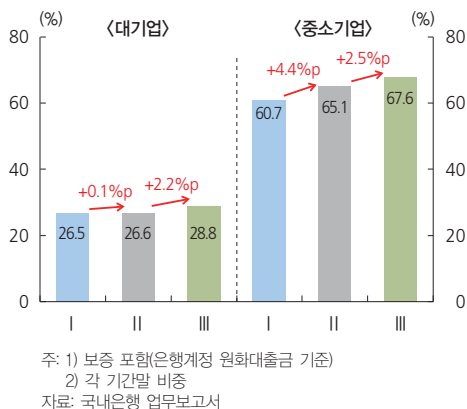
기업의 업황부진이 이어지면서 은행 기업대출 중 담보대출 비중이 상승하는 가운데 특히 중소기업대출에서 동 비중이 현저히 높아지는 등 신용차별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⁶⁾ 담보대출 비중은 업황부진 이전기 57.1%에서 진입기 59.6%로 상승(+2.5%포인트)한 후 심화기에는 63.0%로 상승폭(+3.4%포인트)이 더욱 확대되었다(그림 II-13).

〈그림 II-13〉 기업대출의 담보대출¹⁾ 비중²⁾



기업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의 담보대출 비중은 업황부진 이전기 60.7%에서 심화기 67.6%로 상승(+6.9%포인트)하여 대기업의 동 비중 상승폭(+2.3%포인트)을 크게 웃돌았다(그림 II-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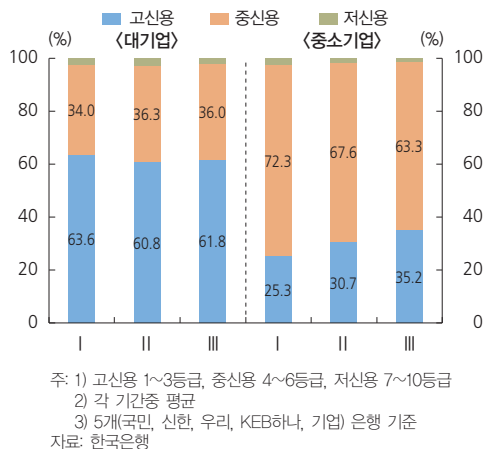
〈그림 II-14〉 기업규모별 담보대출¹⁾ 비중²⁾



신용등급 간 차별화 심화

신용등급별로는 중신용보다는 고신용 등급 위주로 기업대출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고신용등급 대출 비중이 업황부진 이전 25.3%에서 심화기에 35.2%로 높아지는 등 고신용등급 선호 현상이 두드러졌다(그림 II-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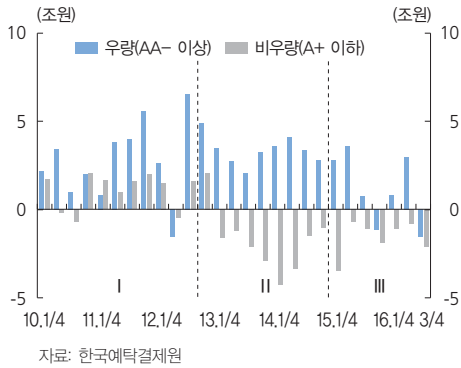
〈그림 II-15〉 신용등급¹⁾별 신규대출 비중²⁾³⁾



6) 기업의 업황부진 지속으로 은행들의 리스크 회피성향이 강화되면서 신용대출이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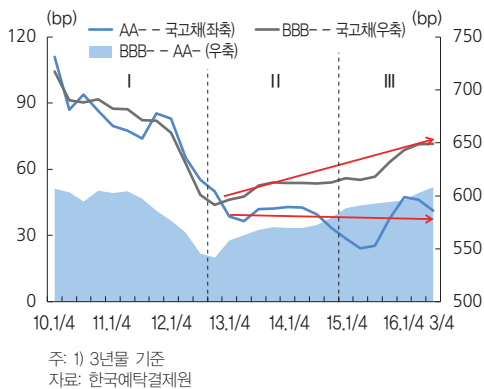
회사채시장의 경우에도 비우량(A+ 이하) 회사채가 업황부진이 시작된 2013년 이후 본격적으로 순상환되고 있다(그림 II-16).

〈그림 II-16〉 신용등급별 회사채 순발행



리스크 프리미엄 측면에서도 업황부진기에 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신용경계감이 높아지면서 비우량 회사채를 중심으로 신용스프레드가 확대된 가운데 우량 및 비우량 회사채 간 스프레드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그림 II-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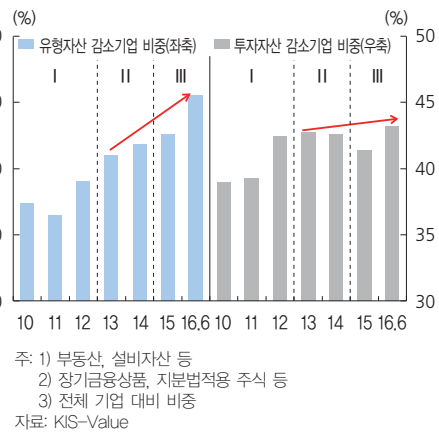
〈그림 II-17〉 회사채 신용스프레드 및 신용등급 간 스프레드⁷⁾



마. 기업의 재무건전성 개선 노력 강화

기업은 업황부진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자산 매각, 사업 재편 등의 자구노력을 통한 구조조정으로 부채를 축소하면서 재무건전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실제로 업황부진 진입기 이후 부동산, 설비자산 등의 유형자산과 장기금융상품 등의 투자자산이 감소한 기업의 전체 기업 대비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그림 II-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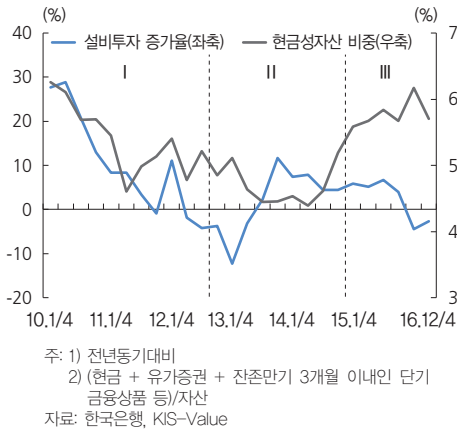
〈그림 II-18〉 유형자산¹⁾ 및 투자자산²⁾ 감소기업 비중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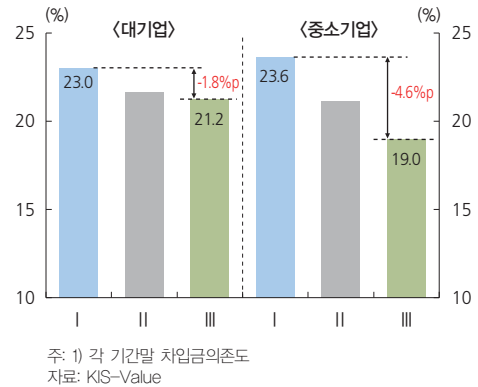
또한 설비투자를 축소하는 반면 현금성자산⁷⁾ 비중은 늘리는 등 기업의 보수적 경영행태가 강화되는 모습이다(그림 II-19).

7) 현금, 유가증권 및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인 단기금융상품 등을 포함한다.

〈그림 II-19〉 설비투자 증가율¹⁾ 및 기업 현금성자산 비중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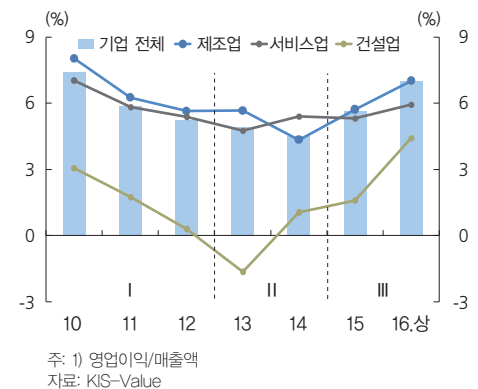
〈그림 II-20〉 기업의 차입금의존도¹⁾ 변화



이러한 점들이 반영되어 기업의 차입금⁸⁾ 증가율은 업황부진 이전기에 11.7%(기간중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의 평균)였으나 진입기에는 3.1%로 크게 낮아진 후 심화기에는 0% 수준으로 낮아졌다. 그 결과 업황부진기에 기업의 차입금의존도(차입금/자산)가 업황부진 이전보다 하락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의 차입금의존도가 업황부진 이전기 23.6%에서 업황부진 심화기에 19.0%로 낮아져(-4.6%포인트) 대기업 하락폭(-1.8%포인트)을 상회하였다(그림 II-20).⁹⁾

한편 2015년 이후 기업의 경영효율화 노력과 원자재 가격의 큰 폭 하락¹⁰⁾ 등에 힘입어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부채상환 여력이 확충된 점도 기업의 차입금 증가세 둔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그림 II-21).

〈그림 II-21〉 기업 매출액영업이익률¹⁾



8) 분석대상 2,375개 기업의 대출 및 회사채를 포함한다.
9) 이는 중소기업의 경우 업황부진기인 2012년 4/4분기~2016년 2/4분기중 차입금 증가율(+5.6%)이 대기업(+1.3%)보다 컸지만 유형자산 등이 늘어나면서 자산 증가율(+31.7%)이 대기업(+11.9%)을 큰 폭 상회한 데 기인한다.
10) 수입물가 상승률은 2013년에 -7.8%(전년동기대비, 원화 기준),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9.8%, -34.0%를 기록한 후 금년에도 1~9월중 전년동기대비 -21.6%를 기록하여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3. 시사점

업황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구조조정이 추진되면서 기업신용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담보위주 대출관행, 회사채시장에서의 신용차별화 심화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담보력이 부족한 신생기업 및 기술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일반은행을 중심으로 취약업종 여신이 뚜렷이 축소되는 것은 시장원리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은행의 취약업종 익스포저 축소 과정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이 크게 늘어난 점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임대업대출은 향후 부동산 경기변화에 따라 건전성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¹¹⁾

업황부진이 이어지면서 나타난 기업의 원가절감, 자구 노력 등은 기업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을 개선시키는 데 일부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글로벌 수요 부진 등을 반영한 설비투자 축소 등 보수적 경영행태의 지속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성장성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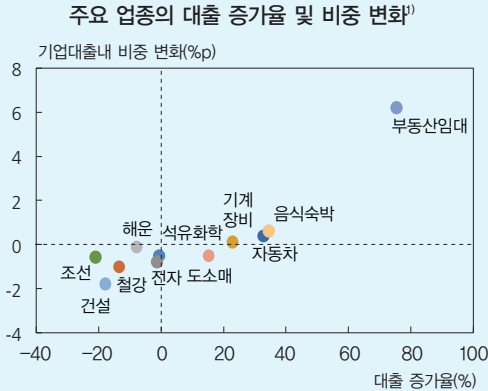
11) 개인사업자의 부동산임대업대출 급증에 따른 리스크 요인은 <참고 14> 「부동산임대업대출 현황 및 평가」(111쪽)를 참조하기 바란다.

참고 14

부동산임대업대출¹⁾ 현황 및 평가

(부동산임대업대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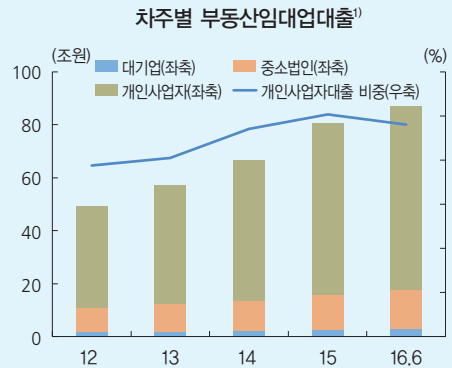
업황부진 지속으로 기업신용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가운데서도 부동산임대업대출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는 2013년 이후²⁾ 일반은행의 조선·철강·건설·해운 등 취약업종 대출뿐만 아니라 비취약업종의 대출이 감소하거나 정체된 것과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일반은행의 전체 기업대출에서 부동산임대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말 13.3%에서 2016년 6월말 19.5%로 상승하였다.



주: 1) 기업의 업황부진이 2012년 4/4분기부터 시작된 점을 감안하여 2016년 6월말 대출잔액을 2012년말과 비교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차주별(대기업,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현황을 보면 2016년 6월말 현재 전체 부동산임대업대

출 중 개인사업자대출이 79.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인 등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12~16년중 일반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은 연평균 18.0%로 대기업·중소법인 전체의 부동산임대업대출 증가율(16.0%)을 웃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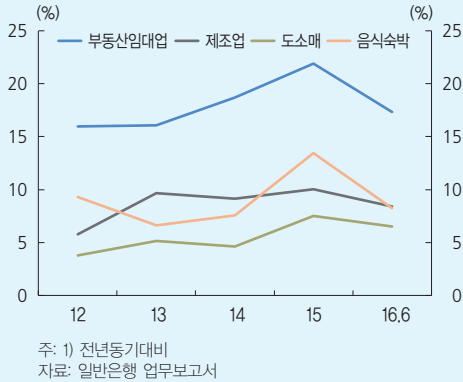


주: 1) 은행계정 및 신탁계정 대출잔액 기준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한편 같은 기간중 개인사업자대출 내에서 업종별 대출 증가율(연평균)을 살펴보면, 부동산임대업 증가율(18.0%)이 제조업(8.6%), 도소매업(5.5%), 음식숙박업(9.0%) 등 여타 업종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1) 여기에서는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 및 기타 부동산 임대업 대출을 포함한다.
2) 2012년 4/4분기 이후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정체 또는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업황부진기에 진입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안정 현안 분석> 「II. 업황부진 장기화에 따른 기업금융의 주요 특징」(102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개인사업자대출 업종별 증가율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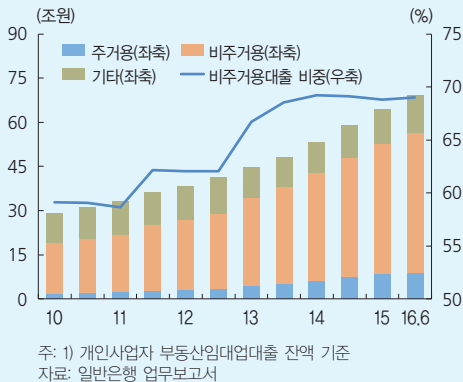


(개인사업자 부동산임대업대출의 주요 특징)

부동산임대업대출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개인사업자의 부동산임대업대출이 갖고 있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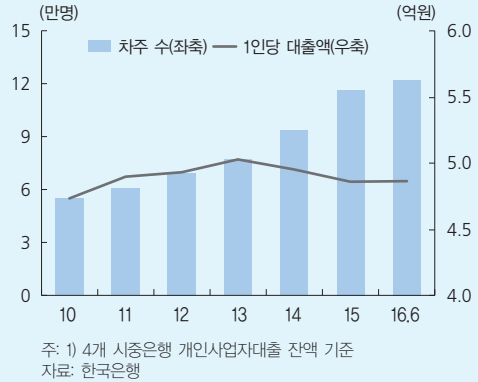
부동산임대업대출은 상가, 오피스 등 비주거용 건물 관련 대출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2016년 6월말 일반은행의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대출 비중은 69.0%로 주거용 및 기타 부동산임대업대출 비중(각각 12.7%, 18.3%)을 크게 상회하였다. 이는 부동산임대업대출의 건전성이 주택경기보다는 전반적인 경기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업용부동산 가격의 움직임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유형별 부동산임대업대출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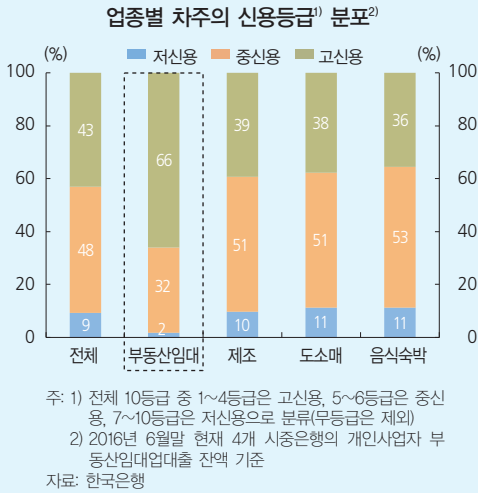
한편 부동산임대업대출 차주 수는 2012년말의 5.5만명에서 2016년 6월말 2.2배 수준인 12.2만 명으로 증가하였다(4개 시중은행 기준³⁾, 이하 동일). 그러나 1인당 대출액은 동 기간중 4.7~5.0 억원 수준에서 소폭의 등락을 보였다.

부동산임대업 차주 수 및 1인당 대출액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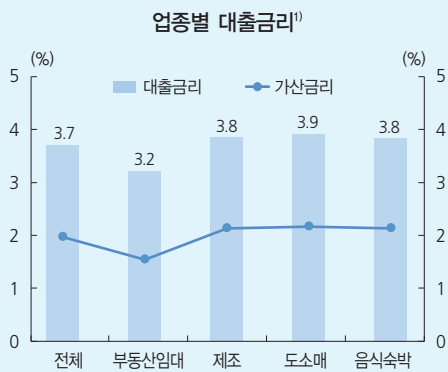


차주의 신용도는 여타 업종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부동산임대업대출의 고신용 차주 비중은 2016년 6월말 현재 66%로 제조업(39%), 도소매업(38%), 음식숙박업(36%) 대출 등의 고신용 차주 비중을 크게 상회하였다. 부동산임대업대출의 저신용자 비중은 2%로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3) KEB하나, 우리, 국민, 신한은행을 포함한다.



부동산임대대출 금리는 여타 업종보다 낮은 수준이다. 2016년 6월말 현재 대출금리 평균(잔액 기준)은 3.2%로 제조업(3.8%), 도소매(3.9%), 음식숙박업(3.8%) 대출 등의 금리 수준을 하회하였다. 이는 차주의 신용도가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가산금리를 낮게 운용한 데 기인한다.



4)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013년 3월말 8.9%에서 2016년 6월말 10.5%로, 오피스 공실률은 같은 기간중 8.5%에서 13.4%로 상승하였다.
5) 상가 임대수익률은 2013년 5.0%에서 2016년 9월 4.6%로, 오피스 임대수익률은 같은 기간중 5.4%에서 4.6%로 하락하였다.
6) 최근 높은 상업용부동산 착공면적 증가율(2015년 43.6%)을 감안할 때 2017년 이후 동 부동산의 신규 공급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평가)

2013년 이후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임대업대출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차주의 신용도가 높고 주담보인 상업용부동산의 가격이 안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자산건전성 측면에서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016년 6월말 현재 고정이하여신비율(중소기업대출 기준)을 보면 부동산임대업대출이 0.34%로 제조업(2.08%), 건설업(5.56%), 도소매업(1.02%), 음식숙박업(0.54%) 대출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다만 최근 자영업자의 업황부진에 따른 임대 수요 위축 등으로 상업용부동산의 공실률이 상승⁴⁾하고 임대수익률도 하락⁵⁾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7년 이후 상업용부동산의 공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⁶⁾되는 상황에서 임대수익률 추가 하락에 따른 부동산 가격 조정, 대출금리 상승 등의 충격이 발생할 경우 중·저신용등급 차주(전체 차주의 34%)를 중심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되면서 부동산임대업대출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III. 은행시스템 상호연계성 분석¹⁾ 및 횡단면 시스템 리스크 측정

1. 분석 배경
2. 은행시스템 상호연계성 분석
3. 은행부문 횡단면 시스템 리스크 측정

1. 분석 배경

금융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는 시계열(time series) 차원뿐만 아니라 횡단면(cross section)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횡단면 관점에서 시스템 리스크 발생 및 확산 메커니즘을 파악하기 위해

서는 금융시스템 내 상호연계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 금융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은행부문²⁾의 횡단면 시스템 리스크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개별 은행 단위의 상호거래(조달·운용) 네트워크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2008 SNA 개편·이행으로 확보 가능한 2013년 이후 자금순환통계의 은행별 주요 조사표를 이용하여 개별 은행간, 은행·비은행 부문 간 상호거래 네트워크 행렬을 구축³⁾하고, 이를 통해 횡단면 차원의 은행부문 시스템 리스크를 측정하고자 한다.

- 1) <금융안정 상황> 「III-3. 상호연계성」(61쪽)은 금융채, RP, CD, CP 등 시장성 금융상품을 기준으로 업권별 상호연계 규모를 분석하고 있어 자금순환통계의 전체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분석한 보고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보고는 은행시스템 내 개별 은행간 상호거래 네트워크 분석을 토대로 횡단면 차원의 시스템 리스크를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2) 2016년 6월말 금융부문별 자산기준 비중(자금순환통계 기준)은 은행 34.6%, 보험 15.3%, 서민금융 8.7%, 증권 6.6% 등이다.
- 3) 자금순환통계의 은행별 현금 및 예금 명세서, 차입금명세서, 콜론·콜머니 거래자별 조사표, 파생금융상품 거래자별 조사서 등의 조사표를 바탕으로, 거래행렬의 부문 간 거래구조에 대한 정보가 불완전할 경우 행 합계와 열 합계액을 이용하여 거래 구조를 추정하는 방법인 RAS 알고리즘(Degryse and Nguyen, 2007)을 활용하여 거래상대방별 잔액을 추정하였다. 이를 통해 개별 은행 단위의 상호거래 뿐만 아니라 개별 은행과 34개 금융권역 및 9개 기타부문의 상호거래 행렬을 48개 금융상품별로 세분화하여 구축하였다.

금융시스템 상호거래 네트워크 행렬¹³⁾

				금융 부문 ²⁾					기타 부문 ²⁾							
				은행 부문 ²⁾		2			1			...		K		
		1	...	1	...	2	...	M	1	M	1
자 산 (부 문) ↓	은행 부 문 ²⁾	1	...	b ₁₁₁₁	...	b _{111N}	b ₁₂₁₀	b _{1M10}	b ₁₁₁₀	b _{1K10}
	2	...	N	...	b _{11N1}	...	b _{11NN}	b _{12N0}	...	b _{1MN0}	b _{11N0}	b _{1KN0}
	M	...	M	...	b ₂₁₀₁	...	b _{210N}	b ₂₂	...	b _{2M}	L ₂₁	L _{2K}
기 타 부 문 ²⁾	1	...	b _{M101}	...	b _{M10N}	b _{M2}	b _{MM}	L _{M1}	L _{MK}
	K	...	K	...	b _{K101}	...	b _{K10N}	a _{K2}	a _{KM}	a _{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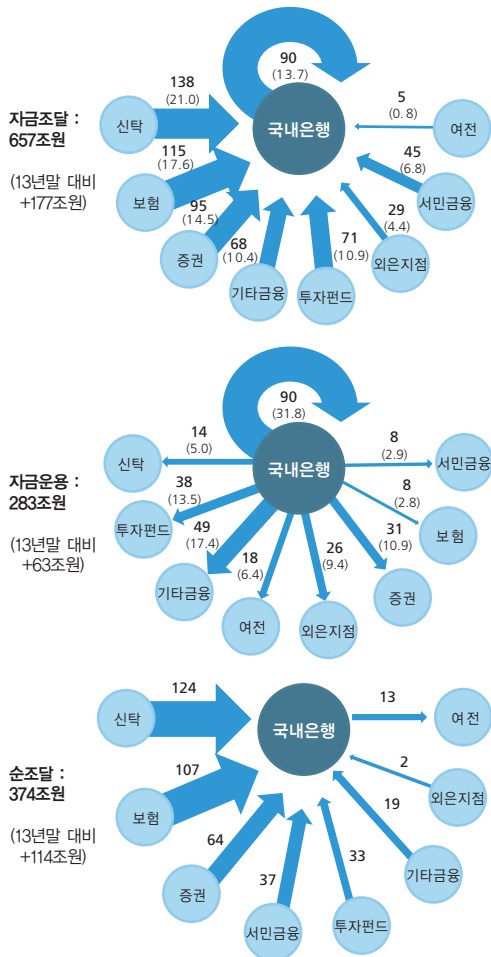
주: 1) 48개 금융상품별로 구축, 각 상품별로 단기/장기, 원화/외화로 구분
 2) {1,...,N}=17개 국내은행, {1,...,M}=34개 금융권역, {1,...,K}=9개 기타부문(한국은행, 정부, 기업, 가계, 국외 등)
 3) 은 은행·비은행 권역 간, 은 은행간 상호거래 행렬

2. 은행시스템 상호연계성 분석

가. 은행과 금융권역 간 상호연계 구조

2016년 6월말 기준 금융시스템 권역 간 상호연계 구조를 분석한 결과, 국내은행이 전체 금융부문 상호거래에서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Ⅲ-1).

〈그림 Ⅲ-1〉 국내은행과 금융권역 간 자금조달 및 운용 구조¹⁾²⁾



주: 1) 조원, ()는 총자금조달 또는 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2) 서민금융은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 등이며, 기타금융은 지주회사, 유동화회사 등
 자료: 한국은행

국내은행이 금융부문을 통하여 조달 및 운용한 자금규모는 각각 657조원 및 283조원으로 순조달규모(조달에서 운용을 차감한 규모)는 374조원에 달하였다. 먼저 자금조달 측면에서는 신탁(138조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21.0%), 보험(115조원, 17.6%), 증권(95조원, 14.5%), 은행간 상호거래(90조원, 13.7%)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였다. 자금운용 측면에서는 은행간 상호거래(90조원, 31.8%), 기타금융(49조원, 17.4%), 투자펀드(38조원, 13.5%), 증권(31조원, 10.9%) 등에 자금을 운용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의 순조달규모는 신탁(124조원), 보험(107조원), 증권(64조원), 서민금융(37조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3년말 대비로는 국내은행의 금융부문을 통한 자금 조달 및 운용 규모가 각각 177조원 및 63조원 증가하여 순조달규모는 114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은행시스템 상호연계 구조

개별 은행⁴⁾간 상호거래를 대상으로 은행시스템 상호연계 구조를 분석한 결과, 2016년 6월말 기준 L, I, P, Q, J은행 등을 중심으로 채권, 대출, 파생상품 등의 상호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간 상호거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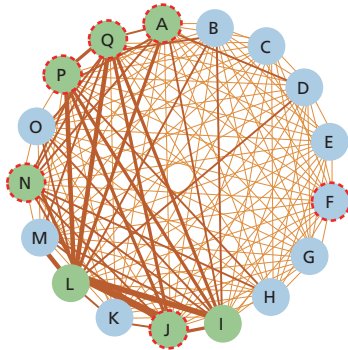
먼저 은행간 상호거래를 규모 순으로 살펴보면, L·J은행(5.3조원), I·L은행(4.4조원), L·Q은행(3.6조원), L·M은행(3.5조원), L·

4) 국내은행(17개)의 경우 A, B, C, ..., Q은행으로 특정 순서 없이 명명하였다.

P은행(3.5조원) 등의 순으로 상호거래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상호거래 상위 은행에 대부분의 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D-SIB)이 포함되어 있어 은행간 상호거래 규모와 시스템 중요도 간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그림 III-2).

〈그림 III-2〉 2016년 6월말 은행시스템 상호연계 지도¹⁾²⁾



주: 1) ○은 D-SIB, ●은 상호거래 기준 상위 7개 은행
2) 화살표 굵기는 상호거래 규모에 비례
자료: 한국은행

한편 2013년말 이후 은행간 상호거래 상위 은행의 순위가 크게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L은행의 순위가 2013년말 6위에서 2016년 6월말 1위로 높아졌으며 P은행(5위 → 3위), J은행(7위 → 5위) 등도 상승하였다. 반면 O은행(2위 → 10위), N은행(3위 → 6위), A은행(4위 → 7위) 등은 상호거래 순위가 크게 하락하였다. 이와 같이 연도별 은행간 상호거래 규모의 순위가 크게 변동하고 있어 동 규모가 급증한 은행을 통한 잠재 리스크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표 III-1).

〈표 III-1〉 상호거래 상위 은행 추이

순위	2013	2014	2015	2016.6
1	I	L	L	L
2	O	I	P	I
3	N	A	I	P
4	A	P	Q	Q
5	P	N	N	J
6	L	J	A	N
7	J	R	J	A

자료: 한국은행

은행간 상품별 상호거래 구조

은행간 상품별 상호거래를 살펴보면, 채권(34.4조원, 38.3%), 대출(25.5조원, 28.3%), 파생상품(5.4조원, 6.0%) 등의 순으로 거래 규모가 크게 나타났다(표 III-2).

〈표 III-2〉 은행간 상품별 상호거래 규모

(조원, %, %p)

상품	2016년 6월말(A)		2013년말(B)		증감(A-B)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채권	34.4	38.3	22.7	31.4	11.7	6.9
대출	25.5	28.3	15.1	20.9	10.4	7.4
파생	5.4	6.0	4.8	6.7	0.6	-0.7
콜	2.3	2.6	4.8	6.6	-2.5	-4.0
예금	2.0	2.2	7.2	10.0	-5.2	-7.8
RP	0.2	0.2	0.0	0.0	0.2	0.2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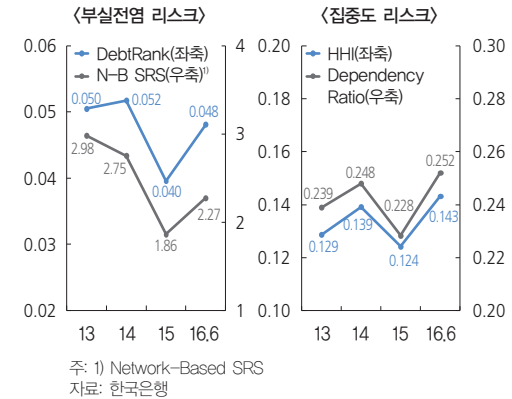
한편 2013년말 대비로는 대출 및 채권 비중이 상승한 반면 예금 및 콜 비중이 하락하였다.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수익성 제고 노력 등으로 인해 대출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말 20.9%에서 2016년 6월말 28.3%로 7.4%포인트 상승하였고, 채권비중도 31.4%에서 38.3%로 6.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예금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 등으로 예금비중이 2013년말 10.0%에서 2016

년 6월말 2.2%로 7.8%포인트 하락하였고, 단기자금시장 개편⁵⁾ 등의 영향으로 콜시장 거래 규모가 감소하면서 콜비중도 6.6%에서 2.6%로 4.0%포인트 하락하였다.

특히 채권, 파생상품 등은 위기 시 금융시스템의 유동성이 위축되면서 리스크의 확산경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 상품의 상호거래 증가를 통한 리스크 축적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다.

〈그림 III-3〉 국내은행의 횡단면 리스크 추이



3. 은행부문 횡단면 시스템 리스크 측정

이와 같은 은행시스템 상호연계 구조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은행부문의 횡단면 리스크⁶⁾를 측정된 결과, 특정은행의 부실이 여타 은행과의 상호거래를 통해 확산되는 위험인 부실전염 리스크와 특정은행의 소수 및 단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의존도를 나타내는 집중도 리스크가 모두 2015년말 저점을 기록한 이후 2016년 6월말 재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그림 III-3).

가. 부실전염 리스크

상호거래 규모가 크거나 복잡할수록 높아지는 부실전염 리스크를 Network-Based SRS⁷⁾, DebtRank⁸⁾ 등의 지표를 통해 살펴본 결과 2016년 6월말 기준으로 일부 시중은행 및 특수은행이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특정 은행의 도산 확률이 거래상대방 은행과의 상호거래를 통해 확대되어 나타난 리스크 총량을 의미하는 Network-Based SRS는 2016년 6월말 기준으로 시중은행과 특수은행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지방은행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3년말 대비로는 특수은행이 소폭 상승한 반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하락하였다.

5) 금융위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콜시장에서 제2금융권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콜시장을 은행중심 시장으로 개편하는 「금융회사 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을 2015년 이후 시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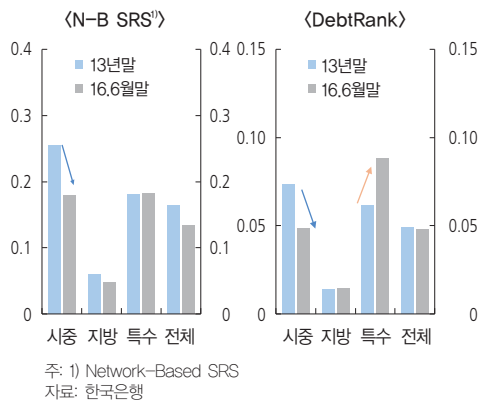
6) 은행부문 횡단면 리스크 측정치의 시계열이 짧아 동 지표를 통하여 주의 및 위기 단계 임계치를 추정하기엔 한계가 있어 지표의 크기보다는 흐름과 추이를 통해 리스크 정도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7) 특정 은행의 도산 확률이 여타 은행과의 상호거래 익스포저를 통해 확대되어 나타나는 리스크 총량으로서 개별은행의 도산 확률(%)과 거래상대방과의 상호거래 규모(조원)를 곱한 값의 제곱근으로 정의한다($\sqrt{\text{도산확률}^T \times \text{상호거래 네트워크} \times \text{도산확률}}$) (Das, 2015). 지표의 절대적인 크기보다는 은행간 상대적인 비교 등에 유용하다.

8) 특정 은행의 도산에 따른 충격이 거래상대방에게 상호 익스포저를 통해 순차적으로 확산되어 나타나는 손실 합계가 전체 은행부문 보유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DebtRank 0.05는 개별은행의 도산에 따른 손실이 평균적으로 은행 전체 자본 대비 5%의 손실을 초래함을 의미한다(Battiston et al., 2012).

특정 은행의 도산에 따른 충격이 상호 익스 포저를 통해 순차적으로 확산될 경우 나타나는 손실이 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DebtRank 는 2016년 6월말 기준으로 특수은행과 시중 은행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지방은행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3년말 이후 시중 은행의 DebtRank는 하락한 반면 특수은행이 크게 상승하였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그림 III-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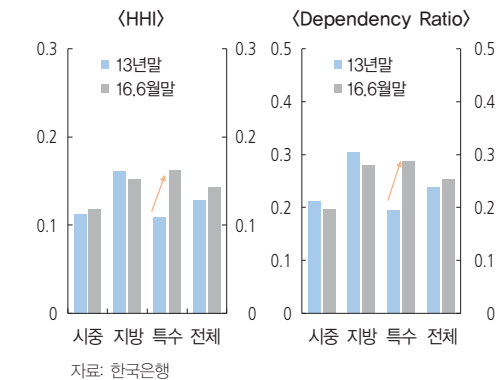
〈그림 III-4〉 은행권역별 부실전염 리스크



는 특수은행과 시중은행이 상승한 반면 지방은행의 경우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의존도를 의미하는 Dependency Ratio는 2016년 6월말 기준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시중은행은 낮게 나타났다. 2013년말 대비 Dependency Ratio는 특수은행이 상승한 반면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의 경우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특수은행의 경우 HHI, Dependency Ratio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II-5).

〈그림 III-5〉 은행권역별 집중도 리스크



나. 집중도 리스크

소수 및 단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집중도 리스크를 HHI⁹⁾, Dependency Ratio¹⁰⁾ 등의 지표를 통해 측정 한 결과 2016년 6월말 기준으로 특수은행 및 지방은행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의존도를 의미하는 HHI는 2016년 6월말 기준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시중은행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2013년말 대비로

부실전염 및 집중도 리스크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3년말 이후 단기간에 부실전염 및 집중도 리스크가 커진 은행과 현재 상대적으로 높은 리스크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은행을 중심으로 횡단면 관점에서 리스크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9) 각 은행 단위로 여타 은행과의 거래비중 제곱 합을 산출한 후 평균한 값으로, 소수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의존도를 의미한다.
10) 각 은행 단위로 거래 규모가 가장 큰 은행과의 거래비중 제곱을 평균한 값으로, 단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의존도를 의미한다.

[부록 1] 거시 금융안정 상황점검 회의 의사록(2016년 9월 22일)

(1) 금융안정국장이 「보고 제90호-거시 금융안정 상황점검」에 대하여 보고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관련부서는 지난 9월 19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 보고하였음.

일부 위원은 금융시스템 시변적 리스크의 축적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의 금융경제 활동 결과 나타나는 경기순응성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BCBS가 권고한 신용/GDP비율 이외에 여타 지표들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다른 일부 위원은 신용/GDP비율이 장기 추세치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동 비율이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높은 수준에 다다른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신용/GDP비율이 금융위기를 사전에 감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는 현재 신용/GDP비율 이외에 부문별 신용증가율, 자산가격 움직임, 금융기관의 레버리지(leverage) 변화 등의 다양한 지표를 함께 점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변적 리스크의 축적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 등을 계속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평가·전망함에 있어 동 시장이 시장참가자들의 심리, 거시금융·경제 상황, 부동산관련 규제 등 다양한 요인들에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균형적인 분석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음.

일부 위원은 주택시장의 수급여건 평가시 가계의 소득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일부 위원은 주택가격의 적정수준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금융자산의 하나로 보아 가격변동성과 기대수익률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분석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 주택시장 상황에 대한 평가와 전망이 국토교통부는 물론 주택시장 전문가 등의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언급하며 거시건전성정책뿐만 아니라 통화정책 결정 등에도 참고할 수 있겠다는 견해를 밝혔음.

관련부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였으며 앞으로도 자산시장으로서 주택시장에 대한 분석기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 다른 일부 위원은 보험사의 잠재리스크와 관련하여 금리차 마진(margin) 축소, 고령화 심화 등으로 장기 시계에서 보험사들의 영업환경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견해를 밝혔고, 이에 대해 관련부서는 현재로서는 보험사가 경비절감 노력 등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으나 금리차 마진 축소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보험사의 수익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한편 일부 위원은 취약성 측면에서 금융기관의 거래상대방 위험, 특정 부문에 대한 편중리스크 현상 등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복원력 평가에서는 주택시장을 포함한 다양한 부문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가 중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일부 위원은 거시 금융안정 상황점검 보고서의 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취약성, 복원력, 주요이슈의 세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본 금번 보고서 체계의 개편이 거시금융안정 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다른 일부 위원은 보고서의 활용방안에 대

해 물었으며, 이에 대해 금통위 회의운영관련 규정 등에 따라 유관기관과 보고서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어 일부 위원은 유관기관과의 보고서 공유 등이 거시건전성 상황에 대한 기관간 이해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관련부서의 보고 후 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위원은 작년과 올해의 분양실적을 2017년과 2018년 준공예정물량과 비교해보면 실제 분양물량이 입주물량 예상치에 비해 훨씬 크게 나타난다고 지적하면서 동 괴리의 원인이 무엇이며 관련부서의 평가는 어떠한지 물은 후, 특히 최근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수요 확대 요인을 분석할 때 오피스텔 공급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추후 발간되는 금융안정보고서에는 앞서 언급된 부분들 등에 유의하여 분석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부서는 분양에서 준공까지 평균적으로 2년 6개월에서 3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준공예정 물량과 분양실적 추이를 살펴보면 시차를 두고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분양시점부터 가계의 자금조달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분양시장 데이터를 기초로 주택시장을 점검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데이터의 안정성 측면을 고려하여 준공예정 물량 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고 답변한 후 앞으로 주택시장 관련 데이터를 더욱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일부 위원은 이번 보고자료에 대해 보고서의 체계 개편, 주요 이슈의 선별, 은행 수익성 악화 시나리오에 따른 스트레스 테스트 분석 등 형식과 내용면에서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한 후 다만, 주택시장 분석시 거시경제와 관련된 분석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펀더멘탈이 개선되지 않고 GDP성장은 정체된 가운데 거시건전성 규제에 의해 더 이상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 없는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주택 수요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한 이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동 보고서 내용을 유관기관과 공유할 때 표현 하나하나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주택시장 상황 평가와 전망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언급하고, 이번 분석이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추진 과정에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분석 내용을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유하고 토론토 함으로써 거시건전성정책 수립 및 집행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주택가격, 가계부채, 가계소비 등의 상호 연관관계 등을 감안해 볼 때 이번 보고서와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제안하였음. 먼저 주택시장을 수급 측면 뿐만 아니라 자산가격의 측면에서도 접

근하여 필요변수 개발, 서베이 자료 활용 등을 통해 향후 거시 금융안정 상황점검 보고서의 분석 정도를 국제적으로 최고의 수준까지 제고하는 데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고,

다음으로 금융불안정 발생 가능성을 바라보는 관점과 관련하여, 금융위기는 예기치 않은 메커니즘을 통해 나타날 소지가 크고 미국의 경우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미연준 등의 많은 보고서에서 미국의 주택가격과 가계부채가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다수 도출된 점 등에 비추어 현재의 우리나라 금융상황을 분석할 때 큰 문제가 없다는 관점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어딘가에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하에서 이를 점검해 나가는 방식으로 분석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는 주택시장 분석의 정도를 계속 높여가야한다는 당부에 유념하여 다양한 분석기법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으며, 이번 거시 금융안정 상황점검 시에는 트리거를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시스템 내의 취약성 점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경하였다고 침언하였음.

마지막으로 일부 위원은 주택시장 동향과 전망은 가계부채와 거시건전성 대책 추진뿐만 아니라 통화정책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음.

[부록 2] 용어 해설

[금융안정 상황]

I. 신용시장

(신용 레버리지)

바젤은행감독위원회 국제결제은행(BIS) 산하의 위원회. 은행의 건전성 규제에 대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음. 현재 EU를 포함한 28개 국가의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관이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참여하고 있음

(가계신용)

처분가능소득 개인이 소비 및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

집단대출 주택담보대출 중 신규분양·재건축 재개발아파트 입주(예정)자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차주 집단에게 일괄승인방식으로 실행되는 여신으로 이주비, 중도금 및 잔금대출로 나뉜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가계부채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① 객관적인 소득증빙자료를 통한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 ② 신규 주택구입 자금, 고부담대출 등은 비거치식 분할상환 유도 ③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대출한도 산정 등을 규정한 제도

(기업신용)

기업신용 기업이 대출이나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의미하며 자금순환 통계 기준 대출(정부융자 포함) 및 채권(회사채 등)으로 정의

부채비율 부채를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의 재무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의 이자지급능력을 측정하는 지표

II. 자산시장

(주식시장)

주가수익비율(PER)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의 수익성 측면에서 주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

주가순자산비율(PBR) 주가를 주당순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의 순자산 측면에서 주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

(채권시장)

글로벌펀드 포트폴리오 구성의 25% 이상을 해외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

신용스프레드 국고채와 회사채의 수익률 차이로서 투자자들이 인식하는 신용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며 신용스프레드가 높을수록 위험회피 성향이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

우량물 신용평가사들에 의해 평가된 신용등급이 AA-이상인 회사채

(부동산시장)

공실률 공실면적의 합을 총 연면적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공실은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분양 등의 방법으로도 이용되지 않는 오피스 및 매장용 빌딩의 빈 공간을 의미

분양권 전매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고 입주자를 변경하는 것

III. 금융기관

(은행)

고정이하여신비율 무수익여신 산정 대상 여신을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한 고정,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 여신의 합계액을 총여신으로 나눈 값으로 은행의 부실여신 보유 수준을 나타내는 자산건전성 지표

구조적이익률	이자이익, 수수료이익, 신탁이익 합계에서 운영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실질 총자산(평잔 기준)으로 나눈 값으로 은행의 지속가능한 이익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
순이자마진(NIM)	이자자산순수익(이자수익자산 운용수익 - 이자비용부채 조달비용)을 이자 수익자산의 평잔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핵심 수익성 지표

(비은행금융기관)

주가연계증권(ELS)	사전에 약정한 방법에 따라 개별 주식 또는 주가지수의 가격변동 등과 연계하여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금융투자상품
담보인정비율(LTV)	자산의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액 비율로서 예컨대 LTV가 70%인 경우 주택의 가치가 5억원이면 대출금액 한도는 3.5억원임
자산·부채종합관리(ALM)	금융기관이 리스크 대비 수익률 최적화를 위해 자산과 부채의 구조를 관리하는 기법으로서 금융기관은 주로 자산·부채의 만기, 유동성 및 금리 리스크 등을 통해 ALM을 관리

(상호연계성)

상호연계 규모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 규모로서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채, RP, CD, CP 등 시장성 금융상품을 통해 조달한 금액 등을 통해 추정
----------------	---

IV. 자본유출입

브렉시트(Brexit)	영국(Britain)과 탈퇴(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의미하며, 탈퇴국은 EU 이사회에 탈퇴 의사를 통보 후 2년 동안 무역 등 각종 조약을 새로 협상해야 함
---------------------	---

[복원력]

I. 금융기관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 (LCR)	순현금유출액 대비 고유동성자산 비율로 은행들이 30일 동안의 급격한 유동성 유출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냄
외화유동성비율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부채 대비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자산 비율로 은행의 외환건전성을 나타내는 비율
대손충당금적립비율	총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지급보증충당금, 채권평가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잔액을 합계한 금액을 무수익여신 산정대상 여신 중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된 여신의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로서 예상손실에 대한 흡수력을 나타내는 지표
보통주자본	은행 청산 시를 제외하고는 상환되지 않는 자본으로 자본금,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
기본자본	보통주자본에 영구적 성격의 자본증권 발행 관련 자본금 등을 포함
총자본	기본자본에 청산 시 은행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후순위 채권 등을 포함
BIS 기준 총자본비율	BIS기준 총자본금액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금융기관이 보유한 리스크를 자기자금으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자본적정성 지표

(비은행금융기관)

위험기준지급여력 비율(RBC비율)	지급여력금액(자본금, 잉여금 등 가용자본)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위험액으로 측정하여 산출된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회사의 자본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
---------------------------	--

II. 대외지급능력

대외지급능력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채무 상환능력
---------------	--------------------

III. 금융시장인프라

CLS	외환거래에 따른 수취통화와 지급통화를 동시에 주고받는 외환동시결제시스템(Continuous Linked Settlement)
외환동시결제	한 통화의 최종이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다른 통화의 최종이체가 발생하도록 하는 결제 메커니즘
거액결제시스템	거액이면서 우선순위가 높은 지급을 처리하는 자금결제시스템
소액결제시스템	수표, 입금 및 출금이체, 지급카드 거래 등 상대적으로 소액 지급을 대량으로 처리하는 자금결제시스템

[금융안정 현안 분석]

II. 업황부진 장기화에 따른 기업금융의 주요 특징

차입금의존도	총자산 중 외부에서 조달한 차입금(회사채 포함) 비중으로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매출액영업이익률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

III. 은행시스템 상호연계성 분석 및 횡단면 시스템 리스크 측정

N-B SRS(Network -Based Systemic Risk Scoring)	특정 은행의 도산 확률이 여타 은행과의 상호거래 익스포저를 통해 확대되어 나타난 리스크 총량을 의미하며, S.R. Das(2015)에 따라 개별 은행의 도산 확률과 여타 은행과의 상호거래 익스포저의 가중평균에 대한 제곱근으로 정의
DebtRank	특정 은행 도산 충격이 거래 상대방과의 상호 익스포저를 통해 순차적으로 확산되어 나타나는 손실 합계가 전체 은행부문 보유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Battiston et al., 2012)
HHI(Herfindahl-Hirschman Index)	각 은행 단위로 여타 은행과의 거래비중 제곱 합을 산출한 후 평균한 값으로, 소수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의존도를 의미
Dependency Ratio	각 은행 단위로 거래 규모가 가장 큰 은행과의 거래비중 제곱 합을 산출한 후 평균한 값으로, 단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의존도를 의미

[부록3] 부문별 담당 부서 및 집필자

부 문	집 필 자	
작성 총괄	금융안정국	신현열(안정분석팀장)
[금융안정 개관] 참고 1 참고 2	금융안정국	송재창(안정분석팀) 송재창 · 윤재준(안정분석팀) 안상기 · 문호성 · 윤환희(시스템리스크팀)
[금융안정 상황] I. 신용시장 1. 신용 레버리지 2. 가계신용 참고 3 참고 4 참고 5 3. 기업신용 II. 자산시장 1. 주식시장 2. 채권시장 3. 부동산시장 참고 6 III. 금융기관 1. 은행 참고 7 2. 비은행금융기관 참고 8 참고 9 3. 상호연계성 IV. 자본유출입	금융안정국 금융안정국 금융안정국 금융안정국 금융안정국 금융안정국 국제국 금융안정국 금융안정국 국제국	권동휘 · 문동규(안정총괄팀) 오강현 · 이지현 · 윤재준(안정분석팀) 남선우 · 박민렬 · 정서림 · 장하주(안정총괄팀) 한경철(일반은행2팀) 오강현 · 이지현(안정분석팀) 채병진 · 조성민(안정분석팀) 임인혁 · 박자람(주식시장팀) 조용범 · 유영철 · 엽소영(채권시장팀) 임영주 · 오강현(안정분석팀) 오강현 · 임영주 · 김솔(안정분석팀) 조항서 · 임상은 · 김은선 · 최영우(은행분석팀) 고석관 · 김지연(자본이동분석팀) 유영휘 · 강선영 · 정재훈(금융제도연구팀) 송길성 · 정상범(비은행분석팀) 류창훈(결제리스크팀) 송길성 · 이한빈(비은행분석팀) 조항서 · 임상은(은행분석팀) 전재환 · 노정우(자본이동분석팀)
[복원력] I. 금융기관 1. 은행 참고 10 참고 11 참고 12 2. 비은행금융기관 II. 대외지급능력 III. 금융시장인프라	금융안정국 국제국 금융결제국	조항서 · 임상은 · 김은선 · 최영우(은행분석팀) 이민규 · 조항서 · 임상은(은행분석팀) 편도훈 · 이은지 · 문호성 · 안상기 이은국 · 윤환희(시스템리스크팀) 신현길 · 박성민(금융규제팀) 송길성 · 정상범(비은행분석팀) 정선영 · 김지연(자본이동분석팀) 손민근 · 김수진(결제안정팀)
[금융안정 현안 분석] I. 최근 금융 및 실물사이클 변화와 시사점 참고 13 II. 업황부진 장기화에 따른 기업금융의 주요 특징 참고 14 III. 은행시스템 상호연계성 분석 및 횡단면 시스템 리스크 측정	금융안정국 금융안정국 금융안정국	이정연(금융안정연구팀) 목정환(금융안정연구팀) 조성민 · 김솔 · 채병진(안정분석팀) 류훈태 · 조재현 · 정현우(상시모니터링반) 안상기 · 이은국(시스템리스크팀)
[부록] 거시 금융안정 상황점검 회의 의사록	금융통화위원회실	김낙현(의사팀)

한국은행의 설립목적, 비전 및 조직가치

설립목적(Mission)

-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함

비전(Vision)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글로벌 선진 중앙은행**

효과적인 통화신용정책 수행으로 경제안정을 주도하고, 금융·경제에 대한 권위 있는 조사 연구와 국민편의 위주의 금융·경제서비스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 중앙은행을 지향

조직가치(Value)

- **공익** 국민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고 공정하게 책무를 수행함
- **중립**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함
- **책임** 주인의식과 열정을 가지고 책무를 투명하게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음
- **소통** 임직원 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국민과 원활하게 소통함
- **전문성**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통찰력을 갖추어 책무 수행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함

금융안정보고서

발행인 이주열
편집인 신호순
발행처 한국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www.bok.or.kr
발행일 2016년 12월 27일
제 작 (주)제일프린테크

- 본 자료는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 > 조사·연구 > 종류별자료 > 반기 >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료 내용에 대하여 질문 또는 의견이 있는 분은 금융안정국 안정분석팀(전화 02-750-6842, 이메일 finstabl@bok.or.kr)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안정보고서는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서적/기념품코너(02-759-4805, www.seowonbok.co.kr) 또는 정부간행물판매센터(02-734-6818, www.gpcbooks.co.kr)에서 매권 당 5,1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THE BANK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ISSN 1975-6607

